

글. 김창길_ Kim, Chang-gil

삼정환경 건축사사무소

아직도 끝나지 않는 규제 개혁의 현실의 벽 _건축관련 임의규제 개혁에 부쳐

Endless wall against the reformation of regulation

2008년 출범한 이명박 정부가 시작한 규제 개혁은 현재까지 진행 중에 있는데 아직 갈 길은 멀기만 하다. 이명박 정부는 수도권정비계획법을 개정해 수도권 입지 규제를 풀어 기업의 투자를 유치하겠다고 하였으나 결국 수도권 집중완화의 벽을 넘지 못했고, 현재까지도 수도권 규제 완화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오히려 투자를 하려는 기업의 발목을 잡아 국가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결과를 내고 있다.

2008년 당시 수도권 규제 개혁을 믿고 투자 검토에 나선 기업들이 규제 완화가 불발되자 사업계획을 수정하거나 해외로 공장을 옮기기도 했다. 국내 설비투자는 정체돼 있는 반면 해외 투자액은 2011년 276억달러, 2013년 306억달러로 급증한 이유다. 기업의 국내 투자 규모와 전후방 산업유발까지 고려하면 일자리 수만 개가 날아갔다. 규제는 지금 이 순간에도 늘어나고 있다고 하니 경기 침체로 인한 한국 경제를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

지난해 9월 3일 청와대에서 열린 2차 규제개혁장관회의. 한 귀농인이 “상수도보호 관련 규제를 풀어 한과공장을 짓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윤성규 환경부장관은 “내년에 허용하겠다”고 답을 했다. 듣고 있던 박근혜 대통령이 “내년이요?”라고 되물었을 때 얼굴이 빨개진 윤 장관의 모습이 TV에 생중계된 모습을 떠올릴 수 있을 것이다. 윤 장관은 즉시 해당과에 해결책을 찾으라고 지시했는데, 담당사무관은 이를 후 현장을 둘러 본 뒤 귀농인을 찾았다. 하지만 귀농인에게는 공장을 지어서는 안 될 이유만 잔뜩 늘어놓고 상사에게는 화재 위험과 폐식용유 문제 등을 거론하며 법 개정이 쉽지 않다고 보고했다. 두 달이 지나도록 검토만 거듭하는 동안 언론에서는 이 문제에 대한 보도가 나왔고, 다시 한 번 청와대의 지시가 떨어져 환경부는 부랴부랴 상수원법의 시행규칙을 개정해 상수원구역에 소규모 생계형 공장건립을 허용한 사례는 알고 있으리라 생각한다.

세계경제포럼에서 144개국을 대상으로 발표한 정부경쟁력을 살펴보면 우리나라의 정부경쟁력은 정부규제 항목이 2008년 24위에서 2014년 93위로 추락했고, 정책결정의 투명성 항목은 44위에서 133위로 추락했다. 이와 같은 수치로 살펴보면 규제 개혁이 얼마나 어려운 벽인지 알 수 있지 않을까? 기업들은 법이나 규정의 개정으로 안 되는 ‘보이지 않는 그림자 규제’가 더 무섭다고 한다. 관료들은 법을 개정해도 각종 행정지도나 구두지도를 통해 규제의 끈을 끝까지 붙들고 있는 경우도 많다.

현재 규제 개혁에는 두 가지 축이 있다. 박근혜 대통령이 언급한 ‘손톱 밑 가시’로 ‘단순한 행정절차 규제’ 등으로 기업에 부담은 되지만 목숨을 위협할 정도는 아닌 규제’가 있고, 김종석 홍익대 경영대학장이 지적한 시장 진입제한 등 ‘기업의 경제 활력을 떨어뜨리는 암적인 핵심 규제’로서 ‘염통 밑 고름’이 있다. 가장 대표적인 염통 밑 고름의 규제로 수도권 규제를 들 수 있다. 이러한 규제는 서둘러 정비해야만 국가경쟁력이 높아지고 일자리 창출에



경기대 건축공학과를 졸업하고 (주)창우정 종합건축사사무소에서 건축 실무를 쌓았다. 주요 작품으로는 변동 글로리아워, 부산 락앤스티치공장, 박순웅정형외과, 춘천 감정리주택, 화성 조암리주택 등이 있으며, 2011 대한민국토목건축기술대상 우수상, 2012 한국건축문화대상 우수상, 2012 경기도건축문화상 대상, 2012 신진건축사상을 수상했다.



건축 임의규제 및 관행 신고센터(<http://cafe.daum.net/promotearch>)

도 많은 기여를 할 수 있다.

지난해 건축관련 규제를 정비하기 위해 국토부에서는 지난 4~6월 숨은 규제 전수 조사, 7~8월 개선방안 지자체 협의, 9~10월 건축위원회 심의 및 표준조례 가이드라인 시달, 10~12월 숨은 규제 이행 실적관리 등을 진행했다. 이로써 건축규제 1,178건에 대하여 지자체 협의를 거쳐 696건은 폐지하고, 482건은 올해 3월까지 정비를 하기로 하였다. 이번 숨은 건축 규제의 정비 현황 및 정비계획을 살펴보면, 전국적으로 수많은 지자체가 법규를 얼마나 다른 시각으로 보고 각종 규제를 하였는지 알 수 있다. 법령에 정해져 있는 대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건축허가를 신청하는 모든 건축물에 대하여 에너지절약계획을 의무화하고 있는 규정, 모든 건축허가 대상 건축물에 대한 디자인 심의를 진행했고, 심지어 인천시는 제3종일반주거지역내 공동주택의 건폐율을 15%이하, 조경면적 30%이상, 차도율 35%이하, 도로변과 측면 배치 및 10m이상 이격 등의 심의 기준을 적용했다.

차마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규제 중의 규제라고 본다. 전라남도의 경우 건축물 사용승인 시 절수설비계획서(외국제품) 제출을 요구하고, 여주시의 기계식주차장 설치 불가, 전주시의 제1종근린생활시설 용도의 건축물에 통창문 설치 규제 등이 금번 규제개혁조사에서 나온 대표적인 사례다. 전국적으로 규제 내용을 살펴보면 건축사 또는 건축주가 건축행위를 법령에 맞게 적용하기보다는 지자체의 임의기준에 휘둘러 얼마나 많은 피해를 보았는지 알 수 있다.

필자가 글을 쓰는 시점에도 안양시에서는 규제개혁 지자체 협의기간이 끝난 시점에 주차장 설치조례를 새로 개정해서 규제를 만들었다. 규제 개혁의 끝은 어디인지, 앞날이 어둡기만 하다. 이제는 더 이상 규제에 얽매어 건축사만 희생당할 수만은 없다. 건축관련 규제 개혁이 시작된 만큼 대한건축사협회나 시·도건축사회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추가적인 건축 규제를 발굴하여 개선해 나가야 한다고 본다. 어떻게 상위 법령에서 정하고 지자체에 위임도 하지 않은 조항들에 대해 임의적인 해석으로 조례를 만들거나 임의 규제를 만들어서 건축주인 국민에게 재산상의 불이익을 주고 창의적인 건축설계를 해야 하는 건축사를 온갖 규제로 묶어 놓고 설계업무를 하게 할 수 있단 말인가?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각종 규제 개혁에 우리 건축사들도 동참하여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

규제 개혁이 마냥 남의 일인 것처럼 강 건너 불구경만 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대처한다면 건축사의 업무도 증가될 수 있으며, 각 지자체마다 다른 규제와 임의 지침에 스트레스 받지 않고 즐겁게 설계업무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본다. ■

글. 성언창_ Sung, Eon-chang

한국천문연구원 소속 소백산천문대 대장

윤동주의 ‘하늘과 바람과 별과 시’와 천문대

Yoon Dong Ju's 'Heaven, Wind, Star and Poem' Prologue and Astronomical Observatory

천문학을 전공하고 이 분야에 종사한 26년 중 20년 이상을 망원경과 함께 하는 천문대에서 일을 했다. 천문대에 있으면서 각계각층의 사람들로부터 여러 가지 호기심 어린 질문을 받았다. 밤하늘을 관측하는 일을 업으로 삼는 천문학자에 대한 호기심과 천문대라는 특별한 공간에 대한 궁금증뿐 아니라 천문대에서의 삶에 대한 궁금증까지 질문은 매우 다양하다. 이런저런 궁금증 중에 지금도 기억나는 것은 졸업작품이나 전시를 구상하고 있는 젊은 건축학과와 건축사들의 천문대라는 공간에 대한 질문이었다.

망원경으로 직접 천체를 관측하여 연구하는 필자는 국내뿐 아니라 외국의 여러 천문대를 다녀왔다. 대부분의 천문대는 해발 1,000m를 넘어 4,000m가 넘는 높은 산정에 세워져 있다. 소백산천문대만 하더라도 기압이 지상보다 15% 정도 낮아 민감한 사람은 고산병으로 두통을 느낄 정도고, 기압차로 과자 봉지가 뽕뽕하게 부풀다. 4200m가 넘는 하와이 마우나키아 천문대는 이러한 현상이 더욱 심한데, 2800m에 있는 숙소에서 2~3일 동안 적응한 다음 올라가도 고산병으로 심하게 두통을 느껴 곳곳에 휴대용 산소통을 준비해 놓을 정도다.

천문학자들뿐만 아니라 아마추어 천문가들도 천체를 관측하기 위하여 높은 곳이나 외딴 시골, 혹은 몽골이나 호주 내륙같이 도시 불빛이 없는 곳으로 간다. 어두운 별을 보는 것이니 당연히 불빛을 피해 가는 것은 이해하는데, 왜 몽골이나 호주 내륙 같이 도시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는 큰 천문대가 없고 바닷가에서 가까운 고산이나 화산섬 한가운데 높은 산꼭대기로 올라가는 것일까? 왜 천문학자들은 이렇게 불편하고 열악한 높은 곳으로만 올라가려고 할까?

지금은 천문학자가 된 친구 둘과 대학 때 망원경을 만들고 천체관측을 다니면서 윤동주 시인의 ‘서시’ 마지막에 이런 문구를 붙였다. “..... 오늘도 별빛이 바람에 스치운다. 오늘도 시상이 나쁘다.” 천문학자들은 관측하기 가장 싫은 날로 구름이 오락가락해서 잠도 못 자고 관측도 제대로 못 하게 되는 밤과 더불어 ‘윤동주 시인의 서시 날밤’을 꼽는다. 그 이유가 바로 ‘별빛이 바람에 스치우는’ 현상 때문이다. 별빛이 바람에 스치면, 즉 별빛이 반짝이면 문학적이고 낭만적인 밤은 되겠지만 과학적인 밤은 못 된다. 여기에 바로 천문학자들이 산꼭대기로 올라간 비밀과 건축물로서 천문대의 기능적인 특징이 숨겨져 있다.

천체로부터 오는 빛은 지구 대기에 흡수되고 산란되어 약해진다. 그런데 한편으로 지구 대기는 별빛의 경로를 흐뜨려 별의 상을 흐릿하게 보이게도 한다. 별빛이 또렷한 정도를 시상(seeing)이라고 하는데, 시상이 좋으면 별이 또렷하게 보이고 나쁘면 별이 흐릿하게 보이



연세대학교에서 천문학으로 이학박사 학위를 취득하고 1988년부터 정부출연연구소인 한국천문연구원의 연구원으로 근무하고 있다. 전공은 외부온하 중 왜소은하이며,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호주와 미국 등 세계 각국의 여러 천문대에서 천체관측연구를 수행하였다. 2001년부터 3년간 호주국립대 연구원으로 근무하였고, 현재는 6년째 소백산천문대 대장으로 일하고 있다.



소백산천문대 전경

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러한 대기효과인 시상은 천체 관측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망원경의 기능은 크게 두 가지인데, 하나는 대상을 자세히 보는 기능인 분해능이고, 다른 하나는 어두운 것을 밝게 보는 기능인 집광력이다. 그런데 망원경 분해능의 기술적 한계보다 지구 대기의 시상이 훨씬 커서 지상의 망원경으로 천체를 관측하면 시상보다 더 자세하게 볼 수 없게 된다. 시상이 좋아지면 더 자세하게 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더 어두운 별을 관측할 수 있다. 따라서 가능하면 시상이 작은 곳에 천문대를 설치하는 것이 유리하다. 천문학자들이 천체 관측에서 기술적으로 추구하는 것은 '얼마나 어두운 천체를 얼마나 자세히 분해해서 얼마나 정확히 볼 수 있는가'이기 때문에 천문대의 건축대지와 건물, 망원경실의 설계, 그리고 망원경의 구조까지 기능적으로 시상을 얼마나 작게 만드느냐에 달려 있다. 그래서 시상이 작고, 맑은 날이 많고, 도시 불빛의 광해로부터 안전한 높은 산을 천문대 후보지로 선택하게 된 것이다.

천문대는 피할 수 없는 대기나 기상조건을 제외하고 보다 나은 시상을 유지하기 위한 구조를 갖추고 있다. 전통적인 천문대는 주 건물인 망원경실에 돔(dome)이라 부르는 반구형의 둥근 지붕이 얹혀 있고, 돔에는 슬릿이라는 문이 회전하도록 설계되어 있다. 망원경은 진동이 직접 전달되지 않도록 건물과 완전하게 분리하고 아랫부분을 지하 암반의 독립적으로 고정된 굵은 시멘트 피어(pier)위에 고정시킨다. 피어와 건물바닥 사이에 방진재를 넣어 건물의 진동이 망원경에 직접 전달되지 않도록 설계되어 있다.

시상은 기상의 한 요소이기도 하지만 망원경실이나 건물의 구조, 망원경 자체의 구조에 의해서 악화되기도 한다. 세계에서 가장 좋은 사이트의 평균적인 대기 시상은 0.7각초 정도이며, 대부분의 천문대가 1~2각초 수준이고, 지상은 3초 이상이다. (1각초는 10km 떨어진 곳의 500원짜리 동전을 구별할 수 있을 정도의 각도다.) 망원경실 구조에 따라 내부 대류에 의해 시상은 0.2~0.3각초 악화되며, 실외 온도와 망원경 반사경의 온도 차이에 따라 역시 0.2~0.3초 정도 악

화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거주공간이 망원경실에 붙어 있는 경우에는 온도 차에 의해 상을 더욱 악화시킨다. 그래서 현대에 지어진 천문대 건물은 사람들의 일상적인 활동공간과 망원경실을 분리하고 있다.

돔 안의 시상 악화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망원경실 전체를 비열이 낮은 철골구조로 만들기도 하고, 돔을 사각형으로 만들기도 하며, 돔에 공기가 통할 수 있도록 창문을 설치하기도 한다. 또한 예전에는 긴 튜브에 미러나 렌즈 등 광학계를 설치했는데 요즈음은 튜브 대신 트러스구조를 채택한다. 온도가 높아지는 낮 동안 반사경이 데워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반사경을 냉각시켜 밤에 관측하는 동안 실온과의 차이를 최소로 유지시키고 있다.

망원경실 분리, 돔의 개선, 반사경 냉각과 같은 노력으로 최대 0.3~0.5각초 정도의 시상 악화를 방지할 수 있게 됐다. 이렇게 천문학자들은 천문대의 입지와 구조, 망원경의 구조를 적합하게 설계하고 바뀌어 왔다. 최근에는 지구 대기의 요동을 실시간으로 측정하여 그 효과를 감쇄시킴으로써 대기의 효과를 최소화하는 적응광학(adaptive optics) 기술이 개발되어 시상이 30~60% 이상 향상되는 효과를 보고 있다.

천문학자들은 '과학은 최고를 지향한다'는 말을 자주한다. 관측조건이 1%라도 좋아진다고 하면 투자하는 것이 천문학자들이다. 그 1% 때문에 우주를 이해하는 것이 100%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경제관념이 없어 보이는 표현이지만 천문학자들의 노력을 가장 잘 표현하는 말일 것이다.

천문대라는 건물은 단순히 망원경을 설치하고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일종의 커다란 실험장치처럼 지난 수백 년 동안 자연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도록 구조적으로 보완하고 개선하려는 천문학자들의 노력이 결집된 공간이다. 이렇게 특별하게 고안된 건물이 만들어준 공간 속에 천문학자는 망원경이라는 기계와 함께 인간이 우주를 이해하기 위한 하나의 전초병으로 오늘도 밤을 새우고 있다. 📖

글. 송준환 Song, Jun-hwan

· 동경대학 특임연구원

범용 가능한 주거단지 재생모델의 개발 : 하나바타(花畑)단지 27호 주동 리노베이션 프로젝트

Development as a Model of Housing Complex Regeneration : HANABATA HOUSING NO.27 RENOVATION PROJECT

일본은 1960년대부터 대규모 주거단지개발을 통한 주택공급이 이루어졌고, 1968년에 이미 주택보급률 100%를 돌파하여, 현재는 주택의 양보다는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주택정책으로 전환되고 있다. 독립행정법인 도시재생기구(이하, UR)의 전신인 일본주택공단(1955~1981)에 의해 건설되어 전국적으로 보유·관리하고 있는 임대주택은 일본 전국적으로 2013년 3월 시점에서 1,732단지(750,897호)로 매우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¹⁾.

약30~40년이 지난 방대한 양의 기존 스톡을 어떻게 이용 및 활용할 것인가가 UR에 있어서는 향후 큰 과제로 남겨져 있다. 그런 측면에서 「하나바타(花畑)단지 재생프로젝트」는 단지재생의 방향성을 제시하는 첫 시도라는 측면에서 그 의미를 지니고 있다.

하나바타 주거단지는 도쿄도(東京都) 아다치구(足立区)에 위치하고 있고, 규모 약 22ha에 2,725호의 주동이 세워져 있는 도쿄 내 최대 규모의 단지다. 1964년부터 UR에 의해 관리가 시작되어 왔으나, 최근 단지가 노후함에 따라 UR의 「단지재생사업」이 실시되어, 2010년 2월에 하나바타단지 마치즈쿠리 협의회의 발족과 함께 단지 내 광장과 녹지 가로의 정비, 집회소의 재건축 등 단지재생을 위한 다양한 활동이 전개되고 있다.

그 중에도 상징성을 지니는 「단지 내 27호 주동 리노베이션 프로젝트」²⁾는 UR 동일본임대주택본부 주최 하에 2011년 실시된 「단지재생 디자인 설계경기」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한 후지타 유스케(藤田雄介)/Camp Design inc.)의 디자인 감수로 이루어진 프로젝트이다. 실제로

는 5층 건물 1동의 리모델링사업이나, 하나의 주동을 위한 특수해가 아닌 전국적으로 분포하고 있는 단지에의 범용 가능성을 고려한 새로운 디자인 수법의 제안이었다고 할 수 있다. 구체적인 디자인 수법을 살펴보면 크게 다음의 2가지를 들 수 있다.



<그림1> 27호 주동외관(좌)와 룸테라스(우)(제공 : kentahasegawa)

■ ‘목재창틀’을 통한 기억의 재생

<그림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입면에 있어서 가장 큰 변화는 기존의 알루미늄창틀을 목재창틀로 변경하였다는 점이다. 1960년대 지어질 당시의 하나바타단지의 창틀은 모두 목재였다고 하는데, 이를 원래대로

1) 独立行政法人都市再生機構, UR賃貸住宅の現状と今後の方向性について (워크숍자료, <http://www.kantei.go.jp/jp/singi/gskaigi/kaikaku/wg4/dai2/siryou6.pdf>), 2013

2) 소재지: 도쿄도(東京都) 아다치구(足立区) / 건축면적: 170.66㎡, 연면적: 669.92㎡, 층수: 지상5층, 호수: 10호(주호면적: 39.07~40.95㎡) / 기존준공: 1966년4월(EV.동증축: 2011년5월) / 설계기간: 2012년5월~2013년6월, 시공기간: 2013년7월~2014년2월 / 설계: 도시재생기구 동일본임대주택본부 / 디자인 감수: 후지타 유스케(藤田雄介)/Camp Design inc. (<http://www.camp-archi.com>) / 실시설계: 山設計工房, 시공: 江州建設

3) 목재창틀은 니이가타현(新潟県)카모시(加茂市) 지역의 창호점이 모여서 개발한 것이다.(출처: 日本 新建築 2014년 8月号 p.88, 인용).

되돌림으로써 옛 단지의 풍경을 재생함과 동시에 공업적인 이미지의 농회색 창에서 따뜻한 느낌의 나무로 변화시켜 인간친화적인 단지로 되돌리고자 하는 건축사의 의도가 내재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설치된 목재창틀은 복고적 풍경을 느끼게 하면서도 본래의 단열성 외에 내풍압·내수성·고단열성을 겸비한 고성능의 제품이며, 공예적인 분위기가 지 연출한다³⁾. 외부의 창틀뿐만 아니라 내부 또한 목재틀의 미닫이문을 사용하여 내외부가 목재로 연속성을 지니게 함으로써 자연스럽게 외부의 풍경을 내부로 끌어들이 수 있도록 계획하였다<그림2>. 향후 비용과 유지·관리 측면의 과제는 남겨져 있지만, 이렇듯 목재창틀을 단지재생에 이용하는 것은 지나친 변화가 아닌 작은 부분의 변화를 통해 반세기 동안의 단지의 기억과 자연친화적인 풍경을 재생해 내고 있다는 측면에서 그 가치가 높다고 판단된다.



<그림2> 룸테라스와 연계된 내부공간(제공 : kentahasegawa)

■ ‘룸테라스’의 설치 : 반외부공간의 실현을 통한 내·외부공간의 일체화

상기와 같이 알루미늄창틀을 목재창틀로 바꾼 것이 본 프로젝트의 큰 특징인데, 이에 더해 또 하나의 특징은 기존의 3K 중 방 하나는 창틀을 철거한 그대로 계획하여 ‘반외부공간=룸테라스’를 창출한 것이다. 창과 창틀은 철거하지만 창 상하에 있던 벽은 그대로 남겨두었는데, 전면 오픈되어 있는 공간보다는 안정감을 주며 외부이면서도 내부와 같은 불가사의한 느낌을 만들어내고 있다(그림2). 이 공간은 화단으로 녹화를 할 수도 있고, 테이블이나 벤치를 두어 휴게공간으로 계획하는

등, 거주자의 취향에 따라 다양한 연출이 가능하다. 룸테라스로 인해 전체 내부면적은 줄어들지만, 내부의 목재 미닫이문 개폐 여부에 따라 다양한 공간활용이 가능하고 개방감과 확장감을 느낄 수 있다. 특히, 주변 환경에 대응하여 각 주호별로 다른 위치에 룸테라스를 배치함으로써 건물입면의 다양성 또한 확보하고 있다.



<그림3> 주동의 평면도와 입면도(자료 : 藤田雄介 | Camp Design inc.)

일본에서는 신성장전략으로 기존 스톡의 리폼에 의한 품질성능 향상, 노후화 맨션의 재생 등 새로운 시장을 정비하기 위한 정책을 2010년부터 정부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하나바타 단지의 재생 사례와 같은 새로운 디자인 수법 그리고 그 가능성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이는 향후 논의가 요구되는 우리나라의 재건축 또는 리모델링 계획에 있어서도 참고할 만한 선례가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

<참고문헌>

1. 日本 新建築 2014年 8月号 pp.84-91, 2014
2. 団地R不動産HP,
1): http://www.realdanchiestate.jp/?page_id=2176
2): http://www.realdanchiestate.jp/?page_id=2025, 2014
3. 도시재생기구UR HP,
<http://www.ur-net.go.jp/hanahata/doc27debut0.html>, 2014
4. 사진 및 도면자료제공,
KENTA HASEGAWA/© kentahasegawa(<http://o-f-p.jp/>), 2014
YUSUKE FUJITA/Camp Design inc. (<http://www.camp-archi.com/>), 2014

글. 김성환 Kim, Sung-hwan

Stefan Schmitz bda Architekten und Stadtplaner

보이지 않는 손 ; 건축과 문화 콘텐츠의 협업 가능성에 대하여

Invisible hand; about possibility on the collaboration of architecture and cultural contents

문화가 한 도시에 가져다주는 효과는 가히 그 상상 이상이다. 도시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정체성을 부여하고 그들에게 생각할 힘을 가지게 해주며, 다른 사람과 소통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준다. 이러한 생명력은 또 다른 '보이지 않는 손'이라 정의할 수 있을 정도로 다양한 도시관련 정책들 중 문화와 관련된 부분과 연결되어 많은 건축사들이 관심을 갖고 있다. 건축사들은 스스로 이 부분에 어떻게 기여를 할 수 있는지를 탐구하고 있으며, 실제로 다양한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독일 뮌헨(Munich)에서 북동쪽으로 2시간 정도 떨어진 거리에 블라이바흐(Blaibach)라는 작은 시골마을이 있다. 이곳은 지난 10년 동안 전체 인구의 4.5%가 감소하였는데, 노후화와 함께 마을 중심지역이 심각한 침체기를 맞게 되었다. 이 침체기를 극복하고자 정책 당국은 기존 시가지 구역에 역사지구를 조성하고 과거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담아내고자 '장소성 유지'를 기본 목적으로 하였다. 이 목적을 토대로 새로운 프로그램을 제시, 마을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그 장소 이용의 필요성을 끌어내고자 함이 프로젝트의 지향점이었다. 1999년부터 2004년까지 진행된 '지역중심 블라이바흐(Ortsmitte Blaibach)'라는 프로젝트를 기반으로 거주민들에게 새로운 활력을 줄 수 있는 프로그램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당국정책과 비교작업을 시작하였다. 2009년 '도시 서쪽 개조사업(Stadtumbau West)'이라는 정책을 받아들여, 2010년 지역을 방문하는 여행자들을 위한 마을 프로그램을 개선하였다.

당시 프로젝트 담당이었던 건축사 피터 하이멜(Peter Haimel)은 시작부터 동참할 수 있는 사람들을 끌어 모으기 위해 노력했다. 뮌헨에서 활동 중이었던 피터 하이멜은 이 지역 출신이고, 독일 및 이탈리아 밀라노에서 활동하고 있는 지역 출신의 유명 성악가 토마스 바우어(Thomas Bauer)를 이 프로그램의 중심에 세웠다. 그는

이미 블라이바흐를 기반으로 하여 작품활동 및 공연활동을 진행하겠다는 결심이 끝난 상태였다. 하지만 정책당국은 우선 마을 주민들의 반발에 대해 설득하여야 했다. 한 회사의 재정적인 지지를 받는 음악가가 마을 전체에 미치는 영향력이란 주민 스스로 가늠할 수가 없었기 때문이다. 이 말인 즉, 마을 전체의 미래를 한 음악가의 성공 여부에 따라 좌지우지 할 수 없다는 현실적인 고민이었다.

주민들의 반대를 이해하고 그들의 상황을 이해할 수 있는 보이지 않는 콘텐츠를 찾아내기 위하여 피터 하이멜은 공간을 먼저 탐구하기 시작한다. 마을을 위한 음악당을 기획하고, 우선 이 음악당이 들어서는 대지 뒤에 비어있는 한 집을 찾아낸다. 이 집을 마을 주민들의 교육 및 전시공간으로 전환하였는데 이 공간에서 진행되는 프로그램은 훗날 음악당에서 열리는 다양한 공연들과 밀접한 연결고리를 가지고 있으며, 이는 지역을 대표하는 하나의 큰 콘텐츠로 만들어 내고자 함이었다.

그의 이런 생각은 멀리 뮌헨에서부터 가까운 레겐스부르크(Regensburg)라는 도시까지 지역경제를 지탱하고 있는 다양한 기업들의 재정적인 지원 약속을 직접 받아낸다. 최근 3년간 건축사가 밑그림을 그려내고 건물을 완성시키기까지, 20톤에 가까운 콘크리트와 지역출신의 미술가가 직접 채굴해낸 45,000여개의 돌, 소리를 만들어 내기 위한 3,000여개의 방음장치 등이 어우러져 200여개의 좌석이 들어선 음악당이 완성이 되었다.

2014년 9월, 이 음악당의 시작을 알리는 작곡가 프란츠 요제프 하이트(Franz Joseph Haydn)의 천지창조가 초연되었다. 이 전체 콘텐츠를 만들어내기까지 성악가 토마스 바우어, 피아니스트이자 문화재단 이사 우타 히엘셔(Uta Hielscher), 그리고 건축사 피터 하이멜의 기본적인 생각은 "누군가 자신의 인생에서 행운을 맞이했다면, 그 행운을 사회에 돌려줄 수 있는 것도 그들의 몫"이었다고 한다.



블라이바흐 콘서트하우스

그들이 가지고 있던 행운, 사회에 공헌하기 위해 스스로 노력하는 모습은 비단 이 지역사회에 한정되어 있는 것이 아닌,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도 충분히 생각해야 할 문제라고 본다. 물질이 최우선되는 사회 속에서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모두 자신의 집을 짊어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이런 프로젝트를 진행시키기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었을 것이다. 실제로 이런 일이 진행되어 가는 과정에서 가장 큰 고민은, 하나의 콘텐츠를 포함하고 있는 프로젝트가 일반인들에게 얼마나 효과적으로 전달될 수 있느냐 하는 것이다.

이러한 궁금증을 풀기 위해 실제로 이 분야에 종사하는 사람들 - 현재 오스트리아 비엔나에서 공연기획을 하고 있는 주현우 대표, 유럽에서 활동 중인 피아니스트 박희정과 함께 프로젝트 'Ortsmitte Blaibach'를 기반으로 이야기를 나누어보았다.

*

주현우 대표는 현재 비엔나를 기점으로 유럽시장에서 다양한 공연문화를 기획하고 있는데, 혼한 형태의 작업이 아닌 것 같다. 정확히 어떤 작업을 진행 중 인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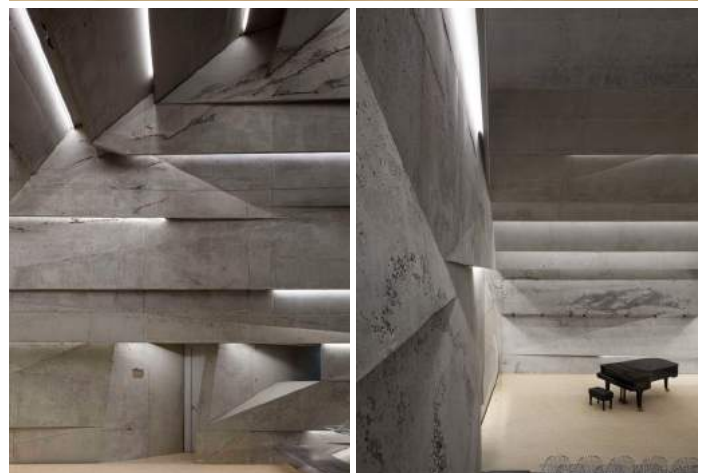
주현우 : 작곡을 전공하고 약 10년간 한국과 미국, 유럽에서 클래식 연주 기획의 현장을 발판으로 클래식 음악에 종사하는 예술인들이 실질적으로 부딪히는 어려움을 경험하였다. 그동안 쌓아온 경험을 바탕으로 공연 네트워크에 시대에 맞는 마케팅과 기획력을 더하여 새로운 문화 콘텐츠를 개발하고 아시아 예술인들이 클래식 음악의 본 고장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커리어 컨설팅을 하고 있다.

박희정 피아니스트는 유럽에서 활동하는 매 순간 다양한 일들이 있었을 것 같다. 올 한해 가장 큰 수확이 있다면 어떤 것인가?

박희정 : 개인적으로 주어진 하나하나의 무대에 최선을 다해 서고 있다. 다만 연주회를 거듭할수록 여태까지 작업해왔던 내 방식에 대한 평가와 더불어 앞으로 어떤 점을 개선해 나아가야 하는지에 대해 항상 스스로 질문하고 있다. 이 질문들 속에서 계속되는 시도들이 계속 무대 위에 서게 하는 원동력인 것 같다. 특히 얼마 전 친한 친구들끼리 모여 나누었던 '음악의 시각화'에 대한 생각을, 지난 11월 독일의 한 작은 교회에서 김홍민 첼리스트와 함께 시도했었는데, 많은 오류에도 불구하고 작업하는 과정이 참으로 만족스러웠고 관객들의 뜨거운 반응을 보고 가능성을 볼 수 있어서 참 뿌듯했다. 연주 자체나 관객들의 큰 호응 때문이 아닌 새로운 가능성을 시도할 수 있다는 용기를 얻었다.

공연시장이 가지는 특성상 현재 기형적인 구조가 지속되고 있다고 강조하였는데, 이는 어떤 뜻인가?

주현우 : 현재 한국에서 지적되고 있는 클래식음악 공연계의 문제점을 요약하자면, 청중에게 음악을 들려주려는 순수한 연주기획의 목적은 퇴색되어가고 실적을 위한 자기 과시용 연주회와 그 대행업체만이 남고 있다. 기획사는 수익만을 좇아 관객 동원에 유리한 연주만 주최하여 공연의 다양성이 상실됨으로써 관객에게 외면 받는 악순환이 계



블라이바흐 콘서트하우스 내부

속 되고 있다. 게다가 수요일에 비해 해마다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는 연주자들이 관객을 채우지 못해 스스로 티켓을 사서 자리를 채우는 이른바 ‘초대권 문화’가 성행하고 있는데, 이 맹점을 이용하여 이익을 내는 업체가 많은 것이 현실이다. 유럽의 상황은 아직 이보다는 나으나 점차 젊은 세대들에게 외면을 받고 있기 때문에 장기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개인의 욕심을 위해 공연기획의 구조를 바꾸는 상황이 많다는 것은 연주자의 입장에서 굉장히 아쉬운 일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가?

박희정 : 공연기획의 목적은 어떠한 형태의 콘텐츠를 만들어 특정 메시지를 대중에게 효과적으로 충분히 전달하는 것이다. 이때 연주자들은 공연기획에 가장 밀거름이자 기초가 되어야 하는데, 그렇다면 연주자들도 연주를 할 수 있는 실력을 기본으로 자신의 분야 외적인 다양한 경험과 인문학적인 지식을 습득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하지만 기성세대가 만들어 놓은 단편적인 경쟁 위주의 구조 속에서 우리 세대들은 자신들의 정체성을 스스로 찾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실제로 초등학교 시절부터 대학교 입학까지 비교와 경쟁으로 점철된 주입식 입시교육에 익숙해져 그 이후에도 비슷한 삶을 살아가는 연주자들이 많은 것이 현실이다. 무대 자체에는 관심이 없고 그저 프로필 위주의 연주자 키워내기 풍토가 짙어, 연주자들 사이에서 입시와 다를 바 없는 경쟁의식을 부추기고, 그러한 심리를 이용해 공연기획사들이 수익을 내고 있는다고 생각한다. 기성세대들이 미래를 보지 못하고 인재양성보다는 단순히 금전적인 욕심으로 젊은 예술가를 이용하는 상황은 비단 클래식 음악계뿐 만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다. 굉장히 안타까운 현실이다.

공연기획이나 앞서 실례로 살펴보았던 프로젝트와 같이 특이 상황이 제공되거나, 재정적인 지원이 되지 않는 상황에서 순수하게 진행되기란 상당히 어렵다고 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분 모두 꾸준히 새로운 시도를 하고 있는데, 그 원동력은 무엇인가?

주현우 : 이미 지금 진행되고 있는 공연기획의 형태는 과거 200년 전부터 내려오는 방식과 거의 동일하다. 다만 달라진 부분이 있다면, 관객들이다. 과거 귀족 위주의 특정한 다수를 위한 공연이 200년 전 공연이었다면, 지금 모두를 위한 공연이 진행될 수 있다고 본다. 이런 의미에서 볼 때, 문화 정책, 예술인 그리고 건축사들도 이런 부분에서 충분히 협업을 할 수 있고, 또한 새로운 형태의 공연을 만들어 낼 수 있다고 확신한다. 과거 음악 위주의 공연이 청각을 자극하였고, 미술 위

주의 공연이 시각을 자극하였다면, 이 둘을 담아낼 수 있는 공감각적인 공연 기획이 충분히 가능한 상황이다. 건축 또한 그 경계가 다른 예술들과 어우러지면서 다양한 형태의 결과물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는 충분히 새로운 콘텐츠를 만들어 내는 데 있어 앞서 보았던 프로젝트와 같이 콘텐츠 개발을 위한 협업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다.

박희정 : 예술가에게 생계나 공연 수익과 같은 테마는 예술작업 자체를 방해하고 그 방향마저 바꿀 수 있지만 또한 작품활동과 삶의 영위를 위해 꼭 필요한 양날의 칼과도 같다. 한편 현재 우리는 분야를 막론하고 개인의 재능이나 직업의 전문성, 소명의식보다는 자기광고와 물질적 성공이 목적으로서 당연시되는 사회에 살고 있다. 이 시점에서 음악가들이 지금까지 당연시 되어 왔던 경쟁구도에서 벗어나 새로운 메시지를 관객에게 던지지 않는 이상 우리는 예술의 가치와 예술가로서의 목소리를 천천히 잃어 갈 것이다.

예술의 경계가 경쟁만을 뒤흔드는 현대사회에 부합하는 것으로 허물어진다 보면, 오늘날 우리에게서 침과 위로, 감동을 줄 수 있는 그 어떤 분야도 남아있지 않게 된다. 자연을 닮은 사람은 자연답게 살아야 행복한 것처럼 예술인이 그리 남을 수 있도록 우리가 더 좋은 내용으로 무대를 만들어내 사람들의 동의를 이끌어내고 목소리를 키우고, 나아가 재정적인 지원까지 이끌어내려 수 있는 아름다운 영향력을 주고 싶다. 그러기 위해서는 현대사회에 걸맞은 새로운 무대, 여러 장르와 소통하는 무대를 시도하여 관객과의 거리를 좁히고 음악 자체의 순수함을 잃지 않는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지치고 상처받는 사람들에게 위로와 힘을 주고 싶다.



블라이바흐 콘서트하우스에서 진행된 연주회 풍경

콘텐츠 개발이라고 하면 정확한 프로그램이 정의되어야 할 것 같은데, 이것은 하루아침에 이루어 질 수 있다고 보지 않는다. 이에 대한 의견은 어떠한가?

박희정 : 음악이라는 하나의 콘텐츠 안에 사실은 작곡가 개인의 인생

과 역사적 배경, 산업과 경제, 동시대 문학과 미술사조 언어 등 여러 이야기가 포함되어 있다. 예를 들면, 내가 좋아하는 고흐(Vincent van Gogh)의 정열적인 붓 터치와 베토벤(Ludwig van Beethoven)음악의 극적 전개는 서로 상당히 닮아있음을 알 수 있다. 두 작가의 삶은 '실패'와 '불가능'이라는 동의어를 가진다. 이 단어들은 우리 인생에서도 쉽게 만날 수 있는 것들인데, 그렇다면 우리와 그들의 닮은 점은 무엇인가 생각해 볼 수 있다. 17세기의 바흐(Johann Sebastian Bach)와 20세기를 살았던 가우디(Antoni Gaudí)의 작품은 상당히 수학적이지만 동시에 예술적이며 종교적이다. 서로 어울리지 않을 것 같은 세 개의 이미지가 사실은 작품 안에서 서로의 조화를 필요로 한다는 것이다. 이 사실은 다양성을 쉽사리 인정하지 못하는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줄 수 있는가?

이와 같이 많은 작품을 분석하고 조합하여, 장르와 시대를 뛰어넘는 새로운 테마로 오늘날의 관객과 소통을 시도하고 좋은 영향력을 주는 것이 바로 콘텐츠 개발의 시작점 아닐까 싶다. 지금도 우리에게 크고 강렬하며 새롭고 자극적인 영향력을 줄 수 있는 콘텐츠는 많이 있다. 그 중 우리 영혼에 건강하고 선한 것이 얼마나 있는가? 예술가로서 우리는 문화라는 옷을 입은 거대한 자본주의의 어두운 의식과 싸워야 한다. 모든 자본주의 논리가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예술이라는 영역이 순수하게 남아있을 때 그 본분을 다할 수 있고, 시장경제 논리와 끝없는 균형 싸움을 통해 우리의 삶의 질을 보다 높이고 후대에 물려줄 소중한 유산을 남기게 되지 않을까?

주현우 : 18~20세기의 음악으로 어떻게 21세기 청중의 흥미를 끌 것 인지는 공연기획자들의 숙제다. 그 가능성이 무한하기 때문에 정확한 프로그램은 정의되기 쉽지 않다. 하지만, 기존의 음악을 반복된 형태의 프로그램으로 진행되는 연주회 형태에서 벗어나 다양한 분야와의 결합을 시도해보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예술인들은 단순한 기술과 반복된 훈련으로 만들어지는 기술자가 아니라 자기만의 이야기를 가질 수 있는, '스토리텔링'이 가능한 인재가 되어야 한다. 이는 공연기획자를 하는 입장에서 우리가 가질 콘텐츠의 가장 기본적인 핵심이 되어야 하는 부분이다.

2015년의 개인적인 소망은 무엇인가?

주현우 : 올해는 개인적으로 클래식 본 고장인 유럽에서 여러 가능성을 시도해 보았던 도전적인 한해였다. 내년에는 국제음악페스티벌과 여러 오케스트라와의 협력으로 많은 프로젝트가 예정되어 있는데, 결실을 잘 맺어 현재 종사하고 있는 분야에서 다양한 가능성을 더 열어갈 수 있는 기획자가 되기를 끊임없이 희망한다. 이런 기획자가 되기

위해, 다양한 분야에 종사하는 사람들과의 소통도 중요한 부분이다.

박희정 : 주위의 동료와 소통하고 나아가 주위 사람들에게 감동을 줄 수 있는, 무언가 다른 연주자가 되고 싶다. 우선 내가 살고 있는 동네에서 '동네 음악인'으로 그 처음을 시작하고 싶다. 이미 모두가 알고 있는 곡을 연주하는데 굳이 인터넷이나 음반이 아닌 연주회장애 와서 들어야 하는 이유가 '나'라는 사람 자체에서 얻을 수 있는 색다른 에너지이기를 바란다.

건축도 그런 작품이 많아지길 기대해본다. 집값을 올려주는 유명한 외국 건축사의 부촌 빌라와 건물이 아닌, 한국의 자연과 역사, 우리의 의식주를 이해하는 건축물들이 많아지기를, 후대에 한 도시를 먹여 살리고도 남음이 있는, 그리고 시간예술을 하는 우리 내 연주자들이 만들 수 없는 공간을 연출해주는 훌륭한 건축사들과 다양한 장르의 예술가들이 활동해주기를 바란다. ㉮



김성환

2008년 중앙대학교 건축학과를 졸업한 후, 2013년 독일 슈투트가르트 국립대학에서 건축 및 도시 설계학부 석사과정을 마쳤다. 현재는 독일 Stefan Schmitz bda Architekten und Stadtplaner에서 근무하고 있다.



주현우

아트바움 대표로, 지난 10년간 세계 각지에서 공연 기획을 통해 여러 예술인들을 뒷받침하는 다양한 경험을 한 뒤, 현재 오스트리아 비엔나를 기반으로 다양한 예술인들의 힘이 되어주고 있다.



박희정

독일 슈투트가르트 국립 음악대학에서 최고 학위 과정 졸업 후, 현재 유럽무대에서 폭 넓게 활동하고 있다. 항상 예술인으로서 대중에게 어떻게 다가갈 수 있는지 스스로 질문하며 연주 활동에 집중하고 있다.

Korean Architecture 100-year-plan forum ; The reality of architecture in Korea and the diagnosis on its future

‘한국 건축 百年大計 토론회’

- 대한민국의 건축현실과 건축사의 미래진단



개최일자 : 2014년 12월 9일(화)

개최장소 : 건축사회관 대강당

주최/주관 : 대한건축사협회 / 대한건축사협회 정책위원회

진행 : 권연하 | 대한건축사협회 정책위원회 위원장

대한건축사협회는 2015년 협회 창립 50주년을 맞이하여 지난 반세기동안 우리 건축계의 발자취를 되짚어 봄으로써 대한민국 건축문화 창달에 기여해온 건축사의 업적과 전문가로서의 역할, 건축계의 현실 등을 진단하고, 향후 50년을 대비하는 건축사의 생존 전략과 건축분야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방향을 제시하고자 ‘한국 건축 百年大計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에 본지는 토론회 내용을 요약해서 게재한다.

구 분	발표자 / 좌장 / 토론자
기조발표	이인제 새누리당 최고위원
주제발표 I	이상헌 건국대학교 건축전문대학원 교수
주제발표 II	손희준 청주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지방재정부담심의위원회 위원
합동토론	<좌 장> 박경립 국가건축정책위원회 위원 강원대학교 건축학부 건축학과 교수 <토론자> 윤혁경 대한건축사협회 이사 제해성 건축도시공간연구소 소장 구영민 한국건축설계교수회 회장 강부성 한국건축정책학회 부회장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건축학부 교수 전영철 열린모임 건축사사무소 대표 김현진 에스피엘케이 건축사사무소 대표 2014 신진건축사대상 대상 수상자 최지희 건설경제 건축전문기자

기조발표

이인제 새누리당 최고위원 “통일은 경제다”



우리가 역사에 남는 큰 건축물을 보더라도 누가 돈을 내서 이 건물을 지었느냐, 아니면 누가 시공을 했느냐고 묻는 사람은 없습니다. 설계자가 누구냐, 우리는 이것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건축을 하는 데 있어서 돈을 대는 건축주가 있고 시공을 하는 사람도 필요하지만 사실은 설계하시는 분들이 진정한 주역이고 주인공입니다.

다. 김영수 회장님 말씀으로는 지금 우리나라 건축문화에 있어 건축설계의 독자적인 영역이 큰 위협을 받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용기를 가지시길 바라며, 건축, 건설, 건축문명에서 주역이 여러분들이시니까 독자적인 영역을 계속 확보하고 개척해주시길 바랍니다.

지금 우리 경제가 매우 어렵습니다. 일부 재벌들은 수익을 내도 투자할 데가 없어서 찢절내고 있고, 서민들은 장사가 안 되어서 죽을 지경이라고 하고, 젊은이들은 취직할 데가 없어서 거리를 방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건설과 부동산은 서민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60~70%가 넘는데, 현재 건설과 부동산이 너무 부진해서 성장의 원천과 동력이 고갈되어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따라서 건축사분들도 매우 힘든 나날을 보내고 계시리라 생각됩니다. 서민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라도 주택, 부동산, 건설경기를 살려야 하는데, 지금 최경환 경제부총리를 중심으로 과감한 드라이브를 걸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택, 금융의 한계를 높이고 여러 가지 규제를 완화해서 부동산, 건축, 건설경기를 살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 아직은 바닥이 따뜻하게 돌아가고 있지 않습니다.

EU나 미국, 일본은 이자율이 거의 0%라 더 이상 낮출 수도 없어서 통화량을 인위적으로 공급하는 양적 완화를 하고 있습니다. 중앙은행이 신권을 발행하고 시중은행에서는 그것을 인수해서 통화량을 높여 돈의 가치를 인위적으로 다운시키는 것입니다. ‘돈을 가지고 있으면 오히려 손해다’라는 생각으로 실물자산에 투자하게 만들어 돈이 돌도록 하는 자극적인 정책입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자칫 잘못하다가는 부작용이 더 심하다고 해서 기준금리가 아직 2% 정도인데, 제 생각에는 기준금리를 충격적으로 더 확 떨어트려서 경기가 순환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원래 무식한 사람이 용감하다고, 건축에 문외한인 제가 밖에서 생각하는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현재 국내에서 건설 수요의 동력을 찾으려면 재건축, 재개발 수요를 키워드려야 되는데, 이게 여러 가지 규제 때문에 얹혀 있습니다. 재건축도 몇 년 이상 안 되면 절대 할 수 없게 되어 있고, 재개발도 용적률로 규제되어 있어서 경제성이 없으니까 수요가 현실화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런 재건축, 재개발의 규제를 완화해서 경제성을 확보함으로써 현실적인 수요가 되게 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예로부터 도시가 확대되면 원도심은 공동화되고 낙후하기 때문에 이러한 재생을 지원하는 법체계는 되어 있는데, 도시 전체를 재생하는 분야까지는 아직 되어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앞으로 정책분야에서 재개발, 재건축을 활성화하는 것뿐만 아니라 도시 전체를 재탄생시키는 정책을 하게 되면 비판만 할 건 아니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이런 생각으로 대한건축사협회도 노력을 하면 될 것입니다. 국회는 법을 만들어서 뒷받침하는 곳이니깐 같이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선진국의 건축문화 수준과 설계 수준이 많이 앞서지만 우리나라 건축사들의 역량으로 볼 때 이런 부분까지도 우리가 선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분명히 하나의 거대한 문화이기 때문에, 근본적인 건축문화에서도 여러분이 능히 불꽃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특히 요즘 건축은 단순히 편리하고 안전하고 경제적인 것을 뛰어넘어서, 이미 다양해져버린 국민들의 가치관과 세계관에 맞는 건축문화를 선도해야 합니다. 환경, 생태, 에너지, 정보통신, 문화예술 등의 분야 전문가들과 함께 융합해서 우리 건축설계문화의 질과 수준을 혁명적으로 발전시켜 주실 것이라 믿습니다. 여기에 정부에서 뒷받침을 한다면, K-pop이 전 세계를 뒤흔들어 놓았듯 우리 건축문화도 세계인들을 매료시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통일입니다. 국민들은 굉장히 멀리 있다고 생각하고 부담스럽다고 느끼는데, 사실 통일은 굉장히 가까이 와 있습니다. 언제 어떻게 터질지는 모르지만 통일의 문은 조만간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통일이 되면 북한은 우리 수준에서 보면 텅 비어있는 백지나 마찬가지라서 어마어마한 공공인프라부터 시작해 건설수요가 폭발하게 됩니다. 얼마 전 금융위원회에서 통일이 되면 북한지역에 공공인프라 건설재원이 500조원, 즉 5000억달러가 들어간다는 발표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국민세금으로 만들어지는 우리의 국가재정이 아니라 국내 금융권과 국제 금융권이 경제논리로 돈을 만들어서 투자하면 북한지역에 도로, 철도, 항만, 발전소, 비행장 등 공공인프라를 건설할 수 있다는 내용의 보고서입니다. 국민들은 가뜰이나 어려운데 통일이 되면 세금을

왕창 더 내야 되는 거 아닌지 걱정을 하는데, 그런 걱정 안 하도록 연구한 것 같습니다. 공공인프라가 구축되면 이에 따라 민간기업 투자가 봇물을 이루게 될 테고, 2500만명 정도 되는 북한주민들을 위한 주거도 건설을 해야 합니다.

제가 작년에 갔던 다보스포럼의 주제가 '세계경제의 복원력 있는 역동성'이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침체돼 있는 세계경제를 다시 일으켜 세울 역동성을 만들어낼 수 있느냐는 것이죠. 통일공간은 우선 우리 국민들과 대한민국에게 어마어마한 성장의 동력이자 원천이 됩니다. 압록강과 두만강은 경제에 있어서 크게 장벽이 되지 않습니다. 특히 이미 체결된 한·중 FTA는 점점 확대돼 나갈 것이고, 러시아도 지금 우리가 통일되기만을 고대하고 있습니다. 몽골도 마찬가지고, 2000만명이 살고 있는 극동시베리아는 어마어마한 땅과 자원, 특히 농업자원, 에너지자원은 무궁무진합니다. 근데 협력 파트너가 없잖아요. 역사적인 이유로 감정이 있어서 중국하고는 잘 안 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하고는 부담이 없죠. 그래서 통일이 되면 그쪽의 경제개발과 협력을 주도하게 되는 것은 우리가 됩니다. 중국의 동북3성, 몽골, 극동시베리아, 환동해경제권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통일이 되면 놀라운 축복이 우리에게 찾아오게 됩니다. 매일경제에서 하는 지식포럼에서 장대환 회장과 사르코지 전 프랑스 대통령이 개막 기념으로 대담을 하는데, 사르코지가 굉장히 솔직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많은 이야기 중에 몇 가지만 소개해 드리면 첫째, 지도자는 국민들에게 희망을 주는 것이 제일 주된 임무인데 자기들 같은 선진국들은 그런 게 막막해서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과거의 영광스러운 근대역사가 너무 거대해서, 지금은 세계 경제가 성장 원천이나 동력이 막혀서 다 죽을 지경인데, 어떻게 오늘보다 나은 내일이 있다고 말할 수 있느냐 그거예요. 그런 고충을 이야기하면서, 특히 아시아 신흥국가들은 자기들보다 낫지 않느냐, 그중에서도 한국은 통일이 되면 놀라운 성장이 이루어지고 동북아시아 통합을 이끌게 될 것이라고 아주 정확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 실업, 빈부격차, 노령화 등으로 국민들이 모두 다 힘든데, 그래도 우리에게는 통일이라는 큰 희망의 문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께서도 통일을 국정 전면에 내세우고 있습니다. 저 같은 사람이 볼 때도 통일은 그렇게 멀리 있지 않다고 생각되고, 많은 전문가들도 2020년 전후로 통일이 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요즘은 북한이 내일 무너져도 이상할 게 하나도 없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통일이 되면 정말 우리에게 위대한 미래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골드만삭스는 이미 통일을 기정사실화 하고, 2050년쯤 되면 한국 1인당 국민소득이 9만 달러 정도가 돼서 미국에 이어 세계에서 두 번째로 잘 사는 국민이 될 것이며, 통일한국의 경제력이 프랑스와 독일은 물론 일본을

추월하는 일도 가능하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건축사님들께서 요즘 매우 힘든 시기를 보내고 계시지만 오히려 이것이 도약의 자극제가 되어 생태, 환경, 에너지, 문화, 예술, 도시공간에서 공존하는 농업까지도 다 융합해서 인류사회를 선도하는 건축설계문화를 만들어주시고 통일에 대비해서 많은 준비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지나온 50년도 힘든 일이 있었지만 영광의 50년이었다면 앞으로는 더 위대한 도약의 50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주제발표1

이상헌 건국대학교 건축전문대학원 교수 “대한민국 건축사의 현실과 미래진단”



사실 저는 한국 건축계에 대해 평소 비판적인 글을 자주 쓰고 작년에는 이에 대해 책을 쓰기도 했는데, 그것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서게 된 것 같습니다. 오늘 드릴 말씀 중에서도 한국 건축계와 건축사에 대한 비판적인 내용이 있을 수도 있는데, 너무 노여워 마시길 바랍니다. 저는 건축을 매우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어렸을 때

부터 건축에 대한 꿈을 키워왔고, 한 번도 그 꿈이 변하지 않았습니 다. 그런데 너무 사랑하면 실망했을 때 일종의 분노가 더 커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애증의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작년에 냈던 책을 중심으로 간략하게 제 생각을 정리해봤습니다.

우리나라 건축은 지난 50년 동안 많은 발전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동안의 외형적인 발전에도 불구하고 현재 우리나라에서 건축사의 위상은 여전히 만족할 만하지 못한 위치에 있습니다. 영국의 유명한 건축사 노만 포스터는 왕실에서 수여하는 작위를 받아 'Sir Norman Foster'가 됐고, 핀란드 화폐에는 알바 알토(Alvar Aalto)의 얼굴이 박혀 있는 등 서양에서 건축사의 위상은 이렇게 높습니다. 전문가로서 사회적으로 존경도 받고. 그러나 우리나라에서의 건축사는 여전히 업자이고, 건축주에게 항상 '을' 취급을 받고, 늘 눈치 봐야 하고, 하청업체 취급을 받는다는 사실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하물며 현상설계에서 당선이 되고 나서도 공정을 거치다보면 이상하게 돼 버리고, 굉장히 차이가 나죠.

상징적으로, 결국 무산됐지만 단군 이래 최대 프로젝트라고 하던 용산개발 프로젝트에 대한민국 건축사가 한 명도 참여를 하지 못한 것은 다 알고 계실 것입니다. 우리나라에는 분명히 국내 건축사와 해외 건축사에 대한 이중 기준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프로

젝트를 줄 때 유명한 해외 건축사가 요구하는 용역비, 설계기간 등 모든 조건을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춰서 다 들어줍니다. 그러나 국내 건축사와 작업할 때는 완전 하청업체 취급하고 갑을관계가 분명해지죠. 왜 그럴까요. 도대체 우리의 건축 상황은 왜 그럴까, 그런 이유에 대한 근본적인 반성이 필요합니다.

원래 건축(Architecture)과 건축사(Architect)의 개념은 서양에서 발전된 개념입니다. 서양에서 집을 짓는 것에 대한 하나의 체계, 문화, 학문으로서 발전된 것입니다. 건축을 어떻게 정의하는 가도 쉬운 문제는 아니지만, 저는 아주 간단하고 명료하게 '건축은 문화적 의미를 갖는 건물, 구조물을 만드는 실무이자 이론적 체계를 갖는 학문'이라고 정의합니다. 굉장히 상투적인 것 같지만 매우 중요한 지점입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문화적 의미를 갖는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실무이자 학문'이라는 것입니다. 서양에서는 이러한 건축의 개념이 오래 전부터 발전해왔습니다. 하나의 독립된 체계적인 지식을 갖는 전문적인 실무이자 학문으로서 말입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가 '건축은 건물과(Building) 사람이 만날 때 발생한다'고 정의한 것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예를 들어, 동물이나 곤충들도 집을 짓지만 그것을 건축이라고 하지 않는 이유는 본능적으로 집을 지을 뿐 그 집과 동물 사이에 상징을 두지 않기 때문입니다. 문화적 의미를 구축하고 상징적인 의미를 부여해서 관계를 형성하는 것은 인간만이 할 수 있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문화입니다. 그래서 건축은 건물과 사람이 만날 때 발생한다는 것이 정확합니다. 건축은 하나의 문화적 의미를 갖는 상징 부여이며, 어떤 의도를 표현하는 인간이 지은 구축물이기 때문에, 그것은 신전과 같은 아주 기념비적인 모뉴먼트일 수도 있지만 반대로 아주 소박한 건물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스 철학자 디오게네스의 집은 깨진 항아리였는데, 이것은 그의 인생철학과 존재의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므로 충분히 건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건축이 문화적 의미를 갖고 상징을 표현하다고 해서 거대한 모뉴먼트, 기념비적 건축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아주 작고 보잘 것 없는 것이라도 철학적 의미, 문화적 의미, 의도가 부여된 것이라면 건축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작은 건축도 우습게보면 안 되는 것입니다.

서양에서는 오래 전부터 건축의 구축 규범에 대한 이론화, 전문화가 이루어졌습니다. 건축은 단순히 집짓는 장인의 기예가 아닌 프로페션으로서,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건축주와 장인 사이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 체계적인 지식을 갖춘 전문가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서양에서는 건축을 지식을 갖춘 학문이라 하여 'Art and Science'라고 하는데, 지금 말로 하면 학문이라는 뜻입니다. 또한 건축을 퍼블릭 서비스라고 했는데, 사실 건축이 개인적인 비즈니스가 된 지는 얼마 안 됩니다. 원래 건축은 국가적인 사업이

고 공공적인 사업이었기 때문에 19세기 자본주의가 발달하기 전까지 건축은 퍼블릭 서비스였습니다. 그래서 건축이 공적인 이익을 위한 자격증(License)을 가진 직업으로 자리 잡게 된 것입니다. 현재 대부분의 나라에서 '아키텍트'는 법적으로 자격을 갖춘 전문가, 전문직으로 인정 받고 있습니다. 이것은 공적 이익 때문입니다.

이러한 전통은 비트루비우스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원전 1세기 로마의 건축사이자 엔지니어였던 비트루비우스는 '건축10서'를 썼는데, 당시 황제였던 아우구스투스에게 헌정한 것입니다. 르네상스시대에는 건축이 인문적 학문을 바탕으로 한 전문 지식으로 자리 잡기 시작하면서 건축사가 장인과 학자 사이에서 역할을 하게 되었습니다. 중세 때는 조금 상황이 다르긴 하지만, 건축은 2000년에 걸쳐 체계적인 지식을 갖추고 이론화 과정을 통한 학문이자 전문직으로 발전해왔습니다.

서양에서는 19세기 후반부터 전문직 협회라는 것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영국의 RIBA는 건축사들이 1834년에 만든 전문직 협회로 지금까지 이어져 내려오고 있고, 미국의 AIA도 이런 과정을 거쳐 성장해온 것입니다. 반면에 우리나라에는 건축 관련 전문직 협회가 유사한 것이 많습니다. 대한건축사협회를 비롯해 한국건축가협회, 대한건축학회, 그리고 3단체가 만들어 UIA 승인을 받은 FIKA까지, 하지만 FIKA조차도 서양의 협회들과 상황이 굉장히 다릅니다. 이러한 상황이 결국 우리나라 건축의 정체성이 모호함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 가지 재미있는 상황은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RIBA와 AIA의 정체성을 공유하고 설립된 것은 대한건축학회예요. 대한건축학회의 창립결의문을 보면 'RIBA와 AIA를 지향한다'고 되어 있어요. 굉장히 이상하죠. 어쨌든 우리의 상황은 이렇습니다.

서양에서는 프로페션으로서의 건축, 건축주와 장인의 사이에서 전문적인 인문학적 지식을 갖추고 건축을 디자인하고 시공을 컨트롤하는 건축사로 성장해왔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체계적인 지식을 가진 학문, 디스플린으로 발전을 해왔습니다. 오래된 퍼블릭 서비스의 전통, 공공의 이익을 위한 공적인 자격증, 19세기 후반에 이런 것이 하나로 뭉쳐지면서 'Licensed Architect'라고 하는 건축사의 전문가적 위상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하지만 한국에는 서구적 개념의 건축, 건축사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전통건축도 굉장히 뛰어난 지혜와 체계들이 있었지만 이것이 하나의 독립된 학문적 결과, 체계적인 지식으로 정리된 실무와 학문의 영역으로서 건축이라고 하는 디스플린으로 형성되지 않았죠. 그렇기 때문에 프로페션으로서의 건축사들이 등장한 적은 없습니다. 따라서 그러한 틀은 순전히 서양에서 들어온 것인데, 일제강점기 때 파편화되고 불완전한 서구건축(건축사)의 개념과 제도가 도입되면서 이러한 문제가 아직까지 우리

건축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건축계에서 공공의 이익을 위한 규제와 자격은 대한건축사협회가 담당하고, 체계적 지식을 연구하고 학문을 발전시키는 것은 대한건축학회를 통해 이루어지며, 디자인을 위주로 하는 프로페션으로서의 건축사는 한국건축가협회에서 시작됐습니다. 이것도 정확하지는 않아서 이 모든 것들이 중간 어디쯤에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 단체들이 하나로 통합되지 못하고 파편화된 상태이자 불완전한 모습으로 존재하고 있는 것이 한국 건축의 현실입니다. 결국 진정한 의미에서 유일무이한 전문직 단체, 서양과 같은 단체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동안의 50년을 돌아보면 사실 건축보다는 건설 위주였습니다. 서양에서 발전된 건축의 개념에서 건설이라는 것은 건축의 수단입니다. 건축을 'design in build'라고 정의한다면 건설이나 시공이라고 하는 것은 디자인을 실현시키는 수단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거꾸로 됐죠. 건축이 건설의 수단으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에는 '건축문화'라는 말이 있어도 사실상 '건설문화'가 지배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모든 공공건축 프로젝트에서도 건설개념이 먼저 만들어져요. 그리고 건축은 건설의 공정을 쫓아가는 것입니다.

최근에 많은 제도들이 개선되고 있기는 합니다. 2010년에 건축기본법이 마련됐고, 전문적인 교육도 시작됐으며, 건축사등록원도 설립됐고,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도 제정됐습니다. 이런 것은 팔뚝할 만한 발전이고, 서양에서 갖춰진 제도들을 우리도 제법 쫓아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본적인 문제들은 산재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근본적인 반성이 필요합니다. 문제가 무엇인지 정확히 알아야 개선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피부로 부딪히는 문제들을 개선하기 위해서만 굉장히 많은 노력들을 합니다. 건축사를 왜 이렇게 대접 안 해줘, 설계비를 왜 이렇게 조금 줘, 등의 피상적이고 지엽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해도 결과적으로는 잘 되지 않는 이유는 기초가 잘못 놓여있기 때문입니다. 기초를 바꾸지 않고서는 거대한 잘못된 구조를 바꿀 수 없습니다. 그리고 설사 일부 구조적인 문제를 개선한다 할지라도 잘못된 기초 속에서는 개선된 부분마저도 다시 이상하게 변형됩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근본적인 부분에 대한 반성과 성찰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건축의 정체성이 아직 제대로 정립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알베르티의 정리에 따르면, 짓는 것은 자본의 손을 빌리면 되지, 건축사의 영역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건축사는 고도의 지식을 활용해서 디자인을 하고, 디자인이 실현되는 과정을 컨트롤하는 지식인, 즉 인문주의적 지식을 바탕으로 하는 스콜라입니다. UIA에서는 '건축은 경쟁력 있고, 창조적이며, 비평적 관점을 가진 전문가로서 디자이너, 빌더를 훈련하는 것'이라고 정의

하고 있습니다. 디자이너, 빌더란 분리돼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현대사회에서 전문화되면서 건축사들이 현장에서 직접 짓지 않을 뿐이지, 다른 사람의 손을 빌려서 짓는 것이죠. 따라서 이것은 건축의 한 과정입니다. 위키피디아에서는 '건축은 기능적, 기술적, 사회적, 미학적 고려를 모두 반영하는 형태의 공간과 장소의 분위기를 계획하고 디자인하고 건설하는 과정과 그 결과물 모두를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서양에서 말하는 건축(architecture)입니다. 그러나 우리 사회에서는 이러한 개념이 자리 잡고 있느냐는 것이죠.

집 짓는 일에 관여하는 지식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건축은 원래부터가 융합적인 학문이었습니다. 비트루비우스가 기원전 1세기에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건축교육에 있어서 '건축사는 수학에 능통해야 되고, 드로잉에 능통해야 하고, 역사도 알아야 하며, 철학도 알아야 되고, 음악과 친숙하고, 의학과 천문학도 알아야 하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UIA Recommendations에서는 '건축은 이성과 감정, 그리고 직관 사이의 긴장 속에서 창조된다. 건축교육은 빌딩의 아이디어를 개념화하고 조합하고 실행하는 능력을 드러나게 해야 한다. 건축은 인문학, 사회과학, 자연과학, 기술, 환경과학, 그리고 창조적 예술, 교양의 융합적 영역이다.'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건축입니다. 비트루비우스부터 지금까지.

'architecture practice'에 대하여 UIA는 '도시계획과 건물, 또는 건물군의 건설, 확장, 보존, 복원, 변경에 관한 전문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는데, 즉, 인테리어에서부터 도시계획까지 모두 포함하는 것이 건축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나라에는 디자인/빌드에 대한 융합적 학문이자 통합적 실무로서의 건축의 정체성이 자리 잡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 건축은 학문적으로도 공학, 예술, 인문학, 사회과학 등이 파편화 되어 있습니다. 단적으로 어떤 사람은 건축을 공학이라고 하고, 어떤 사람은 예술, 어떤 사람은 인문학, 또 어떤 사람은 사회과학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서로 다른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무슨 건축 관련 학회는 그렇게 많은지, 사실 그럴 수가 없거든요. 건축이라는 것은 하나입니다. 프로그램이 다를 뿐이죠. 온갖 학회들이 확대 생산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나라에서 건축이 제대로 정체성을 자리 잡고 있지 못하다는 증거입니다. 건축영역도 점점 공중분해 되고 있습니다. 유럽에서는 지금도 건축사가 가구, 조명디자인에서부터 도시설계까지 다 할 만큼 매우 통합적인 실무인데, 우리는 그나마 있던 건축의 영역도 점점 더 해체되어 가고 있어요. 공간디자인, 경관디자인, 공간디자인 등등도 보도 못한 디자인이 계속 생겨요. 그러면 나중에는 건축에 뭐가 남습니까. 이게 우리의 문제입니다.

학문에서도 우리는 건축의 정체성이 제대로 자리 잡고 있지 못

합니다. 국가과학기술표준분류체계를 보면, 건축은 건설/교통 아래 시설물 설계에 들어가 있어요. 예전에 대한건축학회에서 우연히 국가연구프로젝트를 하게 됐는데, 그게 건설교통부에서 나온 것이어서 ‘건축이 왜 건설교통부지?’ 하고 굉장히 의아해 한 적이 있어요. 게다가 한국연구재단의 학문분류표를 보면 건축이라는 것은 아예 없습니다. 여러 공학 중에서 건축공학 하위분류로 건축설계가 있을 뿐이죠. 심지어 한국에서는 건축역사이론도 공학으로 들어가요. 그래서 서점이나 인터넷을 통해서 건축을 찾으려면 공학으로 가야 돼요. 이렇듯 건축은 설계조차 공학의 일부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다른 나라는 어떨까요. 건축은 ‘Arts&Humanities’로 들어갑니다. 하물며 archaeology가 첫 번째이고 두 번째가 architecture입니다. Engineering&Technology에는 없어요. 이게 바로 글로벌 스탠다드인데 아무도 이걸 개선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조경, 도시설계, 도시계획, 이런 것들이 건축이 아니라 다 따로따로 들어가 있어요. 도시설계는 사회과학에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조경은 자연과학이든가요? 하여튼 엉망진창입니다.

국가계약법에는 건축서비스라는 항목 자체가 없습니다. 건설기술의 일부로 치부되어 건설산업기본법이나 건설기술관리법 안에 있지요. 게다가 가격입찰이라든지 대가기준, 이런 것들이 모두 엔지니어링 설계와 동일합니다.

최근 들어 발주에 대한 개선이 조금 있었지만 그것도 표면을 훑는 정도일 뿐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었습니다. 건축을 다루는 정부부처가 없다는 이야기는 굳이 하지 않겠습니다. 국토교통부와 문화체육관광부에 양다리를 걸치고 있죠. 물론 국토부가 주로 한다고는 하지만 문화부에도 공간디자인과라는 것이 애매하게 있어서 문화로서의 건축을 다룬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이렇게 공공적인 건축, 도시, 환경의 생산과 관리를 다루는 주체가 없기 때문에 이로 인해 발생하는 여러 가지 문제를 각종 외부 위원회를 만들어서 해결하는 게 우리나라의 건축계 현실입니다. 여러분도 잘 아실 겁니다. 무슨 자문위원회, 특별위원회 하는 것들이 얼마나 무책임하고 비효율적인지.

그래서 마지막으로 무엇이 필요한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건축의 정체성을 제대로 정립하는 것입니다. 기초를 다지는 것과 똑같습니다. 학문적으로 글로벌 스탠다드를 만드는 것, 우리가 그것을 쫓아가고자 한다면 공학의 하위 개념으로서의 건축이 아니라 건축이라는 독자적인 학문의 정체성을 제대로 정립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는 architecture practice, service가 없어요. 이것의 법적 제도화가 필요합니다. 최근에 건축기본법과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이 만들어지면서 괄목할 만한 변화를 이루어냈습니다. 그러나 제가 보기에는 아직도 갈 길이 멍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취지에 맞도록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건축서비스’라는 항목을 집어넣어야 합니다.

그 다음으로 건축은 체계적인 지식을 바탕으로 해야 전문직으로서 성립이 가능합니다. 체계적인 지식, 학문으로서의 토대가 없으면 전문직으로 성립할 수가 없어요. 의학이나 법학이 전문직으로 인정받은 이유는 그 영역의 독자적인 학문적 정체성을 구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건축도 마찬가지입니다. 건축은 ‘Art & Science of Design & Building’으로 아주 포괄적입니다. 여기에는 기술적 지식, 인문적 지식, 사회과학적 지식, 모든 것이 다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지식 기반의 확충이 필요합니다. 서양 건축은 아주 오랜 시간에 걸쳐 그리스 오더에서 시작한 고전건축을 바탕으로 체계적인 지식이 형성돼 왔지만 한국은 일제강점기 때 우리가 원치 않는 상황에서 서양의 건축을 가지고 왔기 때문에 체계적으로 받아들일 만한 시간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건축에 대한 이론을 구축할 만한 여유도 없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의 50년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전통건축과 현대도시의 이론화, 그리고 이것을 바탕으로 한 체계적인 지식이 최근 현대건축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친환경과 지역가능성, 이런 것들과 융화가 돼서 체계적인 지식과 기반을 마련해야 합니다.

건축은 상당히 오랫동안 퍼블릭 서비스로 존재해왔고, 지금도 건축사가 국가자격으로 존재하는 이유는 공적인 가치 때문입니다. 건축이라는 것 자체가 한 사회가 공유하는 공동체 규범이자 질서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가치를 추구하면서 체계적인 지식을 구축해야 합니다. 서양에서도 공공성은 비트루비우스 때부터 르네상스를 거쳐 지금까지도 아주 중요한 가치입니다. 알베르티가 말하길 ‘공공에 대한 봉사로 건축사는 인류로부터 위인 대접을 받을 필요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위대한 것이 건축사인데, 한국사회는 근대화 과정에서 전통사회가 갖고 있던 공동의 규범을 상실하고 그것을 대체할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내지 못한 채, 공동체 규범의 공동화 상태에 놓이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건축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사회 전체가 그렇게 됐지만 건축은 시각적 환경에 아주 직접적인 매체여서 우리의 현실을 아주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을 뿐입니다.

대한건축사협회는 굉장히 많은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상당히 긍정적인 역할을 해왔고, 그동안 쌓아온 결과물들도 있고, 외적인 환경도 많이 변하지 않았습니까. 이제부터는 과거 50년 동안 못 해왔던, 게을러서도 아니고 하기 싫어서 안 한 것도 아닌, 어쩔 수 없는 우리 역사로 인해 하지 못했던, 건축의 정체성에 대한 모호함을 극복하고, 지식기반의 전문성을 성취하고, 공공적 역할을 수행하고, 배타성을 벗어나서 진정한 대한민국 건축사의 전문직 협회로 거듭나길 기대합니다.

주제 발표 2

손희준 청주대 행정학과 교수

“행정학적 관점에서 본 우리나라 건축사의 현재와 미래”



저는 행정학도로서 중앙정부의 재원을 어떻게 배분할 것이냐, 하는 일에 주로 관여를 하고 있습니다. 건축에는 문외한입니다만, 행정학도 건축학 못지않게 비슷한 고민을 계속 해왔고 지금도 하고 있기 때문에 타산지석이나 반면교사의 의미를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고양이 목에 방울 달기’라는 속담은 한국과 중국에서의 의미가 다르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과연 누가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달 수 있을까, 아무도 달지 못할 것이다’이지만, 중국에서는 ‘아무도 달지 못하는 방울을 누군가는 단다, 그 사람이 위대한 사람이고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이다’라는 뜻입니다. 같은 속담인데도 보는 시각이 달라서 해석이 다르다고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주제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우리사회는 전반적으로 위기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위기라는 단어 자체가 기회를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대한건축사협회가 지금까지 걸어온 50년뿐만 아니라 앞으로의 50년, 500년, 5000년에 메리트가 주어져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건축은 집을 짓는 행위와 관련된 학문이자 실무라고 생각합니다. 천자문에서도 ‘집 우(宇)’, ‘집 주(宙)’가 우주를 뜻하듯, 새로운 공간과 새로운 개념과 새로운 환경을 만들어 가는 것이 건축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의 집은 왜 이 모양이 되고, 건축과 관련된 수많은 조직은 왜 파편화 됐을까요. 사실 행정학도 유사합니다. 듣기 거북하시겠지만 직설적으로 이야기하면, 그동안 먹을 게 많았어요. 나름대로 이해관계가 있었고, 그 안에서 발생하는 이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꾸 찢어지고 따로 나가서도 충분히 견딜 만한 잠재력이 있었고 그만한 시장이 있었습니다. 아시다시피 행정은 뒤에 붙이면 다 됩니다. 건축행정, 교육행정, 국방행정, 외교행정, 안보행정, 다 됩니다. 그러다보니 행정도 나름대로 다 찢어지고 갈라졌습니다. 그런데 점점 이 시장이 좁아 집니다. 이제 와서는 통합, 융합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시장이 좁아진 것이 아니라 쪼갬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에 따른 압박을 스스로 느끼는 것입니다. 역설적이지만 어떻게 보면 이런 압박이 더 강해져야 자기 매김이 더 쉬울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도 합니다.

저는 행정과 행정학의 발전 및 위기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자 합

니다. 행정은 practice고, 행정학은 science입니다. 실질적으로 국가가 존재하는 한 행정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또 행정은 그동안 정부에 기대서 상당히 큰 혜택을 봐왔습니다. 공무원으로서 개혁의 주체가 아니라 개혁의 대상이었습니다. 정부에 대한 인식도 과거에는 공무원을 존경했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행정학도 상당한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건축의 공공성처럼, 행정학은 아예 처음부터 그런 얘기를 합니다. 행정문제가 바로 공공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퍼블릭 프라블럼을 어떻게 서빙할 수 있겠느냐’ 이게 가장 중요한 행정학의 개념이고, 이를 위한 협력적인 활동이 바로 행정입니다. 행정학자들 중에는 소셜 디자이너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런 분들 때문에 행정이 발달하면서도 때로는 위기를 더 심화시켜 왔죠.

‘패러다임’은 토마스 쿤(Thomas Kuhn)이 쓰기 시작해서 여기저기 사용되고 있는 말인데, 행정학에서는 독립적이고 독자적인 패러다임을 확보하기 위해 포커스와 로커스가 있어야 된다고 배웁니다. 니콜라스 헬리는 행정학의 패러다임을 법/제도적 접근법, 구조기능주의, 과학적 관리론, 인간관계론, 행태론적 접근법, 생태론적 접근법, 공공선택이론, 최근의 현상학적 접근법 등의 관점에서 복잡하게 설명하기도 하고, 어떤 행정학자는 ‘길거리에 나가 있어야지, 너희가 왜 사무실에 앉아 있어! 국민이 원하는 건 길거리에 있어!’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이러니 어디로 갈지 예단하기 어렵습니다.

최근에는 ‘거버넌스(governance)’라는 말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협치’라고 번역을 하고 있는데, 우리는 노무현 정부 때부터 사용했습니다. 협치는 공공부문뿐만 아니라 민간부문, 제3섹터(NGO)까지 정책 결정이나 집행, 평가 등을 같이 하자는 겁니다. 바로 돈 때문입니다. 우리나라도 재정 위기 때문에 이런 방향으로 가고 있는데, 적자가 늘어나고 세수 결손이 계속 쌓이고 있습니다.

행정학은 학문으로서도, 공직 진출에서도 설 자리가 없어요. 이명박 정부 때부터 ‘고등학교 졸업하고 9급시험 보려면 행정학은 너무 어려우니 빼라!’고 하는 바람에 행정학계가 난리 났습니다. 공무원이 됐는데 행정학을 몰라요. 과연 이게 행정공무원이나, 그런 얘기도 나오고요. 재경직은 진작부터 행정학이 선택과목이 돼서 점수가 잘 안 나오니까 선택을 안 해요. 이러다보니 점점 행정학 내부의 학문공동체에서만 놀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에 한때는 행정학과, 정책학과, 공공관리학과 등의 학과를 막 만들었던 적도 있습니다. 물론 지금은 다 통합되거나 폐과의 위험에 놓여 있습니다. 게다가 학위가 남발되는 등 외연 확대에 따른 부실화로 궁극적으로는 공공성과 공익성이 유실되면서 정책과 행정에도 이러한 현상이 이어졌습니다.

우리나라 건축사의 현실에 대해서는 다들 더 잘 알고 계실 테니 넘어가겠습니다. 한마디로 요약하면 수요는 줄고 공급은 과잉이며, 시장은 위축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이해했습니다. 오늘 가장

중요한 화두는 건축사의 위상인 것 같습니다. 을의 입장이라는 것인데, 갑도 사실 언제나 갑은 아닙니다. 이런 것은 건축학과 실무를 어떻게 포지셔닝 하느냐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지금은 역할의 딜레마에 빠진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현재는 지나치게 사적인 시장에 위치하고 있는데 이 부분도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다 같이 고민하고 계시니 충분히 해결되리라 봅니다. 개인들의 행태와 인식의 변화, 그리고 이것들을 어떻게 조직화 하느냐에 달려 있을 텐데, 이게 바로 협회가 할 일인 것 같습니다. 조직의 지속 가능성과 활력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외곽단체와의 소통 그리고 네트워크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협회에도 <건축사>라는 저널이 있던데, 편집위원과 기고에 행정이나 정책, 언론, 여성단체 등 전혀 다른 분야의 시각을 끊임없이 포함시켜서 문제를 다시 한 번 바라볼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보는 것도 방법일 것입니다.

이제 앞으로의 50년, 500년, 5000년의 이야기입니다. 행정학에서는 정책결정에 대하여 크게 3가지의 이론을 가르칩니다. 제가 봤을 때 현재 여러분들이 고민하고 계신 것은 합리모형단계입니다. 설계를 할 때 이런저런 요소들을 다 고민해서 집이나 건축물을 디자인하면 '이게 베스트야'라고 하는 겁니다. 가장 중요하고 최선이라고 생각하는 것이겠죠. 정책결정단계 중에도 그렇게 결정해야 한다는 이론이 있습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최적의 솔루션이 뭘까 고민해서 그에 대한 답을 찾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분석과 이론, 여러 가지 전제조건이 필요하겠죠. 즉, 시간과 돈이 많이 듭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걸 너무 값싸게 처리하고 있죠. 그럼 근본적으로 제대로 될 수가 없는데 여러분은 그걸 해오셨거든요. 어떻게 보면 거기에 문제가 있는 것이죠. 우스갯소리로 변호사사무소에서는 친구가 전화 한 통 해도 돈 받습니다. 컨설팅 해줬다고. 그런데 여러분은 해줄 거 다 해주면서도 못 받잖아요. 이것이 바로 총체주의적인 모델입니다.

두 번째는 점증주의 모델인데, '대단히 현실주의적이며 조금씩 달라지고 있다'면서 실질적으로는 결정의 정치성을 강조합니다. 앞의 총체주의적 모델은 경제적인데, 어떤 학자는 '점증주의 모델은 진흙탕을 빠져나가는 것처럼 조금씩 하는 것이지 아이디어하고 베스트만을 찾는 게 아니다'라고 설명하기도 합니다. 하나는 아주 예외적인데, 쓰레기통 모형입니다. 이걸 아무것도 없는데 결정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사회가 상당히 유사한 것 같은데, 결정자들이 뭘 해야 될지를 모릅니다. 또 해결해야 되는 목표가 있는지 없는지도 잘 몰라요. 그런데 항상 결정은 된다고 믿습니다. 무의사 결정으로 모든 것이 모호합니다. 결국 어떻게 결정이 되느냐, 우연히 결정자들이 모인 때에 그냥 결정합니다. 그런데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마감시간도 있고 스케줄도 있기 때문에 결정은 한다는 겁니다. 면피죠. 쉽게 말해서 이런 결정도 있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마감시간에 쫓겨 목소리 큰 사람에 의해 날치기로 결

정되기도 합니다.

대한건축사협회는 50년이나 됐으니, 번스타인이 정의한 규제기관의 생명주기이론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협회가 규제기관과 성격은 좀 다르지만 대략적으로 생기기-유년기-성숙기-노년기에 따를 것입니다. 생기기에는 무언가 만들어졌으니 굉장히 의욕이 넘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실질적으로 무엇을 해야 할지는 잘 모릅니다. 유년기에는 공격적으로 업무수행을 하지만 경험이 부족하고 전문성이 약해서 피규제집단의 저항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 합니다. 잘못하면 나가서 깨져요. 그래서 번스타인은 이 시기를 '휘황찬란한 고립무원의 상태'라고도 했습니다. 규제기관이기 때문에 유년기에 벌써 문제가 많이 나타나는 편입니다. 성숙기에 접어들면 이미 활력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선례가 뭐가 있었지, 우리가 어떻게 해왔지, 관행에만 의존합니다. 새로운 문제를 찾지 않습니다. 그리고 노년기로 가면 점점 더해지죠.

다운스라는 사람은 관료조직의 생명주기 이론을 만들었는데, 그안의 구성원을 5가지로 나눴습니다. 오직 승진과 진급에만 관심이 있는 등반형, 현재 누리고 있는 기득권을 유지하려는 보전형, 이기적이면서 자신이 하는 일을 즐기는 열중형, 이기적이면서도 이타적인 창도형, 사익과 공익 추구의 복합적인 동기를 갖고 있는 경세가형입니다. 문제는 조직에 속해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나에 따라 조직의 생명주기가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생기기에는 창조형이나 열중형, 유년기에는 등반형, 성숙기와 노년기에는 보전형이 대부분 그 조직을 차지하게 됩니다. 하지만 조직 구성원들의 행태나 생각이 달라지면 조직도 회춘을 한다는 것입니다. 대한건축사협회에서도 잘 생각해보시길 바랍니다.

앞서 말씀 드렸듯이, 건축이 너무 사적 시장에만 있으니 공적 영역으로 바뀌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협회 차원에서는 최근 윤리성이 상당히 화두이니 윤리현장을 만들어 자율규제를 강화하고, 그리고 하나 더 통일까지 기다리기는 어렵지만 새로운 시장을 찾아야 합니다. 건축사 스스로도 무임승차나 방관자에서 벗어나 적극적인 자세로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합동토론회

좌 장 : 박경립 국가건축정책위원회 정책조정분과위원장

토론자 : 윤혁경 대한건축사협회 이사

제해성 건축도시공간연구소 소장

구영민 한국건축설계교수회 회장

강부성 한국건축정책학회 부회장

전영철 열린모임 건축사사무소 대표

김현진 에스피엘케이 건축사사무소 대표

최지희 건설경제 건축전문기자



박경립 : 50년을 지나왔고, 앞으로 50년을 어떻게 잘 갈 것인가에 대한 좋은 토론회를 갖고 있습니다. 두 분의 발표자께서 현실에 대한 진단과 가능성에 대한 방향을 제시해주셨습니다. 많은 분들을 모셔서 시간 관계상 길게 듣는 것은 어렵지만 짧게 핵심만 말씀 해주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윤혁경 : 저는 건축법의 개정과정을 통해서 우리 건축사의 위상과 역할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되돌아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건축사의 존재 이유는 좋은 건축물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가 설계하고 감리한 건축물이 훌륭하고 자랑할 만한 것입니까? 상주감리 대상 건축물은 전체 2%도 되지 않고, 나머지 98%가

비상주감리 대상 건축물입니다. 현재 시장에서 통용되는 설계비나 감리비로는 도저히 제대로 된 설계, 제대로 된 공사감리를 할 수 없습니다. 이런 현실이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온 일도 아니고, 법과 제도, 행정의 문제만도 아닙니다. 건축사 스스로 자초한 일만도 아닙니다.

저는 건축법에 관심이 많은 사람입니다. 지난 20년 동안 건축법 개정과정에 참여하고 가까이에서 지켜봐왔습니다. 그러한 과정에서 건축사의 위상이 올라갈 수 있었던 기회가 굉장히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정반대의 결과가 초래되어서 정말 가슴이 아픕니다. 공무원의 부조리를 해소한다는 명분으로 건축사에게 조사와 검사권한을 위임했습니다. 1992년에는 건축허가 전 현장조사 권한을 건축사에게 위임하였고, 1997년엔 중간검사제도를 폐지하고, 공사감리보고서로 대체하도록 했습니다. 사용승인을 위한 현장검사도 1991년부터 건축사에게 위임했고, 1995년에는 그

것마저도 폐지하고 공사감리자의 보고서에 따라 사용승인필증을 교부하도록 개정했습니다. 2008년부터는 공무원이 현장검사를 하도록 개정했음에도 제3의 건축사에게 조사검사 권한을 위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공공으로부터 막강한 권한을 위임받은 건축사는 그 권한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습니까? 건축주나 시공자로부터 권한만큼 대우를 받고 있습니까? 현실은 정반대입니다. 권한이 오히려 짐이 되고 말았습니다. 일의 양만 늘어나고 책임은 가중되었지만, 제대로 된 보수도 받지 못하고 그 위상도 추락해버린 이상한 현실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 모든 것이 어디서부터 잘못된 것입니까? 건축주나 공사현장에서 차단된 공무원의 경우 부조리는 어느 정도 줄어들었다고 보지만, 대신 권한을 위임받은 건축사 세계의 부조리는 사라졌나요?

설계도서가 축소된 과정도 그렇습니다. 1995년 이전에는 건축허가를 신청할 때 모든 설계도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다보니 불편한 것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1995년 개정 시 건축허가를 신청할 때는 기본설계도서를, 그리고 실시설계도서는 착공신고 시에 제출하도록 했는데 이 실시설계도서를 제대로 작성하지 않고 기본설계도서를 다시 제출하는 잘못이 반복되다 보니, 이 제도에 또한 건축사의 입장에서 불편했습니다. 당연히 반대를 했겠지요. 그래서 2008년 실시설계도서 제출제도를 삭제하고 말았습니다.

건축사의 입장에서 편해졌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건축주나 집장사의 입장에서 보면 설계도서가 줄었으니 당연히 설계비도 줄일 수밖에 없었고, 감리할 도면이 변변치 않으니 감리자의 역할도 줄어들었고, 형식적인 공사감리를 해도 문제가 없다고 보아 결국 공사감리비도 줄이거나 설계비에 포함시켜 계약하는 이상한 상황이 되고 말았습니다. 시공을 위한 도면은 누가 언제 그려야 하는지 규정하는 곳이 없습니다. 지방서, 물량산출조서, 내역서도 작성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공자는 제 마음대로 공사를 진행해도 무방하게 되었고, 공사감리자는 감리할 도면이 없으니 견폐율이나 대지 안의 공지, 높이 정도만 확인하는 형식적인 감리를 할 수밖에 없게 된 것입니다.

좋은 건축물을 건축하는 것이 건축사의 존재 이유입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우선 완벽한 건축설계도서가 작성되어야 합니다. 기본설계도서는 당연히하고, 시공을 위한 실시설계도서도 의무적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일반지방서와 특기지방서, 물량산출조서와 내역서도 작성되어야 합니다. 건축마감자제도 구체적으로 설계도서에 표기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될 때 그 도면을 가지고 확실하고 분명한 공사감리를 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제대로 된 설계비와 공사감리비가 보장되어야 합니다. 공공설계대가는 있는데 민간설계대가는 없습니다. 최근 대한건축사협회

에서 여러 가지 검토를 하고 있는데 이것이 법제화 되도록 모든 건축사가 힘을 합쳐서 노력해야 합니다. 부동산중개수수료도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최저 설계비와 최저 감리비를 법에서 정할 수 없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감리비 예치제도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공정별로 공사감리보고서가 제출되면 그 때마다 공사감리비가 제대로 지급되도록 하는 제도 말입니다. 물론 지금처럼 달랑 한 장짜리 감리보고서가 아닌 공정별, 공종별 모든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사실적인 공사감리보고서도 새로 마련되어야 합니다. 실질적인 공사감리가 이루어지도록 말입니다. 적어도 현장에 한번 나갔다고 하면, 현장관리소장은 누구고, 안전관리소장은 누구고, 레미콘 가구는 얼마고, 철근은 몇 톤이 들어갔고, 문짝은 어느 회사 제품이고, 이걸 확인해야 하지 않습니까. 지금은 전혀 확인하지 않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천안에 3세대짜리 다세대주택 100동을 지었습니다. 설계도서가 100장인데도 직접 공사감리를 해보니까 굉장히 부족합니다. 지금 건축사들은 설계도서 몇 장 그림입니까? 과연 그거 가지고 공사감리를 하라고 하면 제대로 할 수 있나요?

우리의 권익은 우리 스스로 지켜야 합니다. 어느 누구도 우리를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건축사의 위상을 높이고, 추락시키는 것은 전적으로 우리 건축사의 몫입니다. 건축사의 존재 이유는 좋은 건축물을 설계하고 그 건축물이 최상의 건축물이 되도록 공사감리를 잘 하는 것입니다.



제해성 : 건축도시공간연구소는 국무조정실 산하의 정부출연 국책연구기관으로, 건축물과 공간환경에 대한 정책연구를 수행합니다. 이렇게 설명하면 도시계획하는 사무실이군요, 도시계획 연구합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이 계셔서 상당히 허망합니다. 이상헌 교수님이 설명하신 건축의 공공성이나 건축물 군에 대한 관

심과 연구가 굉장히 적습니다. 그래서 건축물뿐만 아니라 주변 환경까지 같이 연구하기 위해 건축도시공간연구소라고 이름 지었는데 혼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발표할 내용은 우리 연구소에서 추진 중인 건축통계자료 분석으로, 2013년에 건축도시정책정보센터에서 진행한 '건축서비스산업 통계 구축 및 실태조사' 연구에서 발췌한 것입니다.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이 통과됐지만 건축서비스산업의 범위와 정의가 분명하지 않습니다. 그 당시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기 때문에 범위를 정확하게 정하지 않고 통과시켰는데, 저희들은 그 서비스 범위를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중에서 '건축 및 조경설계서비스업', '엔지니어링서비스업', '인테리어 디자인업' 등 5개

정도로 나눠서 건축서비스업이라 정의하고 그 분야의 내용들을 정리했습니다.

우선 건축서비스산업의 전체 종사자 수는 17만6,000명 정도 됩니다. 그 중에서 건축설계 및 관련 서비스업에는 5만7,000명 정도 종사합니다. 2012년 기준 건설업 매출액 204조원 중에서 건축서비스업은 약 20조원 정도 되는 사업입니다. 그 중에서 건축설계는 약 5조원 정도 됩니다. 건축서비스산업의 사업체 수는 1만7,000여 개, 종사자 수는 17만6,000명 정도 되며, 이는 2007년 14만2,000여 명에서 5년 사이에 약 5만명 정도가 늘어난 수치입니다. 일자리 수도 2007년 대비 2012년에는 36% 증가했습니다. 사업체 수도 늘고 종사자 수도 상당히 늘어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매출액을 보면 2007년 12조원에서 2012년에는 20조원으로 상당 수준 늘어났습니다. 체감하는 수준은 훨씬 적지만 문제는 2012년의 통계가 2010년과 거의 같다는 것입니다. 완전히 정체상태라고 볼 수 있죠. 종사자 규모별로 보면, 20개밖에 되지 않는 300명 이상의 업체가 매출의 약 3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건축설계 및 관련 서비스업의 매출을 보면 300명 이상 업체가 1조2,000억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상당수입니다.

건축설계 및 관련 서비스업의 평균 임금은 2,800만원, 1인당 매출액은 8,900만원 정도입니다. 건물 및 토목엔지니어링 서비스업과 기타 엔지니어링 서비스업을 합친 건축엔지니어링서비스업의 1인당 매출액은 1억2,400만원, 평균임금은 3,400만원으로 건축설계에 비해 좀 더 많습니다.

미국의 반스리포트라는 OECD 주요국의 산업동향보고서에 조사된 바에 따라 다른 나라와 비교해보면, 우리나라의 건축서비스산업 종사자 수가 21만명으로 자체 조사결과인 19만8,000명보다 조금 많은데, 이것은 기준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미국이 111만명, 일본은 47만명이 종사하고 있는데, 인구수 대비 우리나라의 건축서비스산업 분야 종사자 수도 상당히 많은 편입니다.

건축서비스산업 사업체당 매출액은 232만달러인데, OECD 국가 중 상당히 하위에 속합니다. 종사자당 매출액은 10만달러로 이것도 상당히 적습니다. 전반적으로 우리나라 건축서비스산업의 경쟁력이 떨어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1인당 국내총생산 대비 건축서비스산업의 매출액은 미국의 2/11, 일본의 5/11 정도 되는데, 하위권에 속한 뉴질랜드, 덴마크, 핀란드, 아일랜드는 거의 건물을 짓지 않으니 순위로는 상위권에 속해 있어도 다른 선진국에 비하면 상당히 낮은 수준입니다.

국내 건축서비스산업의 전문분야별 사업체 당 매출실적으로 보면 도시계획 및 조경설계 서비스업, 건물 및 토목엔지니어링 서비스업, 기타 엔지니어링 서비스업, 인테리어 디자인업에 비해 건축설계 관련 서비스업의 매출액은 5억6,000만원, 종사자 당 매출실적을 보면 9,000만원 정도이며, 역시 다른 분야에 비해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이러한 국내의 통계를 통해 본 건축서비스산업의 구조적인 문제점은 다른 OECD국가에 비해 생산성이 낮으며, 영업이익률은 하락세를 보이고 있고, 대형사업체에 매출액이 집중된 구조이며, 건축설계 및 관련 서비스업 사업체의 영세성으로 분석됐습니다. 사업체의 규모별 표본을 보면 건축설계 및 관련 서비스업의 300명 이상 사업체는 20개이며, 도시계획 및 조경설계 서비스업의 100명 이상 사업체는 2개밖에 되지 않습니다.

건축서비스산업 실태조사를 통해서 정기적으로 통계 보고를 하고, 이것이 건축서비스산업의 지속적인 발전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건축도시공간연구소에서도 건축서비스산업 진흥과 관련된 예산을 마련해서 매년 통계를 낼 계획입니다. 국토교통부의 건축정책과를 중심으로 건축도시공간연구소와 앞으로 설립될 건축진흥원과 함께 건축서비스산업의 실태조사를 위해 꾸준히 진행해 통계 정보와 지표로 삼아 앞으로 어떻게 되고 있는지 정확한 파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러한 실태조사나 통계자료 조사뿐만 아니라 건축서비스산업이 앞으로 발전하려면 체계적인 서비스업무표준이 만들어져야 합니다. 업무표준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도대체 얼마를 받아야 하는지, 뭘 어떻게 해야 하는지, 다 다릅니다. 이렇게 해서는 산업이 발전할 수 없으므로 서비스 수준의 질적 향상을 위해서 업무표준은 만들어져야 하고, 여기에는 국가예산이 투입되어야 합니다. 하루빨리 건축진흥원이 설립되어 진흥사업이 출연되어야 하며, 국민이 공감하는 수준이 어떤지 파악해서 그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해야 합니다.

그리고 업무범위의 세분화와 확대가 필요한데, 현재는 일괄적으로 하고 있어 이것을 기획업무와 설계업무, 사후설계업무로 나눠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건축사가 어떤 업무를 하는지 국민들도 알아야 하므로 업무표준이 만들어져야 합니다. 제가 조심스럽게 제안하고 있는 게 설계관리제도의 도입입니다. 현재 공사관리는 시행되고 있지만 디자인 매니지먼트(DM)라는 설계관리도 도입해서 대행설계 등을 방지하고 자체설계를 하는지 누군가가 감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렇듯 설계, 감리, 관리, 기획업무를 구분해서 해야 하는데 지금은 다 하나로 뭉쳐서 하니까 돈도 한 번밖에 못 받아요. 이것은 건축서비스산업 발전의 아주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합리적인 보수부과기준이 마련되어야 하겠습니다. 현재는 포괄수가제를 하고 있는데 행위별 수가제로 해서 행위마다 비용을 받아야 합니다. 의사들 같은 경우에도 포괄수가제를 반대해서 행위별 수가제를 받고 있는데 우리 건축사만 포괄수가제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감리 같은 경우에는 포괄수가제로 해서 무한책임, 무한기간으로 봉사를 하고 있는, 있을 수 없는 일이 일

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업무세목별 대가제를 도입해서 어떤 행위에 얼마를 받아야 하는지 정확한 내용들이 만들어져야 산업으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설계업무, 감리업무, 관리업무, 기획업무 각각의 서비스보수 부과기준도 마련해서 정리가 된다면 앞으로 건축사 여러분이 좀 더 편안하게 국가와 사회에 봉사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박경립 : 고양이 목에 누가 방울을 다느냐,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들이 제일 먼저 확보해야 하는 것이 합리성과 객관성 같습니다. 대한건축사협회가 기본수가제 이야기를 하고, 현상을 진단하고, 그 다음에 제안을 해야 되겠지만 그것을 누가 어떻게 객관화 시켜서 세상에 내놓느냐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서로 협업하는 일들이 어느 한쪽 입장이 아니라 객관화를 통해 산업까지 발전시키는 제도화를 위한 연구를 반드시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다고 여태껏 이런 것이 없었던 것은 아니죠. 그런데 지금까지 했던 것들이 그때그때 대중현상을 수리하고 보정하는 정도로만 이어졌기 때문에 오랜 시간이 지나고 보니 전체적인 틀을 손봐야 할 때가 된 것입니다. 손희준 교수님께서 라이프사이클 이야기를 하셨는데, 우리의 조직과 제도가 어느 상태에 있는지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제해성 소장님께 질문 드립니다. 산업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건축을 조금 더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공공의 것을 먼저 하자, 그럼 민간도 따라 가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에서 공공건축물지원센터를 만들었습니다. 아직 잘 알려져 있지 않은 것 같은데, 공공건축물지원센터가 하는 일과 앞으로 어떤 비전과 계획을 갖고 계신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제해성 : 정확한 명칭은 국가공공건축지원센터입니다. 법정센터로, 공공기관이 건축물을 구축하거나 리노베이션 할 때 일정범위 예산에 해당되면 저희 연구소에 있는 센터에서 사전검토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사전검토는 평균적으로 일주일에 한 건 정도 진행되고, 검토 외에도 여러 가지 자문을 하는 일이 일주일에 5~6건 정도 있습니다. 사실상 공공기간에서 건축물을 발주하고 나면 다시 30년에 한 번, 50년에 한 번 정도 있을까 하는 일이니 생소합니다. 공공건축부터 설계대가가도 적당하게 지급하고, 설계 프로세스도 정확하게 밟아 나가야 합니다. 예를 들어 공사 중에서도 설계자가 디자인을 할 수 있는 사후관리제도를 만들어서 공공건축에 적용하다가 효율이 있으면 민간건축도 따라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민간은 효율을 정한다거나 강제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공공건축이 잘 되고 있는 걸 보여주면 민간도 따라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에 국가공공건축지원센터에서 앞장서고 있습니다. 그밖에 건축진흥사업을 추진하면서 앞바퀴와 뒷바퀴가 연결되듯이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앞으

로도 열심히 해서 건축사 여러분들이 충분히 일할 수 있는 기회가 보장되고 또 일을 하면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받을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경립 : 건축도시공간연구소가 개소식을 하고 국제세미나를 개최할 때 참여했었는데, 당시 미국 건축서비스산업의 조달청 시스템이 우리나라와는 상당히 다른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가 초기 스테디에 전문가가 참여하는 시스템이 확보돼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국가공공건축물을 지원해 나갈 때 처음부터 전문가들이 어떻게 참여하고 그 프로세스를 거쳐 나중에 관리까지 가는 것을 지원하는 센터가 생기면 보수대가 기준뿐만 아니라 시간을 어떻게 배분하고 정부가 해야 하는 일까지 영향을 미칠 것 같습니다. 서로 협조해서 좋은 방향으로 나아가길 바랍니다.

그럼 잠시 학교에서 후학들을 가르치고 계신 교수님들의 이야기를 들어보고 싶은데, 젊은 학생들에게 어떤 비전을 줘야 지속 가능한 발전이 가능할 것인가 하는 차원에서 구영민 인하대학교 교수님께 마이크 넘기겠습니다.



구영민 : 사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 한국건축설계교수회 회장 자격으로 왔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대한민국에서 설계를 가르치시는 모든 교수님들의 공통된 의견이 아님을 먼저 밝힙니다. 제가 경험했던 변화의 패턴들을 쭉 관찰한 결과, 학생들에게 어떤 것을 가르친다는 개념보다는 가지고 있는 것을 끌어낼 수 있게 리드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Professional Education을 실시한 게 좀 됐죠, 5년제를 실시한 이후에 전문가 교육을 하고 있으니까요. ‘educate’는 라틴어에서 ‘발휘하다’라는 뜻과 함께 잠재력을 개발한다는 의미이고, ‘profess’는 자기가 개발한 잠재력을 ‘믿는다는 것을 떠드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지식을 주장하는 것이고, 궁극적으로는 믿게 해야 하고, 나아가 밖에 나가서 말할 수 있게 해야 하고, 그것이 신념과 개념으로 발전해서 스스로에게 개인적인 의미로 존재하도록 가르치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건축이라는 직업이 지금이나 과거에나 공통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잃어버리면 사실상 우왕좌왕하게 되고, 실질적으로 옳은 것을 보고 묵인하게 되고, 묵인하게 되면 그 사람이 전문가라고 하는 직위를 박탈당하게 되는 케이스가 됩니다.

제가 20년 전부터 대한민국에서 설계교육을 담당하면서 느낀 것이, 그 당시에는 산업사회라 무조건 나가서 건설, 증산, 수출에 몰매었던 시절이었죠. 그래서 여러 가지 기술의 발전, 기술화된 합

리성, 도구화된 이성으로 인해서 모든 사람들, 모든 학생들이 생각하는 방법을 막아버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얼마 전에도 시공회사에서 설계를 하겠다는 주장이 다시 나왔는데, 이런 걸 보면 어안이 병병한 정도로 전문이라는 말에 대해 잘못 생각하고 있지 않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뒤에 후기 산업사회, 후기 자본주의사회에서 산업질서는 기술, 정보, 컴퓨터, 이런 것들이었기 때문에 한때 학교에서는 다시 또 우왕좌왕하면서 컴퓨터 프로그램을 들여놓고 했는데, 사실 사람들은, 특히 학생들은 불안함 속에서 살고 있다는 것을 느낍니다. 특히 지금 이 시점에 보면 건축사를 갖게 될 20년 후가 그 학생이 시작하는 무렵이거든요. 20살에 들어와서 40살이 되면 그때 비로소 젊은 건축사가 되어서 집 한 채를 지어볼까 말까 한 나이? 그럼 앞으로 그런 건축사들에게 기술을 전수해서 그런 것들을 가르쳐야 하는지, 또 어떤 것이 될지 모릅니다. 후기 산업사회라는 것, 사실 우리는 그 두 가지를 다 경험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전율을 느낄 수 있는, 가치에 대한 도전을 할 수 있는, 그런 젊은 건축사가 되도록 가르쳐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건 객관성, 이런 것을 다 무시한 상태고, 약간은 이상주의적으로 들릴지 모르지만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건축사가 직업에 대한 입장보다는 한 개인의 입장이 되어야 한다는 생각이 들고, 집단적으로 무엇을 똑같이 키워내는 건 건축사 교육이 될 수 없기 때문에, 건축사의 사회적 역할론에 대해 제가 감히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특히 건축사들이나 그전에 봤던 사람들은 금융, 경제, 새로운 글로벌 사이트에서 돌아가는 것 등 다른 분야에 대해서는 종종 무관심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회변동에 대한 지각 능력을 어떻게 키워줄까 하는 것이 저에게는 상당히 중요한 이슈가 되었습니다. 정상적인 것(normality)과 변화의 질(quality of change)과 패턴을 어떻게 인지하느냐, 변동의 규모(scale) 등 사회 안에서의 변화에 주목하는 것, 사실 이걸 제가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Wilbert Moor가 앞으로 사회적으로 봤을 때 굉장히 중요하다고 이야기한 것인데, 학생일 때 스스로 그런 것을 인지할 능력을 가지지 않으면 늘 똑같습니다. 그러고 나가서 제도적인 측면에 빠지게 되고 정치적·행정적이 부분에 끌려 다니게 되기 때문에 지금 어떤 입장이고 어떻게 자존감을 가지고 가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사실 미래 건축사에 대한 정신적 준비를 좀 더 강하게 부여하고 있는데, 한국사회 속에서 기술적이고 과학적인 생각에 의해 만들어진 합리적인 방법이 나쁜 것만은 아니지만 이처럼 제도화된 상황에서 억눌렸던 무의식의 자아를 발견하는 그런 인간형을 만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행위 주체적인 인간성을 어떻게 강조시키느냐, 원래 가지고 있던 다양하고 모호하며 복잡한 인간성과 행위적인 인간성을 어떻게 회복시켜주느냐

나가 건축에 있어 굉장히 중요한 입장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학이 5년제가 되어서 기존보다는 많은 부분이 개선되고 있지만 학생들에게 있어 건축사에 대한 문제는 사회가 그다지 대수롭지 않게 여긴다는 측면도 있어요. 지금 학생들은 크게 세 종류로 분류할 수 있어요. 앞으로 사회는 창조적인 일을 하는 것이 훨씬 더 유리할 것이라고 생각한 똑똑한 친구들, 그리고 그냥 수능 점수 때문에 왔거나 부모님의 권유로 들어온 친구들. 어찌됐든 들어왔을 때 모든 학생이 똑같이 설계수업을 통해 정신적으로 자아를 찾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학생 스스로 그것을 개발한다면 도전적이고, 경쟁적이고, 모험적이고 상호의존적이며, 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하는 건축사의 기능을 갖도록, 다양한 과목과 다양한 분야에 일을 할 수 있도록 조절해줘야 하지 않을까요?

아마 산업사회에 다가올 수 있는 표준, 관리적 성향, 행정적 제도, 절대적 가치 또는 기술화된 합리성에 대해서 거센 반발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왜냐하면 학생들을 키우는 게 예전과 많이 다릅니다. 객관적인 상태를 어떻게 주체적으로 바꿀 수 있는가, 굉장히 어려운 문제인데 여러 가지 실험을 통해 학생들로 하여금 스스로 미래 건축사를 준비시키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사회가 너무 복잡하고 발달하니까 스스로 포기하는 진화적 본능 이것을 깨뜨려버립니다. 그래서 본의 아니게 상처를 주었던 자연과 주변, 환경의 것들이 사실은 기술적인 발달에 따른 것이 아니라 개인적으로 무관심했던 것들에 대하여 관심을 갖게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건축사는 어떻게 존재하느냐, 돈을 어떻게 벌 것인가 보다는 건축사는 왜 존재하느냐에 대한 존재감과 자존감을 심어주어야 한다고 봅니다.

이제는 방법이 달라지겠죠. 개인적 영향과 환경을 고려하고 주체자로서 생각하게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가 하고 있는 것은 건축에 대한 주체적 주관성, 소위 말하면 정체성을 찾는 것이죠. 건축이라는 장르를 독립시켜야 합니다. 건축이라는 학문은 굉장히 어마어마합니다. architecture가 아니라 architectology가 되겠지만, architecture의 정체성을 어떻게 부각시키고 그것을 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자존감을 갖게 하느냐, 이런 근본적인 문제를 다루어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건축사로 자라나는 학생들에게 건축사가 됐을 때 사회적으로 어떤 역할을 담당하게 할 것인가, 인간적 측면에서 통합적·생태적 영역을 관리하고 또 변화를 제어하는 창조자 또는 모데레이터로 성장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전에는 사무소에서 일 잘하는 학생으로 보내달라고 그랬지만 패턴이 변했어요. 인간적인 학생이나 주체적인 인간성을 가진 학생으로 보내달라고 하는 사무소도 생겼습니다. 한 사람의 개인적인 역량이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고 대학에서 가르치는 입장이 그렇다는 것을 말씀드리는데, 궁극적으로 모든 문제의 파생은 개인인 건축사의 무관심, 방관적인 입장이 발현되었다고 보기 때문

에 그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보고, 앞으로의 건축사는 스스로 주체성을 갖고 사회적 책임을 지며 변화와 패턴에 아주 민감한 그러한 역할을 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박경립 : 건축사들도 시대변화에 대응하고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으면 점점 어려워지는 것은 당연한 것 같습니다. 20년 후에는 지금 직업군 중에 60%는 없어진다고 들었습니다. 제 친구들만 해도 6%가 아니냐고 얘기할 정도 지금 갖고 있는 이 체제와 시대 상황에 대해서 순응적이라고 해야 할까요? 토론 시작 전에 점심 식사하면서 ‘건축사들은 50년 후, 500년 후에 있는 직업일까요?’라는 얘기를 가볍게 나눴는데, 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이 존재하는 한 의식주는 없어지지 않는다. 먹는 것도 어떻게든 먹겠죠? 옷도 입겠죠. 건축도 마찬가지입니다. 건축사가 행하는 여러 가지 법규, 관행 이런 게 엄청나게 바뀔 테지만, 결국 건축사는 살아남을 것이라는 대전제를 갖고 실질적으로 주어진 많은 임무를 수행해야 합니다.”

토론회를 구성하면서 대부분 연배가 높고 다수의 사회적 경험을 가진 분들만 얘기하다보니 세대 간의 차이점에 대해서 인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교수들은 맨날 학생들과 접하기 때문에 그 안에서 살지만 여러분만 해도 건축사사무소 신입사원들이 들어오면 바뀐 것을 느껴도 실질적으로 몸으로 부딪힐 때는 다른 것 같습니다. 40대 또는 신진건축사들에게 발언할 기회를 줘야 미래로 가는 것을 정확히 진단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2014 신진건축사대상을 수상하신 에스피엘케이 건축사사무소의 김현진 건축사님께 마이크를 넘기겠습니다.



김현진 : 올해 국토부와 한국건축사협회에서 주관하는 신진건축사대상을 수상했습니다. 그 자격으로 이 자리에 앉게 된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자격 때문에 저희 세대를 대변해야 되는 역할론이 있지 않을까 하는 자기 고백에 가깝기도 합니다. 앞서 발표하신 분들이 건축은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정면으로는 건축이 있다고 얘기하는 모습을 가진 것 같지만 살아가는 방식의 차이죠. 저는 대놓고 사랑한다고 말하는 그런 모습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에게 주어진 주제가 현실과 미래였는데요, 사실 미래는 잘 모르겠습니다. 에스피엘케이에는 김씨, 박씨, 이씨, 김씨 이렇게 네 명이 만난 파트너십입니다. 혼자서는 힘이 없으니까 그렇게 오픈을 했어요. 그리고 10년이 좀 지났는데 건축사는 저밖에 없습니다. 다 다른 일을 하세요. 한 분은 시공자, 또 다른 분은 구조기술사사무소를 가지고 계시고, 나머지 한 분은 시스템 창호를 하고 계십니다.

사실 저도 10년 후에는 뭘 하고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미래에 대해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단지 현실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전 아마 여기 계신 분들과 다른 현실 속에서 살고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토론 시작 전에 자리를 배치하시는데 제가 앉으니까 좌석에 계신 분들이 최지희 기자님이냐고 물으시더라고요. 건축사가 여자라는 것도 아마 아직까지 우리사회 속에서는 그럴지도 모르겠습니다. 물론 제 이름이 갖고 있는 애매한 것도 있겠지만. 여기 현장에서도 여자 분은 거의 없으세요. 건축과에 가면 50%가 여학생인데, 물론 남성화된 분야이긴 하지만 작업 자체가 상당히 지남하고 늦된 직업이다 보니 여성들이 중간에 그만두는 일이 많은 것 같습니다.

저는 대구에서만 공부하고 대구에서만 일을 하고, 오늘도 아침에 직원 한 명만 데리고 회의를 하고 세 시간에 걸쳐서 여기에 와야 하는 현실에 살고 있습니다. 지역건축사회에도 등록하지 않았습니다. 대구에서 거의 유일하게 등록하지 않은 건축사라고 할 수 있는데, 초반에 돈이 없어서 등록을 못했어요. 그때 1000만원이었거든요. 지금은 협회에 등록하면 교체 감리라고 해서 1년에 몇 번 감리할 기회가 주어집니다. 그걸 생업의 수단으로 많이 쓰시지요. 그걸 하기 싫어서 등록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마 건축사들의 현실도 저처럼 다양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신진건축사는 45세 이하로 정해져 있습니다. 얼마나 늦된 직업이면 대기업에서 명예퇴직을 할 나이에 신진건축사라는 타이틀을 주는지, 직업의 특성을 반영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세대를 대변해야 하는 역할이라면, 제 개인적인 관점보다는 다른 얘기를 하고 싶는데 이상헌 교수님의 <대한민국에 건축은 없다> 책 제목을 보고 너무 단언적인 표현이라 굉장히 충격을 받았어요. 그 책을 겨냥해서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다른 교수님들이 쓰신 공동성, 공공성, 정체성 그런 류의 책들에서도 씩씩함을 느낍니다. 최근에는 어떤 분께서 '생존주의 건축가'라는 표현을 쓰시더라고요. 그 표현을 듣고 상당히 씩씩했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저희는 어쩔 수 없이 예술도 아니고 과학도 아니라고 얘기하지만 서로간의 우월주의, 시기심 같은 것들이 없지 않아 있다는 생각을 많이 받았습니다. 기성세대 역시 알게 모르게 난 높고 난 낮고, 난 지방에 있고 난 중앙에 있고, 난 남자가 난 여자가, 이런 것들이 여전히 남아있죠.

이번에 신진건축사대상을 수상한 다음에 해외 매체에 제 작품을 보내서 소개했습니다. 그러니까 서울에 있는 학생들이 저희 사무소에 인턴십을 요청하고, 외국에 있는 학생들까지도 일하고 싶다는 레터를 받고 나서 '알려진다는 건 이만한 책임을 필요로 하는구나' 느꼈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제 건축을 잘하면 된다고 집중해왔는데 이렇게 알려진다는 건 '내가 그 다음 세대 누군가의 직업을 책임져야 하는 일인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도 학교

에서 학생을 가르치고 있는데, 제일 우수한 학생을 어디에 보낸다든가 하는 식으로 항상 학생들 줄 세우는 걸 많이 하세요. 건축이 치열한 경쟁, 또 다른 수능을 치는 것처럼 느껴져서, 건축은 그런 것이 아니라 따뜻하고 여러 사람들이 같이 먹고 살 수 있는 일이라는 그런 얘기들을 해주고 싶은 마음에서 건축을 바라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의 또 다른 주제는 지방에 대한 얘기인데요, 지금 개인시장은 거의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시공비의 5% 정도로 설계비를 받는 게 거의 통용된 사실인데, 개인시장에서는 5%가 전혀 적용되지 않고 있어요. 그나마 공공시장이 있기 때문에 5%를 받을 수 있다는 건데, 지역에 공공발주된 사업의 50%이상은 서울의 사무소들이 다 들어오세요. 그리고 4:6, 5:5, 3:7 이런 식으로 협업을 하세요. 그렇게 협업을 하게 되면서 지역에 있는 시장들이 악화되었어요. 극단적으로 표현하면 지역에 있는 사장님들께서 3,000만원하면 되는 설계비를 서울팀이랑 같이 하나까 6,000만원쯤 돈이 들게 되었어요. 지역사무소들은 껍데기, 인허가만 진행하고 서울사무소들이 계획을 진행하는 기형적인 협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곁에서만 봐도 지역의 학생들은 '서울에 가야겠다, 여기가 일을 다 하는구나' 생각하니까 좀 상실감이 있지요. 좋은 학생들이 거의 다 서울에 가길 원하고, 그나마 치열한 게 집을 떠나다보니깐 서울은 부동산이라는 걸 따라잡을 수 없지요. 그 친구들은 전세, 월세 살아가면서 5년, 10년 지나면 거의 건축을 포기하게 되요. 근데 반대로 지역에 있는 학생들은 지역에 적당한 사무소를 찾기 어려워졌어요. 좋은 일을 하는 사무소도 없고, 집에 출퇴근하면서 안정된 직업을 찾고 싶었는데 그런 사무소가 거의 없어진 상태지요.

아주 냉엄한 현실이지만 윗세대가 잘못된 것 같아요. 악순환이 계속 거듭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건축이 어려운 건 당연한 것 같아요. 건축과 졸업생이 너무 많고 건축사사무소도 너무 많고, 건축시장이 거의 똑같은 상황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우리나라 보통 사람들의 삶은 점점 더 팍팍해지니 건축의 수준이 안정될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건축사로서 해야 할 일은 건물을 잘 짓는 것입니다. 설계를 잘하면 이렇게 건물이 달라질 수 있다는 생각일 들 만큼 어떤 설계를 요구하더라도 공정해져야 겠구나, 그렇게 설계의 가치를 높이는 게 제가 해야 할 일이 아닐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는 저도 기성세대라는 생각이 들어요. 한 직업에 20년쯤 종사했는데 신진이라고 하기에는 무책임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기성세대가 보여줘야 할 본보기라는 게 자신이 제되된 비평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도 포함되어 합리적이면서 인간애가 있는 비평, 비판이나 격려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외국도 마찬가지고 우리나라 학생들이 건축매체를 거의 보지 않습니다. 온라인 웹사이트의 건축관련 자료들만 검색하는 수준인데요, 전 그게 나쁜 게 아니고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생

각해요. 아키데일리는 세계에서 가장 많이 보는 웹사이트죠. 비전문가들도 많이 보는, 거의 뉴스레터에 가깝고요. 그리고 디자인북이라든지 디자인 웹사이트를 검색해보면 2~3년에 한 번씩 우리나라의 프로젝트가 올라와요. 공공건축물이 아니라 개인적인 작은 프로젝트들이고, 아니면 어떤 건 계획안만 올라오기도 합니다. 이런 걸 보면 어떤 면에서는 공공에서는 시스템도 바뀌어야 하고 대중들의 인식도 바뀌어야 하지만, 사실 개인들이 조금씩 노력해서 건축이 바뀌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키데일리 같은 매체는 2~3일에 한 번씩 우리나라 건축작품 올라옵니다. 예전 같으면 소개될 수 없을 만한 작품조차도 올라오는 게 아마 대한민국이라고 붙으면 어느 정도 이 나라 건축은 괜찮지 않을까 하고 게재하지 않나, 저는 그런 수준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박경립 : 저도 지방에 있습니다. 저는 지방이라는 말을 잘 안 쓰고 지역이라고 하는데, 이게 항상 소수라고 느낄 때 어떻게 대응하느냐 하는 것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좋은 말씀 해주셨습니다. 어떤 상황이든 '나도 다음 세대의 작업에 책임을 져야 하는 나이가 됐구나' 하는 생각을 이야기하셨는데, 신진건축사라고 했지만 20년 하셨으면 이제 중견건축사라고 할 수 있을 텐데... 50년이 지나 50년을 바라보면서, 과연 우리가 왜 이 자리를 만들고 모였을까,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건축계에서 일할 만큼 하고 다음 세대에게 어떤 좌석을 펼쳐줘야 할까, 이런 고민을 하시던 분들이라고 봅니다. 김 선생님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 저희가 조금 더 분발해서 다음 세대를 위한 자리를 어떻게 마련해야 할지 심도 있게 논의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나중에 제가 마이크를 짧게 드릴 때 과연 50년의 비전을 어떻게 갖고 계신지 하는 얘기도 해주셨으면 합니다.

사실 저희들이 대학을 다녔을 때는 여성이 1명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60% 정도가 여학생들이래요. 가끔은 '남학생들이 어디로 갔지' 싶을 정도로 뭘 뽑아도 여학생들이 대표를 하고 그럽니다. 그거 못지않게 지금 우리 사회가 여성의 사회진출의 어려움을 어떻게 강구해나가느냐 하는 것이 우리나라 경제발전과 국력을 키우는 일 중 하나라고 봅니다. 결국은 여성들을 제대로 케어해주지 못해서 좌판을 못 퍼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국가정책위원회에서도 가장 중요한 이슈 중에 하나로 'happy child', 어떻게 하면 아이들이 엄마와 함께 행복한 삶을 살 수 있게끔 하면서 세상에 나아가서 직업인으로서 활약할 수 있을까, 그러한 시설과 국면을 어떻게 마련해줄까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여성문제 못지않게 중요한 이슈 중 하나는 지역과 서울의 구도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외국과 우리나라, 커다랗게 몇 개가 겹치는 경계의 문제가 미래의 중심과제로 앞으로 50년 동안 떠오를 것 같습니다. 중요하게 고민해야 할 문제 중에는 대형 사무실과 소규모 사무실의 격차도 있습니다. 몇 명 앉아있지 않지만 굉장히

진지하게 건축을 하고 있는 소규모 사무실을 어떻게 유지해 가게 하느냐 하는 것은 항상 화두입니다. 이러한 문제에 대해 '소형 건축사무실의 운영실태 및 생존전략'을 주제로 전영철 열린모임 참 건축사사무소 대표께서 토론해주시겠습니다.



전영철 : 제해성 소장님의 결론이 저하고 뜻이 같아서 정말 반가웠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 한국정책학회 학술대회에서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 시행과 과제'라는 주제로 발표를 했는데 가장 시급한 과제로 '건축서비스산업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건축진흥지도사를 위한 예산확보가 정말 필요하니 힘을 모아야 한다'는 것과

'서비스업무의 표준화와 대가의 표준화가 무엇보다도 절실하다'는 두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아주 시급한 과제로 말씀드렸는데 제해성 소장님께서 오늘 결론으로 말씀해주셔서 굉장히 반가웠습니다.

건축사 역사에서 과거 50년은 그래도 나은 편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1965년에 건축사제도가 생기면서 60년대 중반에서 90년대 중반까지 거의 한 30년간은 괜찮았거든요. 그래서 저 정도 세대 이상인 분들은 조그만 사업을 갖고 계시죠. 그 이후 90년대 중반에서 지금까지 20년은 거의 내리막길입니다. 그러면 미래 50년은 어떨까요? 밝을까요? 희망이 있을까요? 정말 희망을 찾기 위해서는 우선적인 과제를 하나씩 해결해나가는 지혜가 필요하고, 그런 것들이 모여야만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최근에 건축허가면적 그래프를 확인해보면 건축사사무소 숫자는 거의 비슷하고 건축허가면적은 해마다 그래도 약간씩 늘어나고 있는 현상입니다. 2012년도 통계를 기준으로 허가면적을 사무소개수로 나눠보면 한 사무소 당 평균 13,700㎡ 정도 됩니다. 이게 불황인가요? 여기 계신 분들 중 그 이상 하신 분들이 몇 분이나 되실지는 모르겠어요. 어찌됐든 통계상으로는 불경기가 아니고 호황이어야 하는데도 건설회사도 그렇고 건축사사무소도 그렇고 다 불경기라고 아우성치고 있습니다. 아까 제해성 소장님이 말씀하시기를 평균적으로 따졌을 때 건축사사무소 당 평균매출액이 5억6000만원이라고 하셔서 깜짝 놀랐습니다. 이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통계의 착시 현상입니다. 현실과 전혀 달라요. 전체를 가져다 이렇게 나눠보면 말이죠. 그래서 통계는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많이 달라집니다.

어쨌든 근본적인 원인은 국가경제를 위해서도, 건축발전을 위해서도 해소되어야 합니다. 그 원인이 바로 통계의 착시현상을 가리키는 부익부 빈익빈의 수리현상에 있습니다. 대형 설계사무소하고 소형 설계사무소의 편차가 너무 심하기 때문에 있습니다. 서울

건축사사무소의 절반 가까이가 1년에 허가를 한 건도 못했다고 합니다. 제가 전국적으로 살펴봐도 1년에 두 건 이하의 허가를 낸 건축사사무소가 60% 가까이 됩니다. 불황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불황의 고통을 받아야 하는 원인은 바로 무엇일까요. 근본적인 원인은 건축정책의 부재라고밖에 할 수 없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가장 큰 이유가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너무 낮은 설계대가고요, 수주경쟁에 따른 과도한 기회비용의 지출입니다. 현재 거래되고 있는 소형건축물 설계비가 22년 전과 거의 같은 수준, 아니 그보다 밑의 수준이라고 하면 믿을까요? 사실이거든요.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할 것은 정당한 업무수행을 하고, 그것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받는 것입니다. 맨 처음 말씀하신 윤혁경 이사님하고 같은 결론이기는 합니다만, 건축설계 계획안을 계약이나 대가 없이 수주할 욕심으로 제출하는 것은 정말 안 되는 데요, 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 아이디어를 무상으로 제공하는 바보 같은 짓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봉사하는 행동이거든요. 건축물은 불특정다수가 사용하기 때문에 공공성이 강조되는데, 우리가 덤핑을 했다고 해서 공공성을 해치는 설계업무를 해선 안 돼요. 그럼 책임을 져야 하고요. 확실하고 전문적인 업무수행을 위해서 정당한 대가를 받아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설계비, 감리비, 수주체계를 어떻게 해서든 바뀌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민간대가기준을 법제화해야 하고요. 이 대가기준만큼 정확히 받을 수 있는, 일할 수 있는 국민적 공감대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게 바로 소규모 건축물의 건축분쟁을 줄이고 국가경제에 이바지하는 길입니다. 또 건축발전을 위해서도 똑같은 논리입니다. 제 값 받고 제대로 설계하자는 문화를 조성해야 합니다. 거기에 우리 모두의 몫이 있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국내 건설사업 발주의 대형화입니다. 대부분의 사무소들이 수주물량 부족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생존을 위한 덤핑문제로 발전하게 됩니다. 특히 대형 아파트 단지로 발주되는 주택설계문제는 아주 심각합니다. 전국 건축물의 약 67%가 주택이기 때문에 이 문제는 정말로 심각합니다. 3,000세대를 1개로 발주하면 1개의 건설사, 1개의 설계사가 수주하지만 그것을 각각 발주하면 3,000개에 가까운 건설사, 설계사가 경쟁을 하게 되거든요. 이 문제는 좌우지간 우리가 다 같이 고민해야 하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이 시행되면서 일정규모 이상의 공공건축물에 대해서는 설계공모를 통한 발주를 의무화시켰습니다. 물론 기존 건축사들이 새롭게 시작되는 제도에 적응하려면 힘에 부치겠죠. 그렇지만 좋은 디자인을 하고 공간구성에 대한 결과물을 만들지 못하면 기존 건축사들이 도태된다는 위기의식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 스스로 실력을 갖춰야 하고 노력해야 하는 거죠. 그래서 실력이나 운으로 결정되는 입찰, 또는 지연·학연·혈연을 통해 수주하는 방법을 통해서 건축사의 자존심을 지키기도,

발전하기도 어렵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겪었던 모든 고통과 아픔을 우리 후배들한테 물려줄 수밖에 없는 것이죠.

또 민감한 얘기로 소형건축물 설계·감리 분리의 법제화, 이 문제는 따지고 보면 감리가 설계의 연속이라는 것이 우리 건축계의 정론입니다. 따라서 정론 하고는 맞지 않죠. 하지만 대한민국의 어쩔 수 없는 현실로 타협할 수밖에 없습니다. 전체 건축물 중에서 약 60%가 이미 설계와 감리가 분리되어 있습니다. 공공건축, 책임감리, 아파트, 공동주택 등 이런 것들을 보면 설계자 권리, 디자인감리부터 다 타자화 되어 있죠. 일부 소규모 건설업자들에 의한 위법행태가 심한 다세대, 다가구, 근린생활시설 등 소형 건축물에 대한 감독 강화방법으로 디자인감리와 공사감리를 건축사들한테 분리시키는 것은 대한민국의 어쩔 수 없는 현실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당분간은 그렇게 제도가 정리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그리고 나서 정착되면 원래대로 넘어가고요. 그래야지만 소규모 건축물에 대한 건축분쟁도 줄어들고 국민들의 피해 방지를 위한 방법으로도 확정될 것 같습니다.

대한건축사협회의 정관을 살펴보면 그 전에는 협회의 목적에 '회원의 권익보호와 친목도모'가 주된 용어였습니다. 그러다 2007년도에 어떻게 바뀌었냐면, '국민과 건축미래와 공익을 우선하고 회원을 위함에 있다'라고 바뀌었습니다. 건축사만을 위해서 법과 제도를 만들어가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근데 그런 법은 만들 수 없거든요. 국민과 공익을 위한다는 표현방식, 협회 정관에 나와 있는 목적, 이게 바로 우리가 건축사들의 생존전략입니다. 국민을 위한 법과 제도 속에서 건축사들의 역할을 찾는 것이 바로 현명한 법제 방향입니다. 그것을 잊지 말고 우리 건축사들의 활동이 지속됐으면 좋겠습니다.

박경립 : 다음은 최지희 기자님께 마이크를 넘기겠습니다.

최지희 : 제가 협회를 출입하면서 건축분야 취재를 시작한 건 2012년부터고, 그전에는 정부부처나 국회에 출입을 했기 때문에 제도 쪽으로는 좀 알고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취재를 통해서 느낀 것이, 제가 토목엔지니어링과 건축을 같이 하고 있는데, '아직 살아있지 못하다'는 뜻의 드라마 제목 '미생'처럼, 저는 여기 산업 전체가 미생 같다는 느낌이 들어요. 2012년에 딱 들어왔을 때 '정말 이렇게 어처구니없는 산업이 있구나' 하는 충격을 받았어요. 이 상태까지 끌고 올 동안 이 산업에 종사자들은 왜 아무 것도 하지 않았을까, 잘 이해가 안 됐죠. 그렇게 취재하다보니까 왜 그런지 대충 알 것 같긴 해요.

제가 방금까지 쓰다가 온 기사를 말씀드릴게요. 지난주 수요일부터 나가고 있는 기획기사가 있는데, 제목이 '침몰하는 엔지니어링 호'이예요. 지난 5월 23일에 건설기술진흥법이 시행됐는데 6개월

이 지난 시점에서 업체들에 어떤 효과가 있을까 검토를 해봤어요. 업체들 대부분의 대답이 이것 때문에 미치겠다는 것이예요. 죽기 일보 직전이라는 거죠. 왜 그런지 10부작으로 취재를 해서 지난주부터 나가고 있는데 지난주에 나간 게 ‘관피아법’이에요. 국토부랑 발주기관이 제도를 얼마나 교묘하게 만들어놨는지 관피아를 영입하지 않으면 절대로 수주하지 못하게 해놨더라고요.

그리고 다음이 ‘용역 평가제’인데, 이걸 좀 주의 깊게 들으셔야 돼요. 건축산업에도 비슷한 게 적용될 건데, 공공부문에서 수주하게 되면 전 사업에 대해서 발주기관이 해당 성과품에 평가를 내리는 거죠. 평가한 점수를 국토부가 합산한 다음에 상위 20% 내에서 90점이 넘는 업체한테 다음부터 참여하는 공공발주사업에 대해 PQ 가산점 2점을 부여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게임이 끝난 것이죠. 채점표를 봤더니 기가 막힌 게 17개 항목 중에 12개가 발주기관 응답에 얼마나 성실히 했는지를 물어보는 것이예요. 충실성이라는 단어가 정확하게 7번 사용됐고, 나머지가 성실성, 아이디어의 적극성, 응답의 즉각성인데, 평가의 기준도 모호하지만 다섯 개 등급 간 차이를 어떻게 평가했는지도 기준이 없어요. 사실상 발주기관의 노예가 된 거죠. 완전 노예계약서예요.

근데 이게 조만간 건축에도 들어오거든요. 엄청 큰 일이라고 생각해서 기사 쓰다가 왔어요. 지난주에 관피아 기사가 나갔을 때 국토부와 발주기관이 발각 뒤집혀서 전화가 많이 왔는데, 그만큼 전화가 많이 왔던 게 토목보다 건축산업 쪽이었어요. 그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우린 더 심각하다고, 토목은 비할 데가 아니라는 거죠. 어떤 분은 군 감리공사의 비리를 말씀해주시겠다고 자료를 갖고 다음 주에 오시겠다고요. 찾아보면 LH에서 철도시설공사까지 어마어마하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봤을 때 건축업계 사람들의 특성이 술자리에서는 다 얘기하시는데 막상 통계자료로 얘기하자고 하면 절대 안 가지고 오세요. 취재해놓고 못 쓴 기사가 되게 많아요.

제가 건축하시는 분들 앞에서 이런 건축관련 이야기를 하는 게 얼마나 우스워 보일까 싶어서 발제를 안 하려고 했는데, 앞으로 50년 관련해서 어떤 건축의 시대냐 물어본다면 표준계약서의 시대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정확하게 계약을 하고, 정확히 대가를 받고, 계약서가 없는 산업은 대한민국에 건축밖에 없다고 생각하는데, 책을 보면서 ‘계약서 없는 산업은 산업이 아니다, 그게 미생이지 어떻게 완생이 되겠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대한건축사협회에서 필요하다면 언론 쪽에서 최대한 도울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박경립 : 그동안의 관행들이 건축사들한테 너무 과중한 대가를 치르게 하는 것 같습니다. 좀 더 표준화되고 발전적인 계약시스템으로 돌아가야지 산업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말씀해주신 것 같습

니다. 바뀌는 새로운 제도라든지 법에 대해서 참여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국토부 관련된 분들도 계시니까 잘 관여해 주리라 봅니다. 한국건축정책학회 부회장님께 이렇게 복잡한 문제를 정책적으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부성 : 저는 1966년도에 서울에 왔고 50년 동안 우리나라가 이렇게 발전하고 변화한 걸 보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시장이 크게 변하고 있는 변혁기라고 생각하는데, 저 같은 경우도 아파트를 잘못 사서 하우스 푸어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에서 건축물, 건축산업이 크게 바뀌게 되는 신호탄 같아요. 거기에 어떻게 대응하는지가 중요할 것 같아요. 저는 건축에 대해 서비스, 시장이라는 개념을 갖고 살아왔고, 그런 면에서 건축이 과연 소비자, 수요자에게 얼마나 서비스를 잘하고 있나, 이런 것을 항상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간의 50년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60년대, 70년대, 80년대를 보면 당시에는 양적 공급을 했고 그래서 건축이 나쁘다는 말이 별로 없던 것 같아요. 80~90년대만 해도 아파트는 사람들이 선호하는 상품이었고 불만도 없었는데, 우리사회가 60년대에 비해서는 300배 이상 소득이 늘어난 만큼 국민소득이나 국가역량이 향상되면서 수요자의 요구들도 그만큼 높아졌죠. 그런 면에서 수요자가 요구하는 것과 건축산업에서 제공하는 건축서비스라는 게 상당부분 괴리가 있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런 괴리의 근원에는 양적으로만 빨리 공급하는 시스템을 아직까지 이어오면서 좋은 건축서비스를 못 하고 있는 배경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영철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3,000세대 이상 되는 아파트 같은 대형 발주보다 나은 주거서비스 할 수 있는 데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단독주택필지를 공급하지만 가격이 비싸고 주차장이라든지 안전 등 여러 가지 면에서 삶의 질이 상당히 안 좋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서비스 측면에서 봤을 때 아파트를 선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소형주거, 단독이나 연립, 빌라 등의 시장을 넓히려면 상당히 좋은 주거환경이 될 수 있도록 필지를 공급하는 방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손보지 않으면 사람들은 계속 아파트만을 사게 될 것입니다. 그 결과 대형건설업체, 대형 건축사무소만 생존하는 사회가 될 것이고, 그것은 전통시장, 백화점, 아울렛 이런 것들을 비교하면 명확하게 해석됩니다.

그렇다면 건축정책과 관련해서 앞으로 뭘 해야 할 것인가 생각해 보면 첫째, 저희가 제공하고 있는 건축서비스를 혁신시켜야 됩니다. 예를 들어, 세종시에 가면 정부청사도 있고 겉에서 보기에는 상당히 멋있는 건물이 있지만 막상 일하는 사람들은 상당히 불편하고 예전보다 못 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초창기에는 새집증후군 때문에 입주하지 못 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건축의 방향을 결정하는 공무원들에게조차도 좋은 서비스를 못 하고 있는 셈이죠.

주차장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밖에 소음 문제라든지 서비스 혁신을 해야 될 게 너무나 많습니다. 두 번째로는 건축이 제공하고 있는 가치와 성능을 소비자들이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어야 합니다. 자동차 같은 경우는 성능 같은 게 확인이 되는데 아파트라든지 건물에 대해서는 안 되고 있죠. 소비자 입장에서는 내가 구입한 건물이 가치가 있고 좋은 것인지 알 수가 없어요. 결국 성능이 아니라 가격만 가지고 비교해서 싼 것을 선택하게 되는 배경이 됩니다.

건축서비스의 신뢰성도 강화시켜야 되는데, 발주자나 건축주하고 언제까지 해주겠다는 약속을 하고서는 복잡한 여러 가지 일로 그 약속을 못 지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건축사의 전문성 강화도 매우 중요하다고 보는데, 대형 건축사사무소들이 많은 일을 독차지 하고 있다는 지점에 대해서는 의사와 비교할 수 있습니다. 일반의와 전문의를 보면, 누구나 아프면 전문의한테 가서 제대로 치료를 받고 수술을 하려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건축사들이 스스로 전문성을 어떻게 강화시킬 것인지 대책을 세워야 할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부 건축자재를 선정하거나 채택하는 과정에서 건축사가 배제되어 있는데, 이런 것들은 안전이나 여러 가지 이유로 반드시 건축사가 도와야 하고 또 이를 통해서 점점 더 전문성을 강화해야 합니다.

건축설계물을 좀 더 빠르고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건축의 문화적인 측면을 홍보하고 교육하고 의사소통하고, 수요자를 대상으로 한 건축의식 향상 운동도 상당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야 그 분들이 제값 내고 건축서비스를 받는다는 생각을 갖겠죠. 옛날 자판기커피냐 아니면 정말로 원두커피 제대로 먹느냐, 이런 것과 같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건축인들이 업무에 실용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서비스에 대한 보험제도를 만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실수를 했을 때는 보험서비스를 받아 처리하고 일정부분에 대해서는 책임도 져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 가지 액션을 취하려면 기금이란 게 필요한데, 건축진흥원 관련해서 받은 5억원 정도의 예산으로는 부족합니다. 따라서 비건축계와 네트워크를 만든다든지 해서 몇 십억원 정도의 기금을 조성하고, 위에서 말한 것을 지원해서 건축계가 리더십을 발휘하고 활동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박경립 : 발표자에게 마무리 발언할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손희준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쓰레기통 이론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좀 더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손희준 : 해답은 나와 있는 게 아닙니다. 얼마 전에 EBS에서 '강대국의 비밀'이라고 로마부터 네덜란드까지 보여주는 다큐를 했었는데, 키워드가 뭔지 행정학자들끼리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강대국이 되려면 결국 어떤 조직의 커뮤니티가 여러 가지 위기국면이 왔을 때 첫 번째가 개방성이고, 그리고 사실 더 중요한 게 두 번째가 포용력이 필요합니다. 세 번째가 동종번식을 하는 겁니다. 실질적으로는 이종번식을 해서 새로운 어떤 것을 만들어내는 창조성, 그게 대단히 중요한 키워드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인화라고 얘기합니다. 결국 문제는 사람이 해결하는 것입니다. 여기 계시는 여러분들이 충분히 공감하고 느끼셨기 때문에 우리나라 건축사의 미래는 좋고 밝다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박경립 : 다음 이상헌 교수님 말씀해주시죠.



이상현 : 여러 토론자들의 얘기 잘 들었고요, 다 공감하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토론을 듣고서 좀 답답한 마음이 생겼어요. 하나는 이런 이야기들이 과연 오늘 처음 나왔냐는 것이죠.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이런 이야기들이 제기되어 왔고, 보고서를 만들고, 연구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주장했던 문제들 역시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지금까지 개선되지 않았느냐, 안 되는 이유는 보다 근본적인 데에 있다는 것이거든요.

예를 들면 설계단계에서부터 제대로 된 대가를 받아야 하는데, 그런 문화가 정착되지 않는 이유가 있어요. 건축은 건설기술산업의 일부분이고, 건축설계 용역도 엔지니어링 용역과 동일하게 취급되고 동일한 기준에서 다루어지기 때문에 어찌 보면 당연한 결과입니다. 결국 근본적으로 기초와 주춧돌을 똑바로 놓아야지 지금 우리가 제기했던 여러 가지 문제들을 차근차근 꼬이지 않게 해결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건축계가 바뀌어야 하는데, 지금까지는 건축계가 매우 수동적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사회가 먼저 바뀌고 건축계는 수동적으로 따라왔는데, 그래도 지금까지는 큰 문제가 없었어요. 하지만 앞으로는 건축계가 먼저 변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서구사회에서도 건축전문직이 설계로 자리 잡고 어떤 의견이 확고한 역할을 하기까지 건축계의 구체적인 자기혁신의 노력이 있었습니다. 이제 우리에게도 그런 노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최지희 기자님이 현재 토목분야에서 발생하고 있는 문제들이 건축분야에서도 그래도 나타날 것이라 우려가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의 틀에서는 건축도 같은 상황에 편입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건축의 개념, 건축사로서의 개념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거기 덮여 있어요. '건축은 건축이다'라는 것을 선언하고 제도화하고 그리고 건축계가 뚝뚝 뭉쳐서 그 영역을 만들어가야 모든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박경립 : 최지희 기자님부터 마무리 말씀을 해주십시오. 지금까지 진단뿐 아니라 앞으로 어떻게 가야 될지 덕담을 해야 하는 시점인 것 같습니다.

최지희 : 덕담이라기보다는 일단 대한건축사협회에서 대가기준을 정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도와드릴 수 있는 부분은 도와드리고 내년에는 조금 더 새로운 이야기를 할 수 있는 협회가 되었으면 좋겠네요.

김현진 : 저는 발표해서 너무 즐거웠고, 제시간을 넘겨서 나중에 질문을 받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영철 : 일단 우리 협회 회원들, 건축사들이 변화해야 한다고 봅니다. 발전적이어야 되고 새로운 것을 스스로 터득할 수 있어야

하며, 변화도 스스로 해야 합니다. 그리고 최지희 기자께 하나 부탁드리고 싶은 건,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 12조 3항에 따르면 표준정관, 표준약관, 표준계약서를 만들어서 시행하면 공급자들은 무조건 따르도록 되어있는데 그것을 왜 안하느냐, 했으면 좋겠다는 식의 재촉성 기사가 나가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기대를 해봅니다.

강부성 : 최근에 건축사협회의 활동이 상당히 활발하고 긍정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 만들 때 김영수 회장님께서 많이 앞장서서 도와 주셨고, 유지·관리 관련해서 업역을 만들고 확대할 수 있게 된 것 등 건축사를 위한 것뿐만 아니고 국민들의 건축에 대한 행복지수와 삶의 질을 높이는 데 크게 기여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런 면에서 앞으로 남은 설계대가기준을 만드는 데에도 크게 영향을 발휘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구영민 : 말씀하신대로 건축사협회의 많은 변화 또는 행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 덕담은 건축을 다른 각도에서 즐기시기 바랍니다. 오늘 같은날 행정 쪽 이야기 재밌게 들었고 여러 가지 다른 각도에서 건축을 보시기 시작하면 건축의 가능성이 보인다고 저는 항상 믿고 있거든요. 그래서 다른 각도에서 보면 더 즐거운 건축을 올해에도 내년에도 즐기시기 바랍니다.

제해성 : 작년에 신입직원 10명 뽑았습니다. 6년동안 60명 조금 넘게 뽑았는데요, 모든 설계사무소에서 약 한 10,000개 쪼들잖아요. 1년에 1명씩은 뽑았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하기 위한 법제도 개선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박경립 : 대부분 현실을 차곡차곡 풀어나갈 수 있는 제도 개선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하셨어요. 그렇지만 우리끼리만 모여서 중요성을 이야기하면 더 이상의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우리들이 그렇게 공부 열심히 해가면서 중요하다고 이야기하는 건축과 건축문화는 세상 사람들도 진짜 그렇다고 인식하도록 하는 노력이 훨씬 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는 제도 개선과 법에 관여하는 것들을 수동적으로 할 게 아니라 진짜 해야 되는 일이라면 우리 모두가 앞장서야 될 것 같습니다. 건축은 없고 건설만 있었던 시대를 뒤돌아보면서 많은 이야기를 하지만 건설을 통해서 이 나라가 고도성장한 것은 사실입니다. 문제는 고도성장이라는 기조로는 앞으로 비전이 안 보인다는 것입니다. 지금부터는 건설이 아닌 건축이라는 개념으로 세상과 만나야 또 다른 성장의 동력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국민들에게도 정확히 알려야 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학교에서는 학문을 바로세우고 학문분야 체계분류부터 바꾸고, 그 다음 순서에는 건축을 어떻게 만들어갈 것인가 하는 것을 건축계에서 합의하고 동의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대한건축사협회 50년 중에 저도 반쯤은 직간접적으로 같이 함께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느꼈던 것은 여러분만이 노력했던 시대가 아니라는 것을 증언하고 싶습니다. 지금으로부터 거의 20년 전 여러분 선배들도 “우리가 겪었던 어려운 일들을 다음 세대한테는 물려주지 말아야 되지 않느냐”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분들이 정초부터 나와서 밤을 새고 내부개혁을 하겠다고 애썼던 모습이 기억납니다. 그들이 노력했듯 우리도 다시 한 번 힘을 모아 노력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이인제 위원께서 복원력 있는 역동성이 필요하다는 좋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건축학과에 진학했을 때, 건축사시험을 보고 건축사자격을 땀을 때, 건축사협회에 들어가서 활동을 시작할 때 가졌던, 우리뿐만 아니라 건축을 통해서 이 사회에 봉사하고 전문인으로서 자긍심을 갖고 사회와 함께하는 건축사가 되겠다고 맹세했던 그 시절의 힘을 다시 복원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힘들다고 해서 지난 50년이 무너지는 것은 아닙니다. 역사는 그대로 충충이 쌓여 다음 역사를 이룰 사람들의 기초가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저는 대한건축사협회 50년은 열심히 잘해왔다고 생각하고, 앞으로 더 잘 하기 위해서 이 자리도 마련된 것이라 봅니다.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걱정하고 건축사의 앞날을 걱정하는 한 우리에게 희망은 있습니다. 이제 우리도 국내에 안주하지 말고 세상으로 나아가 갈 때가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본인이 속해있는 집단·지역에 안주하지 마시고 세계로 나가서 그동안 쌓아온 역량을 발휘할 때 ‘대한민국에 건축은 있다’로 바뀌지 않을까 싶습니다.

진행자 : 방청객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의중 : 대한건축사협회 김의중 부회장입니다. 김현진 건축사께 한마디 여쭙보겠습니다. 사실 저는 지역이나 서울이나 같이 균형 발전을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했었는데 대부분 서울로 가기 때문에 지역의 건축사사무소가 고사하는 상황이라고 말씀을 하셔서 의외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지역의 건축사사무소, 더군다나 소형 건축사사무소들이 활성화되려면 어떤 것들이 필요한지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김현진 : 건방지게 들으실 수 있겠지만 설계를 잘하는 방법밖에 없는 거 같아요. 사실 제가 지은 이 집(신진건축사대상 수상작, 혼신지 집)은 60평밖에 안 되고 마을버스도 안 다니는 곳에 있어요. 그 집에서 얼마 전 오픈하우스를 했는데 전국에서 오셨더라고요. 서울에서 5시간 넘게 걸려서 보러 오셨더라고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어떤 정책을 만들어내는 것들은 제가 할 수 있는 게 아닌 거 같고, 저는 설계를 잘해서 감동적인 건물을 만드는 일을 하죠. 건축사 개인으로서 그게 제가 할 수 있는 방법인 거 같습니다. 저는 계속 지역에 있으면서 매일매일 좋은 건물을 만들고 싶고, 그 좋은 건물이 사람들에게 감동을 줄 수 있다면 학생들도 ‘서울로 안 올라가도 지역에도 좋은 건축이 있구나, 여기서 일하고 싶다’는 마음이 든다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진행자 : 모두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한국 건축 백년대계를 위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테너지 동탄연구소

TENERGY Dongtan Engine Laboratory



설계자 | 신춘규_KIRA/AIA | 씨지에스 건축사무소

씨지에스 건축사무소 대표로, 연세대학교 겸임교수를 비롯해 서울시 건축정책위원, 코이카 건축전문위원, 대한건축사협회 국제위원 등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다. 대표작으로는 아임삭 오창공장(2008 한국 건축문화대상 대통령상), 잠실 청호빌딩(2008 서울시건축상 본상),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국제현상설계 최우수상), 연세대학교 스포츠 센터(2012) 등이 있다.

· 설계팀 : 김유홍, 은동우, 최원후

· 전문기술협력

- 구조분야 : (주)프라임구조

- 전기분야 : (주)다우티이씨

- 유틸리티 : (주)호영엔지니어링

- 기계설비분야 : (주)대유엠이씨

- 소방분야 : 종우소방기술단

건축주 | (주)테너지

감리자 | 씨지에스 건축사무소

시공사 | 씨엘건설(주)

대지위치 | 경기도 화성시 동탄면 동탄산단10길 28

주요용도 | 교육연구시설, 연구소

대지면적(Site Area) | 7,507㎡

건축면적(Building Area) | 1,397.08㎡

연면적(Gross Floor Area) | 3,060.21㎡

건폐율(Building to land Ratio) | 18.61%

용적률(Floor Area Ratio) | 37.76%

규모(Building Scope) | 지하1층 ~ 지상3층

구조 | 철근콘크리트조 + 철골조

주요마감재 | 외부 : 수임산 외단열시스템

내부 : 고급 천연페인트, 투명 에폭시코팅

설계기간(Design period) | 2012. 11 ~ 2013. 04

공사기간(Construction period) | 2013. 06 ~ 2014. 03

사진(Photographer) | 박영채(Park, Young-chae)

Client | TENERGY

Architect | Shin, Chun-gyu

Project team | Kim, Yu-hong / Eun, Dong-woo/ Choi, Won-hoo

General Contractor | CIEL Construction Co. Ltd.

Location | 28, Dongtansandan 10-gil, Dongtan-myeon, Hwaseong-si, Gyeonggi-do, Korea

Structure | RC, Steel Frame

Structure Engineer | Prime Structure

HVAC Engineer | Dae Yoo MEC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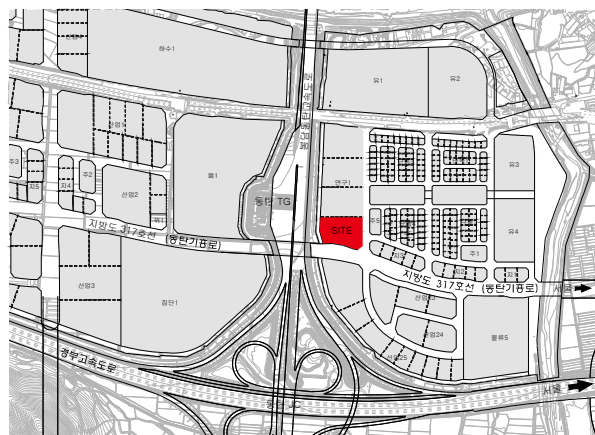
Electrical Engineer | Dawoo TEC

Fire Engineer | Jongwoo Fire Consultants

Utilities | Hoyoung Engineering Co.,Ltd

Finishing | EXT : Exterior Insulation & Finish System

INT : Advanced Natural Paint, Epoxy Coating



0 20 100 200m



동북측에서 바라본 야경

국내 최초의 민간 자동차 엔진 연구소인 테너지(TENERGY)의 사옥 겸 연구소를 설계하는 프로젝트로, 경부고속도로변에 개발되는 동탄의 산업단지로 부지를 결정하고, 산업단지 내에서 최종 대지를 선정하는 단계부터 참여하였다. 비교적 인지도가 높은 간선도로변을 선택하도록 자문하였고, 대지 매입 후 설계에 들어갔다.

처음 접하는 자동차 엔진 연구소는 다소 생소했지만 건축주의 배려로 테너지의 기존 연구소와 국내 굴지 기업의 자동차 엔진 연구소들을 방문한 후 기존 시스템에 건축주의 노하우를 접목하는 방식으로 설계를 진행할 수 있었다.

먼저 2단계 증축까지 수용할 수 있도록 배치계획을 수립한 뒤, 연구실과 엔진 실험실의 연계를 가장 중요시하고, 엔진실험실과 외부공간의 관계 또한 배려하여 평면을 계획하였다. 고속도로와 대로변에 동시에 접하고 있는 대지 특성상 배치와 평면에서 소음을 고려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 이슈가 되었다.

또한 입면을 중시한 건축주는 산업단지 내의 일반적인 외부 마감자재 및 형태를 피해줄 것을 당부하였는데, 이 요청은 건축사로서 처음부터 생각한 부분과 맞아 떨어졌다. 수입산 외단열 시스템을 통해 단순미를 강조하였고, 기능성을 최대한 살릴 수 있도록 채광 및 환기창을 계획하였다. 위험물 취급소로 분류되어 관련 규정 및 절차 때문에 공사기간 중 여러 난관이 있었지만 관할 소방서와의 협의 과정을 통해 원만히 해결한 후 지금의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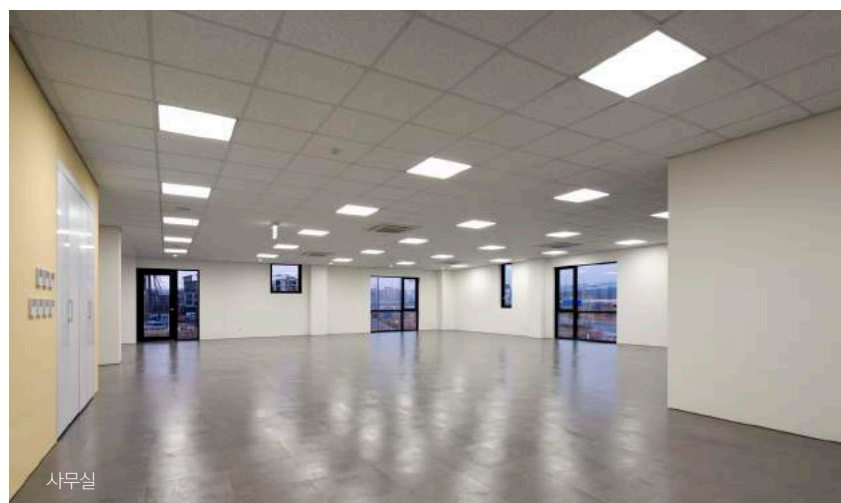
완공을 할 즈음, 수원이라는 탁월한 입지에 있는 기존 연구소에서부터 동탄에 신설된 연구소로 자진하여 근무지를 옮기고 싶다는 직원들의 요청이 생각보다 많으며 행복해하는 건축주의 모습이 보기 좋았다. 테너지가 동탄 연구소를 통해 제2의 도약을 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한다. ■



엔진제어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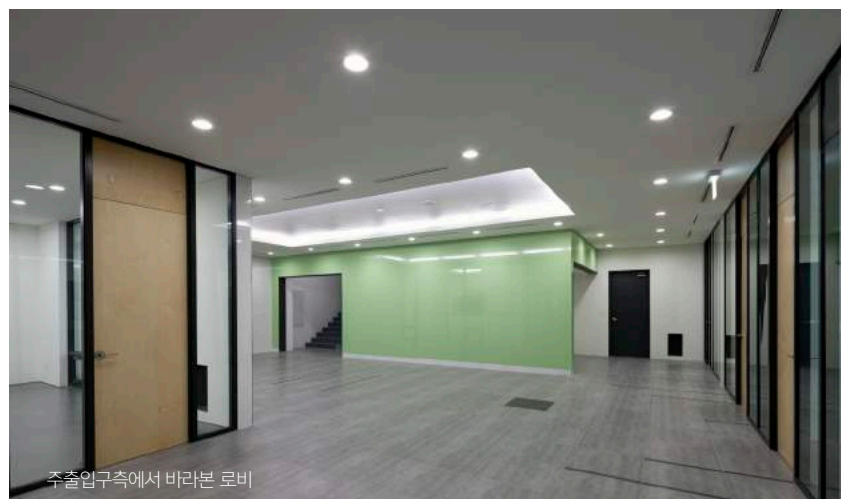
공조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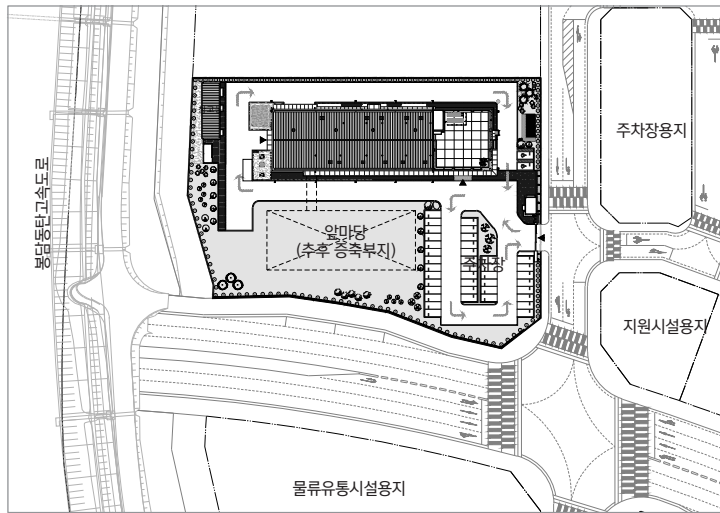
사무실



엔진제어실에서 바라본 엔진시험CEL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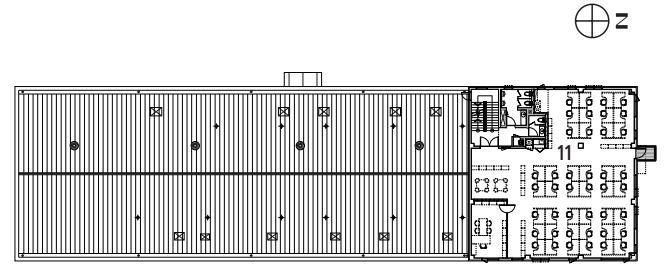
주출입구측에서 바라본 로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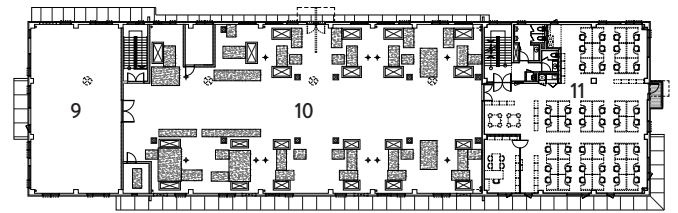
배치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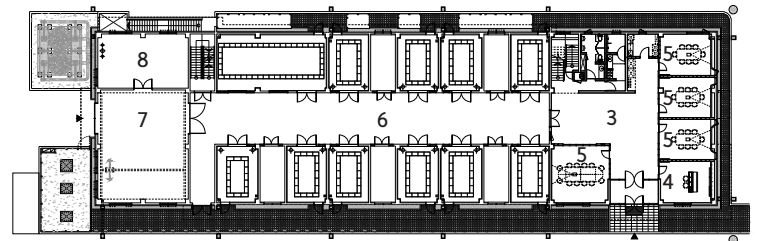
1. PIT
2. 물탱크실
3. 로비
4. 모니터룸
5. 회의실
6. 엔진제어실
7. 분해조립실
8. 창고
9. 전기실
10. 공조실
11. 사무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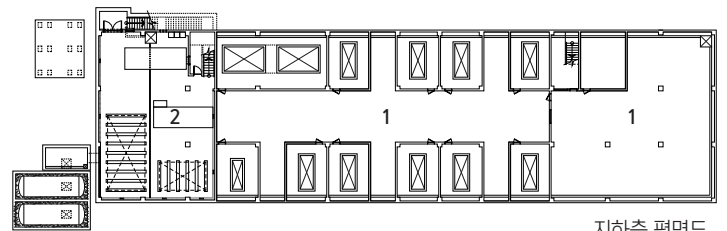
3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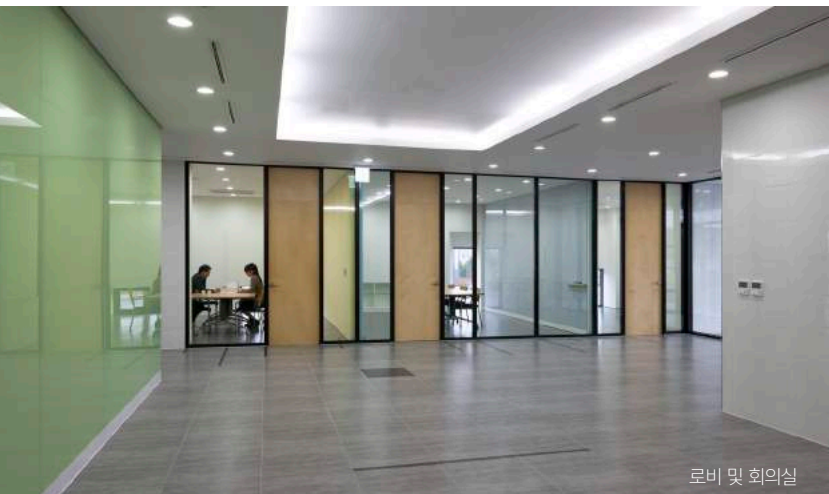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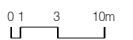
2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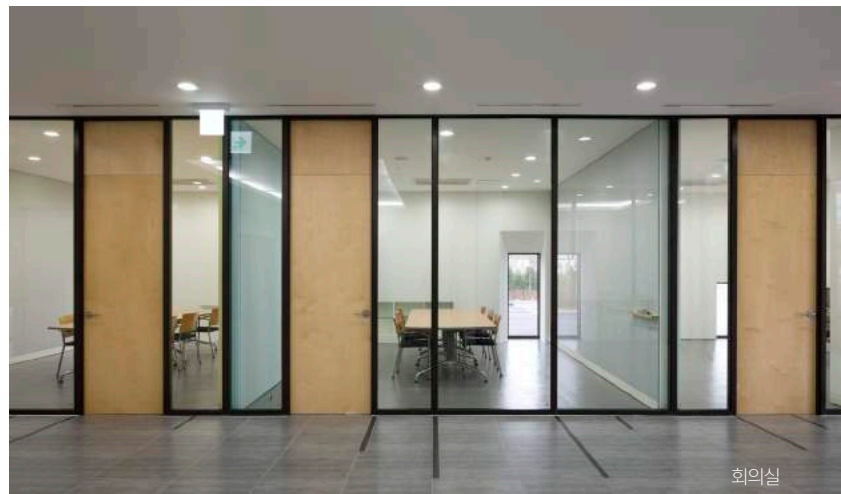
1층 평면도



지하층 평면도



로비 및 회의실



회의실



회의실 1



회의실 2



회의실 3



동측면도

북측면도



북서측에서 바라본 전체 야경



모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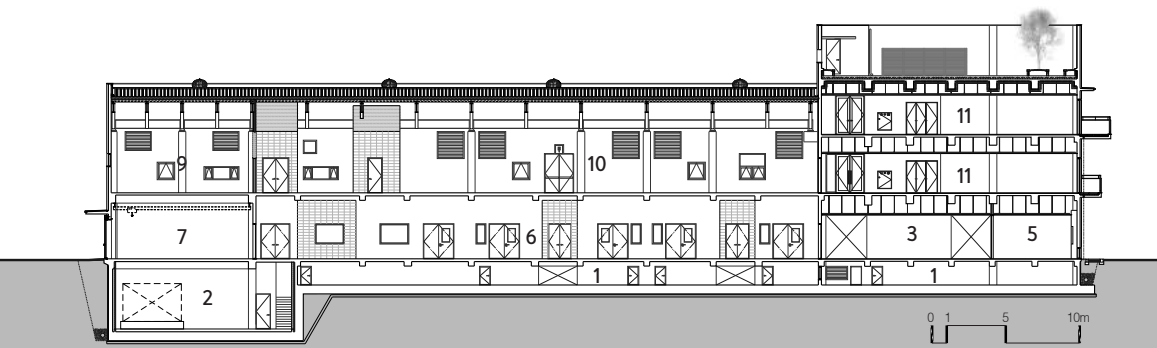


완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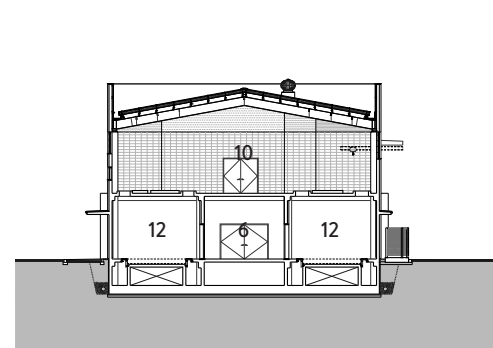


테너지 입주식

1.PIT 2.물탱크실 3.로비 5.회의실 6.엔진제어실 7.분해조립실 9.전기실 10.공조실 11.사무실 12.엔진 CELL



횡단면도



종단면도

정선 종합체육시설

Jeongseon Gymnasium



설계자 | 노형래 KIRA | (주)건정 종합건축사사무소

1984년부터 (주)건정 종합건축사사무소 대표이사를 맡고 있으며, 1989년부터 2005년까지 중앙대학교 겸임교수를 역임했다. 1993년부터 올해까지 '대한민국 올해의 건축가 100인 국제전'에 초대작가로 이름을 올렸으며, 현재 한국문화관광연구원 평가위원, 지식경제부 설계자문위원, 새만금개발청 설계자문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1998년 한국건축문화대상(현대예술관) 대통령표창을 수상한 바 있으며, 2000년부터 2005년까지 교육인적자원부, 환경부, 농림부장관 표창 등 다수의 수상 경력이 있다.

· 설계팀 : 고종준, 박진수, 조영채

· 전문기술협력

- 구조분야 : (주)한울구조안전 기술사사무소

- 기계설비분야 : (주)세익엠이씨

- 전기분야 : (주)도심전기

건축주 | 정선군청

감리자 | (주)선엔지니어링

시공사 | (주)계룡건설

대지위치 | 강원도 정선군 애산리 병곡 일원

주요용도 | 종합체육시설

대지면적(Site Area) | 178,206.00㎡

건축면적(Building Area) | 14,668.59㎡

연면적(Gross Floor Area) | 23,006.43㎡

건폐율(Building to land Ratio) | 8.23%

용적률(Floor Area Ratio) | 11.98%

규모(Building Scope) | 지하1층 ~ 지상3층

구조 | 철근콘크리트조+스페이스프레임 (막구조: 종합운동장)

주요마감재 | 콘크리트 제물치장, 알루미늄 복합패널, 칼라복층유리

설계기간(Design period) | 2007.8 ~ 2009.4

공사기간(Construction period) | 2009.1 ~ 2011.6

사진(Photographer) | 채수옥 (Chai, Soo-ok)

Client | Jeongseon County

Architect | Roh, Heung-rae

Project team | Ko, Jong-jun / Park, Jin-su / Jo, Young-chae

General Contractor | Kyeryong Construction

Location | Aesan-ri, Jeongseon-gun, Gangwon-do, Korea

Structure | Reinforced concrete, Space frame

Structure Engineer | Hanwool Structure Engineering

HVAC Engineer | Seik MEC

Electrical Engineer | Dosim Engineering

Fire Engineer | Seik MEC, Dosim Engineering

Utilities | Sports complex

Finishing | Concrete facing, Aluminium panel, Pair glas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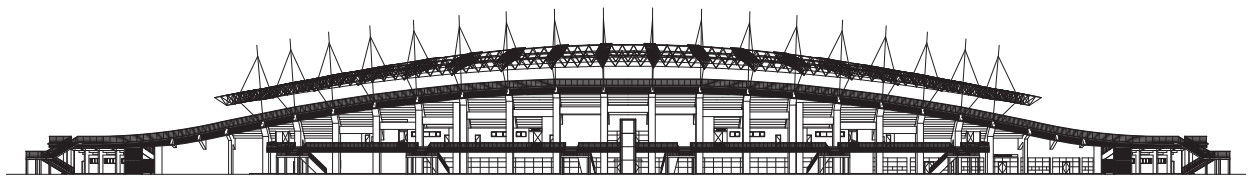
새롭게 들어서는 정선의 종합체육시설의 입지는 후면의 고양산과 전면의 조양강의 자연환경을 가지고 있으며, 좌측으로는 새롭게 조성되는 시가지와 연계를 고려해야 하는 부지다.

후면 고양산의 능선에 조화롭게 어울리고 전면 조양강으로는 열려 있으며, 좌측의 신시가지로는 대규모 오픈스페이스를 두어 인근주민들이 항상 이용할 수 있는 공원이 되도록 각 시설의 위치가 배려되어 있다.

고양산의 중첩된 능선처럼 보이는 부드러운 곡선의 경기장 관람석 캐노피 및 스탠드와 체육관 지붕 아래 서있는 나무들처럼 수직적 요소를 살리고, 사선기둥 및 투명한 유리커튼월 등의 요소와 리듬감 있게 처리한 입면구성은 정선이 갖고 있는 자연 속의 한 부분으로서 풍경이 되는 친환경 체육시설로 표출되었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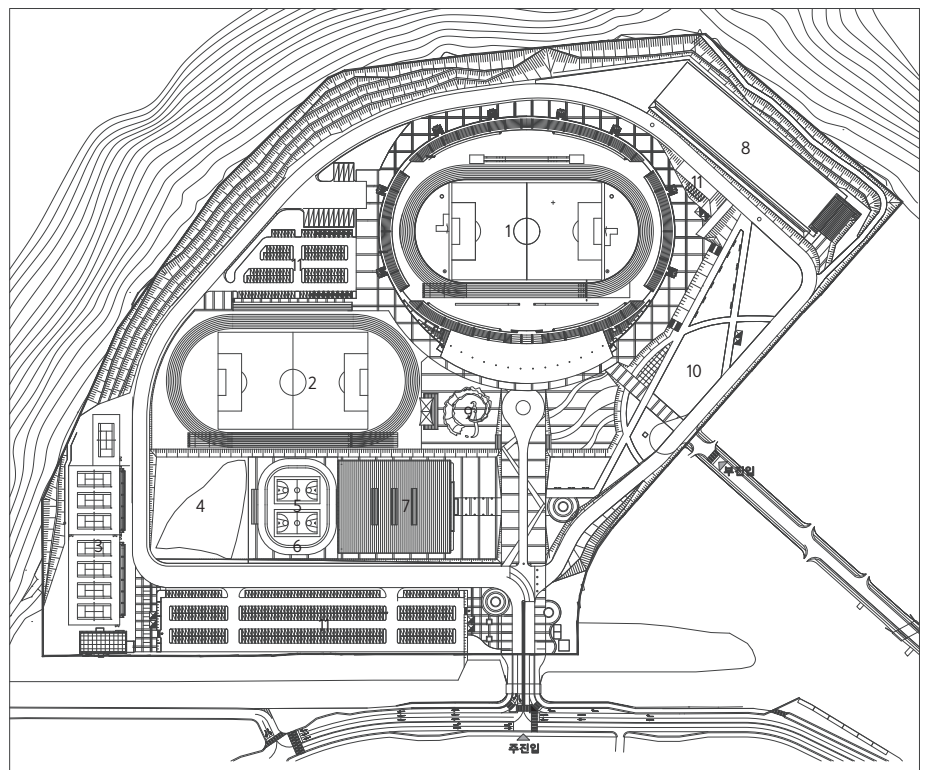






정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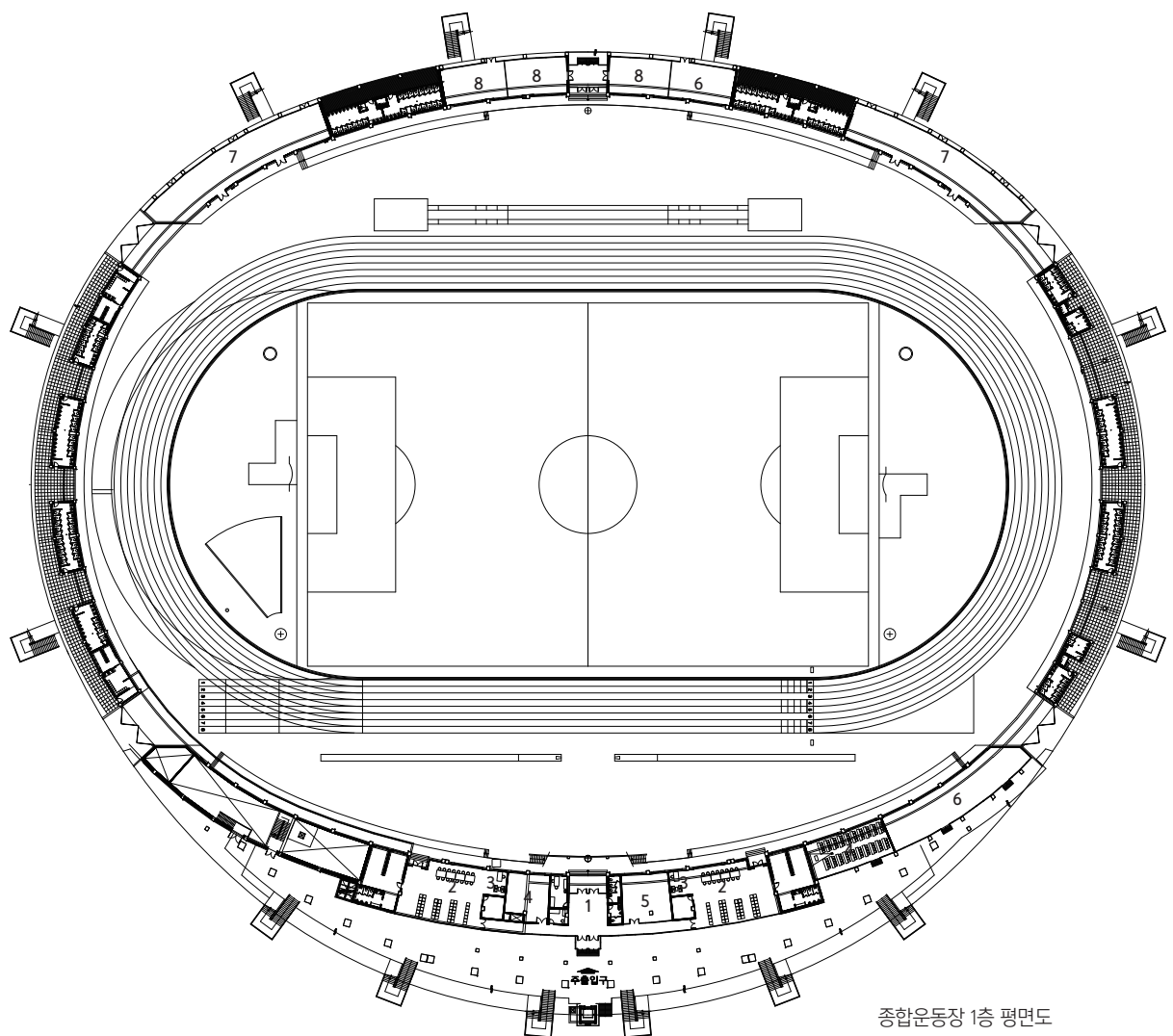
1. 주경기장
2. 보조경기장
3. 테니스장
4. 문화재광장
5. 농구장
6. 인라인트랙
7. 실내체육관
8. 궁도장
9. 이벤트 광장
10. 광장
11. 주차장



배치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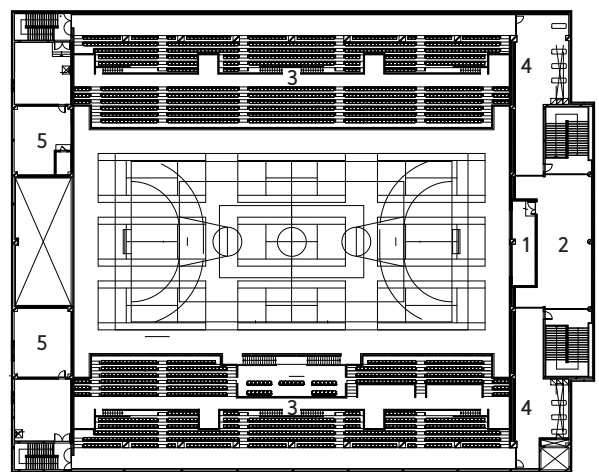
1. 홀
2. 선수대기실
3. 감독실
4. 중앙제어실
5. 운영사무실
6. 체력단련장
7. 창고
8. 예비실



종합운동장 1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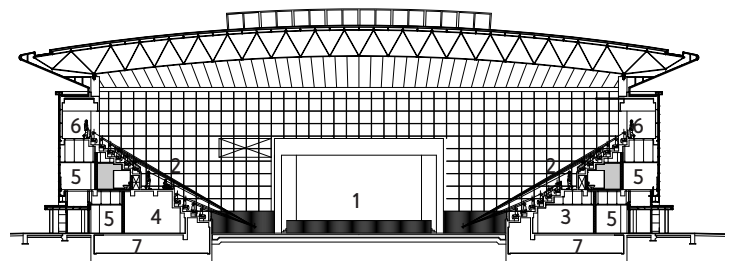


1.영사실 2.홀 3.관람석 4.휴게공간 5.실외기실



체육관 3층 평면도

1.무대 2.관람석 3.선수대기실 4.기구창고 5.복도 6.통로 7.PIT



체육관 종단면도

서울대 글로벌공학교육센터

Global Education Center for Engineers



설계자 | 최명철_KIRA | (주)단우건축사사무소

서울대학교 건축학과와 동 대학원을 졸업하고 서울건축에서 실무를 쌓았다. 1988년 이후 단우건축 대표로 있으며 서울대학교에서 '주거환경특론'을 가르치고 있다. 서울시 은평, 한남뉴타운 총괄기획과 국가 건축정책위원회 1기 위원을 역임하였다. 대표작으로 고속철도 대전통합역사, 도봉종합청사, 은평뉴타운 도시설계, 여수국제박람회 국가관,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융합의생명 교육연구관 등이 있다.



설계자 | 조성진 | (주)단우건축사사무소

목포대학교 건축학과와 동 대학원을 졸업하고 (주)단우 건축사사무소에서 실무를 쌓았다. 현재 목포대학교 건축학과에서 겸임교수로 활동하고 있으며, 주요작품으로는 강북구 체육센터, 건국대학교 산학협동관, 대전역사, 은평뉴타운, 마산 문예회관, 이천시청사 등이 있다.

· 설계팀 : 송창환

· 전문기술협력

- 구조분야 : (주)B.D ENG

- 전기·통신분야 : 신한전설

- 조경분야 : 이음조경

- 기계설비분야 : H&C기술사사무소

- 소방·설비분야 : 한아종합기술(주)

- 토목분야 : JACH엔지니어링

건축주 | 서울대학교

감리자 | 서울대학교

시공사 | 주영종합건설(주) 외

대지위치 | 서울특별시 관악구 관악로1 서울대학교 관악캠퍼스 내

지역지구 | 자연녹지지역 / 교육연구지구

주요용도 | 교육시설

대지면적(Site Area) | 4,042.5㎡

건축면적(Building Area) | 2,990.59㎡

연면적(Gross Floor Area) | 17,210.07㎡

건폐율(Building to land Ratio) | 73.98%

용적률(Floor Area Ratio) | 265.43%

규모(Building Scope) | 지상5층 ~ 지하2층

구조 | 철근콘크리트조 (부분포스텐션공법)

주요마감재 | 노출콘크리트, 컬러로이복층유리

설계기간(Design period) | 2009. 11. 23 ~ 2010. 03. 15

공사기간(Construction period) | 2010. 09. 10 ~ 2012. 12. 26

Client | Seoul National University

Architect | Tchoe, Myung-chul / Cho, Seong-jin

Project team | Song, Chang-hwan

General Contractor | Juyoung Construction

Location | 1 Gwanak-ro, Gwanak-gu, Seoul, Korea

Structure | Reinforced Concrete

Structure Engineer | B.D ENG co.,ltd.

Finishing | Exposed Concrete, Low-E Pair Glas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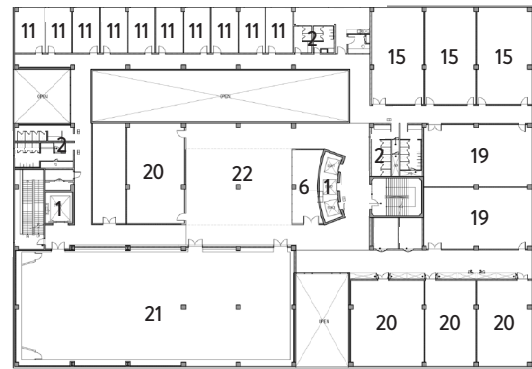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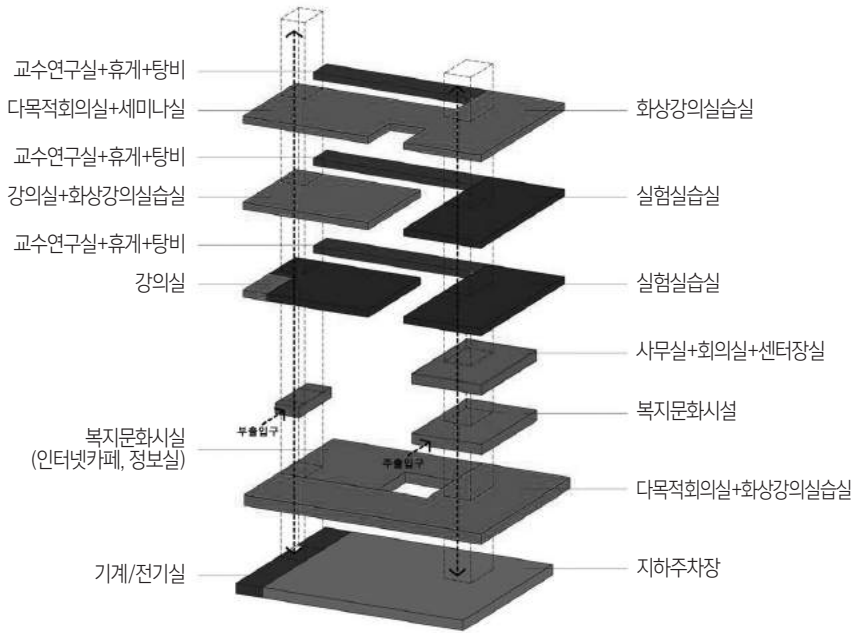
시작은 **Green Pixel**이었다. 신선하고 새롭고 활기찬 그린 픽셀. 세계는 미래에 대한 이슈로 자원의 효율적, 환경 친화적 이용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Digital화된 매체의 기본단위인 pixel은 IT의 가장 일반화된 표현수단이며, 얼마나 많은 수의 pixel이 집적되어 있느냐가 기술의 척도로 여겨진다. 효율적 에너지 사용이 지속가능한 건물(Green Growth-Eco well), 언제든 지 세계와 소통할 수 있고, 방대한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Pixel - IT well) 소통이 가능한 공간을 제안한다. 이 소통 가능한 공간은 자연과 정보를 품고 있으며, 그와 동시에 서울대학교 문화 축 끝에 위치한 장소성을 반영(Culture well)한다. 환경적으로 쾌적하며, 시대적으로 Contents가 있는 이곳은 첨단 공학에 대한 문화적 소통공간이다.

PIXEL COMPOSI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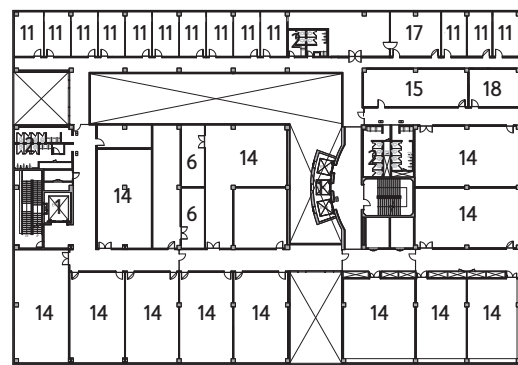
'세계화를 위한 열정'이라는 틀 안에 각각이 하나의 픽셀로 대체된다. 각각의

픽셀들은 그 안에서 공통의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과 그룹화 되어, 픽셀들이 모이고 흩어짐으로 여러 형태를 만들 듯이 외부로 향한 작은 픽셀형태의 창들이 세상을 향한 창으로 떠오르게 된다. 또한 각 픽셀은 관악산의 아름다운 산세와 주변의 경관을 그대로 비추어 하나하나의 액자가 된다. 강의동, 실험·실습동과 교수연구동의 공간 분할을 통해 불필요한 동선을 최소화했으며, 학생들의 이용 빈도가 높은 전면도로 측으로 강의동, 실험·실습동을 배치했다. 남측의 교수연구동은 6개실마다 탕비실을 두어 편리성 도모했다. 화상강의실습실을 지하층에 두어 접근의 용이성과 음향 및 영상의 최적화를 고려했다. 가변형 세미나실 또한 융통성 있는 공간 활용의 하나다. 외부 입면에서 고려한 것은 글로벌 공학센터만의 미래지향적 첨단이미지였다. 픽셀들이 모이고 그룹화되는 입면구성을 통해 다양한 이미지로 캠퍼스에 활기를 부여하고자 했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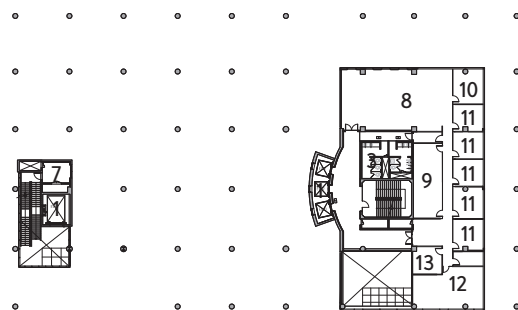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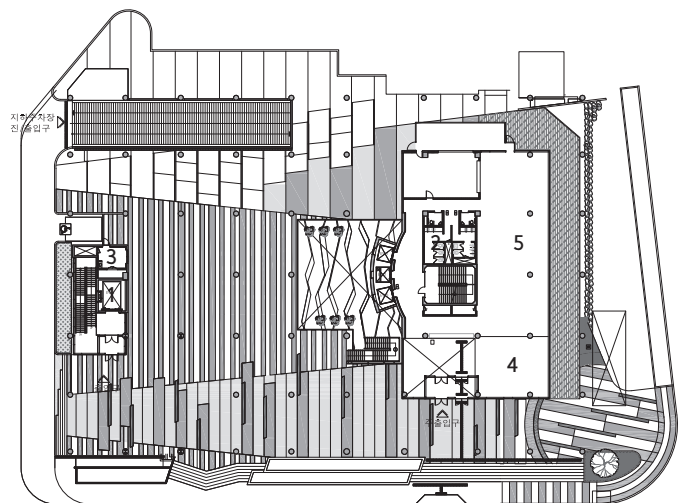
5층 평면도



3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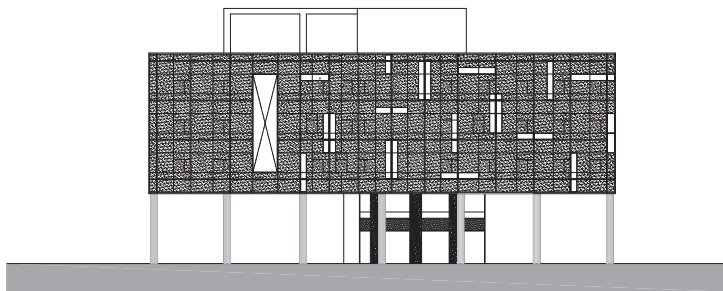
2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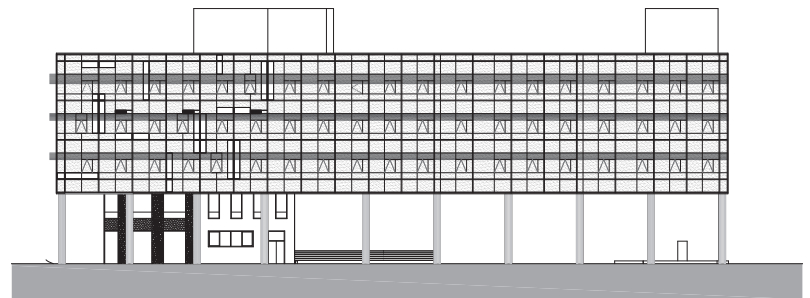
1층 평면도

- | | |
|-----------|------------|
| 1. 엘리베이터 | 12. 센터장실 |
| 2. 화장실 | 13. 스튜디오 |
| 3. 관리실 | 14. 실습실험실 |
| 4. 로비/라운지 | 15. 강의실 |
| 5. 카페테리아 | 16. 학과사무실 |
| 6. 창고 | 17. 교수회의실 |
| 7. 숙직실 | 18. 학부룸 |
| 8. 사무실 | 19. 화상강의실 |
| 9. 대회의실 | 20. 세미나실 |
| 10. 소회의실 | 21. 다목적회의실 |
| 11. 교수연구실 | 22. 포이어 홀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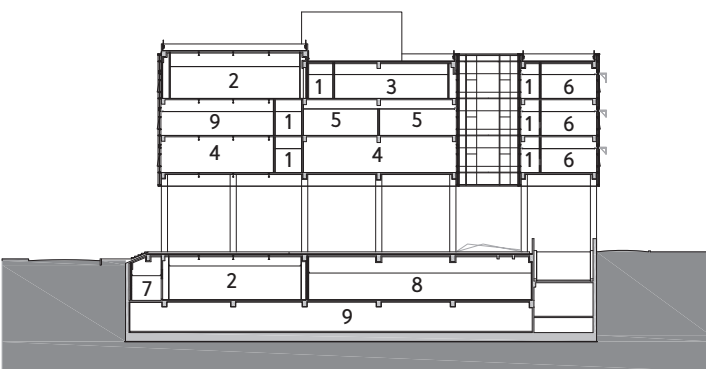


동측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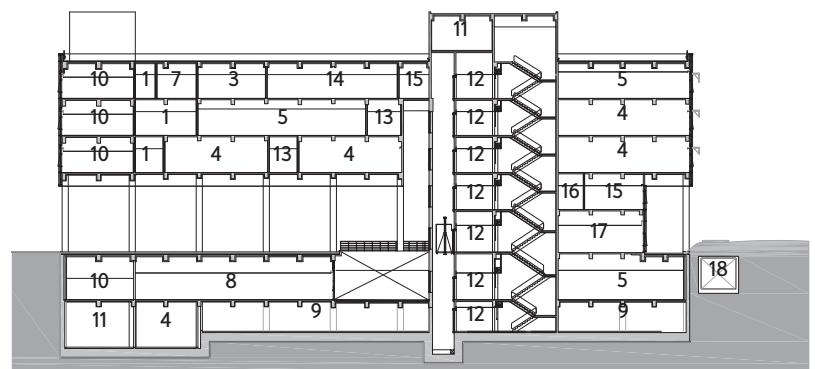


남측면도

- 1.복도 2.다목적회의실 3.세미나실 4.실험실습실 5.화상강의실 6.교수연구실 7.준비실 8.근린생활시설 9.주차장
10.화장실 11.기계실 12.엘레베이터 홀 13.창고 14.포이어 15.회의실 16.탕비실 17.카페테리아 18.정화조 19.다목적강의실



종단면도



횡단면도

글. 김재한 Kim, Jae-hwan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

법정지상권

Statutory superficies



서울대 법대, 동 대학원 법학과를 졸업하였고, 미국 워싱턴주립대 Law School로 연수를 다녀왔다. 제32회 사법시험, 제34회 행정고시(재경직)에 합격하여 사법연수원을 제22기로 수료한 후 1993년부터 인천지방법원을 시작으로 서울가정법원, 영등지원, 홍성지원, 서울중앙지방법원, 서울고등법원 등지에서 판사로 재직하였다. 이후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거쳐 대전지방법원, 수원지방법원, 서울북부지방법원 등지에서 부장판사로 재직하였으며, 겸임으로 육천군, 보령시, 대덕군 등지의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과 언론중재위원회 경기중재부장을 역임하였고, 2014년 법관직을 사직하고 법무법인 바른의 파트너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다.

민사·형사·가사·행정·조세에 관한 다수의 논문을 발표하였고, 형사소송 전문가로서 <2013년 형사소송법(법문사)>와 <국민참여재판-이론과 실제-(베리북스)>를 출간한 바 있다.

민법 제305조 제1항 전문에서는 “대지와 건물이 동일한 소유자에 속한 경우에 건물에 전세권을 설정한 때에는 그 대지소유권의 특별승계인은 전세권설정자에 대하여 지상권을 설정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제366조 전문에서는 “저당물의 경매로 인하여 토지와 그 지상건물이 다른 소유자에 속한 경우에는 토지소유자는 건물소유자에 대하여 지상권을 설정한 것으로 본다.”고 법정지상권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이 명문으로 법정되어 있는 두 가지 경우 외에도 판례는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개념을 인정하여 “동일인의 소유에 속하였던 토지와 건물이 매매, 증여, 강제경매, 국세징수법에 의한 공매 등으로 그 소유권자를 달리하게 된 경우에 그 건물을 철거한다는 특약이 없는 한 건물소유자는 그 건물의 소유를 위하여 그 부지에 관하여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을 취득하는 것이고 그 건물은 건물로서의 요건을 갖추고 있는 이상 무허가건물이거나 미등기건물이거나를 가리지 않는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대법원 1988. 4. 12. 선고 87다카2404 판결 등 참조).

다만, 건물 철거의 합의가 관습상 법정지상권 발생의 소극적 요건이 되는 이유는 그러한 합의가 없을 때라야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진 후에도 건물 소유자로 하여금 그 건물의 소유를 위하여 토지를 계속 사용케 하려는 묵시적 합의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는 데 있다. 한편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은 타인의 토지 위에 건물을 소유하는 것을 본질적 내용으로 하는 권리가 아니라, 건물의 소유를 위하여 타인의 토지를 사용하는 것을 본질적 내용으로 하는 권리여서, 위에서 말하는 ‘묵시적 합의’라는 당사자의 추정 의사는 건물의 소유를 위하여 ‘토지를 계속 사용한다’는 데 중점이 있는 의사라 할 것이므로, 건물 철거의 합의에 위와 같은 묵시적 합의를 깨뜨리는 효력, 즉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의 발생을 배제하는 효력을 인정할 수 있으려면, 단지 형식적으로 건물을 철거한다는 내용만이 아니라 건물을 철거함으로써 토지의 계속 사용을 그만두고자 하는 당사자의 의사가 그 합의에 의하여 인정될 수 있어야 한다(대법원 1999. 12. 10. 선고 98다58467 판결 등 참조).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이 성립되기 위하여는 토지와 건물 중 어느 하나가 처분될 당시에 토지와 그 지상건물이 동일인의 소유에 속하였으면 족하고 원시적으로 동일인의 소유였을 필요는 없고(대법원 2012. 10. 18. 선고 2010다5214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건물 소유를 위하여 법정지상권을 취득한 자로부터 경매에 의하여 그 건물의 소유권을 이전받은 경락인은 경락 후 건물을 철거한다는 등의 매각조건하에서 경매되는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건물의 경락취득과 함께 위 지상권도 당연히 취득한다(대법원 1985. 2. 26. 선고 84다카1578, 1579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는 압류, 가압류나 체납처분압류 등 처분제한의 등기가 된 건물에 관하여 그에 저촉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람이 건물의 소유자로서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을 취득한 후 경매 또는 공매절차에서 건물이 매각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대법원 2014. 9. 4. 선고 2011다13463 판결 참조).

그런데, 토지공유자의 한 사람이 다른 공유자의 지분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건물을 건축하는 경우가 있고, 이러한 경우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진다면, 해당 토지에 관하여 앞서 언급한 논리 대로 관습법상의 법정지

상권이 성립될 수 있는 것인지 여부가 문제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에도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이 성립되는 것으로 보게 되면 이는 토지공유자의 1인으로 하여금 자신의 지분을 제외한 다른 공유자의 지분에 대하여서까지 지상권설정의 처분 행위를 허용하는 셈이 되어 부당하다. 그리고 이러한 법리는 민법 제366조의 법정지상권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고, 나아가 토지와 건물 모두가 각각 공유에 속한 경우에 토지에 관한 공유자 일부의 지분만을 목적으로 하는 근저당권이 설정되었다가 경매로 인하여 그 지분을 제3자가 취득하게 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대법원 2014. 9. 4. 선고 2011다73038 판결 참조).

다만, 이와 달리 공유로 등기된 토지의 소유관계가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공유자 중 1인이 소유하고 있는 건물과 그 대지는 다른 공유자와의 내부관계에 있어서는 그 공유자의 단독소유로 되었다 할 것이므로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공유자가 그 건물 또는 토지지분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였다가 그 후 저당권의 실행으로 소유자가 달라지게 되면 건물 소유자는 그 건물의 소유를 위한 법정지상권을 취득하게 되며, 이는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 있는 토지의 공유자들이 그 토지 위에 각자 독자적으로 별개의 건물을 소유하면서 그 토지 전체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였다가 그 저당권의 실행으로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지게 된 경우에도 마찬가지라 할 것이다(대법원 2004. 6. 11. 선고 2004다13533 판결 참조).

한편, 판례는 “동일인의 소유에 속하는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에 관하여 공동저당권이 설정된 후 그 지상 건물이 철거되고 새로 건물이 신축된 경우에는 그 신축건물의 소유자가 토지의 소유자와 동일하고 토지의 저당권자에게 신축건물에 관하여 토지의 저당권과 동일한 순위의 공동저당권을 설정해 주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저당물의 경매로 인하여 토지와 그 신축건물이 다른 소유자에 속하게 되더라도 그 신축건물을 위한 법정지상권은 성립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대법원 2003. 12. 18. 선고 98다43601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그 이유는 동일인의 소유에 속하는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에 관하여 공동저당권이 설정된 경우에는, 처음부터 지상 건물로 인하여 토지의 이용이 제한 받는 것을 용인하고 토지에 대하여만 저당권을 설정하여 법정지상권의 가치만큼 감소된 토지의 교환가치를 담보로 취득한 경우와는 달리, 공동저당권자는 토지 및 건물 각각의 교환가치 전부를 담보로 취득한 것으로서, 저당권의 목적이 된 건물이 그대로 존속하는 이상은 건물을 위한 법정지상권이 성립해도 그로 인하여 토지의 교환가치에서 제외된 법정지상권의 가액 상당 가치는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는 건물의 교환가치에서 되찾을 수 있다.

궁극적으로 토지에 관하여 아무런 제한이 없는 나대지로서의 교환가치 전체를 실현시킬 수 있다고 기대하지만, 건물이 철거된 후 신축된 건물에 토지와 동순위의 공동저당권이 설정되지 아니 하였는데도 그 신축건물을 위한 법정지상권이 성립한다고 해석하게 되면, 공동저당권자가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는 신축건물의 교환가치를 취득할 수 없게 되는 결과 법정지상권의 가액 상당 가치를 되찾을 길이 막혀 위와 같이 당초 나대지로서의 토지의 교환가치 전체를 기대하여 담보를 취득한 공동저당권자에게 불측의 손해를 입게 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법리는 집합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 전유부분과 대지 지분에 관하여 공동저당권이 설정된 후 그 지상 집합건물이 철거되고 새로운 집합건물이 신축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2014. 9. 4. 선고 2011다73038 판결 참조).

따라서 이때 특별한 영향을 받는 구분소유자란, ‘공용부분의 변경으로 인하여 다른 구분소유자는 받지 않는 불이익을 차별적으로 받게 되는 자’를 말한다고 할 것이므로, 공용부분의 변경에 필요한 공사비용 등을 구분소유자들이 지분별로 분담하는 경우와 같이 공용부분의 변경이 모든 구분소유자에게 동일하게 영향을 미치는 경우는 여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14. 9. 4. 선고 2013두25955 판결 참조). ▮

글. 이관석 Lee, Kwan-seok

경희대학교 건축학과 교수

르코르뷔지에

Le Corbusier

건축 전공자라면 르코르뷔지에(Le Corbusier)에 대해 조금씩은 안다. 현대건축에 끼친 영향력이 큰 만큼 그의 건축 철학과 작품은 어느 건축사 못지않게 자세히 소개됐다. 그럼에도 아직도 많은 연구자들이 르코르뷔지에를 주목하는 것은 사회·예술·문화 전반을 탁월한 통찰력으로 거침없이 더듬은 그의 예민한 촉수가 여전히 수많은 향방을 가리키고 있으며, 더듬어 따라가 각각의 종착점에 도착했다고 안도할라치면 또 다시 예상치 못한 길목에 들어서 있는 자신을 발견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마르지 않는 샘물처럼 솟는 르코르뷔지에 건축의 생명력 앞에서 그의 사망 후 50년이라는 시간이 무색해진다.

프랭크 로이드 라이트(Frank Lloyd Wright)와 미스 반 데어 로에(Mies van der Rohe)에 이은 이번 르코르뷔지에 연재에서는 그동안 그에 대해 알려진 것들에서 약간 다른 면이나 아직까지 언급되지 않았던 면을 다루고자 한다. 필자가 지난 몇 년 간 학술논문

이나 저서 등에서 살폈던 내용들인데, 이번 기회에 건축 일선에서 실무를 수행하며 현실적으로 이런 연구를 접하기 쉽지 않은 건축사분들에게 르코르뷔지에의 또 다른 일면을 소개함으로써 그에 대한 이해를 도모하고 필요한 교훈과 깨달음을 나눴으면 하는 바람을 담고 있다.

르코르뷔지에와 떼려야 뗄 수 없는 기계에 대한 그의 진정한 자세가 어땠는지, 다소 엉뚱하지만 직접 건축교육에 참여해본 적이 없는 그의 건축교육에 대한 생각이 어땠을지, 불황 때문에 일거리라곤 없다시피 했던 10여 년의 무시무시한 공백기를 그가 어떻게 견디며 내일을 기약했는지, 스치는 우연한 만남을 필연으로 바꾼 그의 인연이 그를 어떻게 성장시키고 어떤 의미가 있었는지, 마지막으로 그가 말하는 건축이 무엇인지를 함께 생각해보고자 한다.



한양대학교 건축학과를 졸업하고 프랑스 파리벨빌건축대학에서 프랑스건축사 학위를, 파리대학교에서 예술사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한남대학교를 거쳐 현재는 경희대학교 교수로 재직 중이다. <빛을 따라 건축적 산책을 떠나다>(2004)와 <건축, 르코르뷔지에의 정의>(2011) 등의 저서를 비롯해 역서 <건축을 향하여>(2002), <프레시지움>(2004), <오늘날의 장식예술>(2007) 등 십여 권의 책을 발간했다.

연재 목차

1. 르코르뷔지에와 기계
2. 르코르뷔지에와 건축교육(上)
3. 르코르뷔지에와 건축교육(下)
4. 르코르뷔지에의 '지속연구'
5. 르코르뷔지에의 인연
6. 르코르뷔지에의 건축 정의

5. 르코르뷔지에의 인연

인간은 한평생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을 접촉하게 되는데, 그 만남은 대부분 우연적이다. 르코르뷔지에는 저서 등을 통해 자신이 성숙해나가는 데 도움이 됐던, 살아가면서 여러 곳에서 만난 귀한 인연들을 언급하고 있다. 청탁을 노린 계산된 접근이 아니라 진정성 있는 마음 간의 조우로, 당시에는 우연처럼까지 보이는 작은 사건이 시간이 지나면서 큰 결실을 맺는 유익한 만남을 거듭 누린 것이다.

르코르뷔지에가 거장이 된 이후에는 국제적인 거물들을 만나는 것이 어렵지 않았겠지만, 무명시절에 그가 만났던 이들 중에도 중요인사들이 즐비한 것은 경이롭기까지 하다. 찾아가 만난 경우도 있었지만 우연한 만남도 적지 않았다. 르코르뷔지에는 작정한 만남이든 그렇지 않은 만남이든 스치는 인연을 필연으로 바꾸는 능력이 특출했던 것 같다. 그가 최고의 건축사로 일어서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한, 우연을 필연으로 바꾼 비범한 재능을 그의 인간 관계를 통해 정리해보자.

가족과 친구

사람이 부모를 자기 마음대로 선택할 수 없다는 점에서 가족과의 만남도 우연이다. 르코르뷔지에가 부모로부터 받은 영향은 이미 여러 곳에 소개돼 있다. 피아니스트이자 음악교사였던 어머니의 예술적 소양과 굳건한 기질, 그가 태어난 쥐라(Jura) 산맥의 웅장함이 배경이 된 아버지의 자연에 대한 열정이 그에게 그대로 전해졌다. 르코르뷔지에가 레만 호숫가에 설계한 작은 집(La Petite Maison, Corseaux, 1923-1924)에서 36년 동안 거주하며 100세 장수를 누린 모친의 91세 생신 때 모친의 얼굴을 그리고 그 옆에 남

긴 “태양·달·산·호수와 가정 위에 군림하면서도 자식들에게는 다정하신, 많은 이들이 탄복하는 눈길로 바라보는 91세의 마리 샤를로트 아멜리 장느레 페레(Marie Charlotte Amélie Jeanneret-Perret)”라는 메모는 모친을 향한 그의 깊은 애정과 존경심을 보여준다.¹⁾ 젊었을 때부터 동생이 파리에 설계했고 지금은 르코르뷔지에 재단(Fondation Le Corbusier)으로 사용되고 있는 장느레 주택(Villa Jeanneret, 1923-1925)에 살았고, 모친이 돌아가신 후에는 역시 동생이 부모님을 위해 지은 작은 집에서 여생을 보냈던 작곡가이자 바이올린 연주자인 한 살 터울의 형 알베르 장느레(Albert Jeanneret, 1886-1973)의 음악적 재능도 늘 르코르뷔지에 가까이 있었다.



두 살 때의 르코르뷔지에 가족사진, 1889년

르코르뷔지에는 1922년부터 14세 연하의 이본느 갈리(Yvonne Gallis)와 교제했는데, 파리로 이주한 지 13년이 지난 1930년 43세의 늦은 나이에 그녀와 결혼하며 프랑스로 귀화했다. 자식을 남기지 않은 그가 결혼했다는 사실조차 모르는 사람이 많다. 패션모델이자 재단사로서 솔직하고 순수한 성격의 갈리는 르코르뷔지에에게 “따뜻한 마음과 의지, 순결함과 단정함을 지닌 고상한 여인”이었다. 1957년 아내가 56세의 나이로 사망하자 “36년 동안 내 따뜻한 가정을 지킨 수호천사”라며 그리워했다. 1952년 병에 시달리는 아내를 위해 아내의 고향인 지중해변의 마을 로크브뤼 캅

1) Le Corbusier, 『작은 집』, 이관석 역, 열화당, 2012, 80-81쪽. 1959년 6월 7일 르코르뷔지에는 곧 100세가 되는 모친에게 “100세가 되신 나의 자그마한 어머니, 이들은 늘 당신 생각을 합니다. 계속 건강하시길”이라는 다정한 편지를 보냈다.

마르탱(Roquebrune Cap-Martin)에 작은 오두막(Petit Cabanon, 1951-1952)을 마련하기도 했다. 르코르뷔지에는 아내가 죽자 지중해가 보이는 언덕에 위치한 공동묘지에 아내를 묻었고, 후일 자신도 사망 후 그 옆에 누웠다. 그는 로코브뤼 캅마르탱 시장에게 지중해 지방을 너무나 사랑한 아내의 존재를 알리고 기념하기 위해 기부금을 보내면서 자신이 디자인한 묘소에 꽃이 있으면 안 된다고 부탁했다.



르코르뷔지에는 묘비

르코르뷔지에는보다 아홉 살 아래인 사촌 동생 피에르 장느레(Pierre Jeanneret, 1896-1967)는 르코르뷔지에는의 건축 경력에 빼놓을 수 없는 인물이다. 피에르는 1922년 르코르뷔지에는가 설계사무실을 개설했을 때부터 함께 작업했는데, 1940년 독일의 프랑스 침공 때 레지스탕스 운동에 참여코자 스위스로 떠나면서 헤어졌다가, 1950년 인도 찬디가르 주정부 청사들을 포함한 도시계획을 위임받았을 때 르코르뷔지에는의 부탁으로 다시 합류했다. 재학 시 건축·조각·회화 세 전공 모두에서 수석을 한 뛰어난 능력과 열정을 지닌 피에르는 르코르뷔지에는의 창의적 아이디어를 기술 혁신에 유익하며 실용적으로 풀어 구체적 해결책을 찾아냈다. 피에르가 없었다면 1920·30년대 르코르뷔지에는의 작품들과 1950년대 인도에서의 많은 작품들이 존재할 수 있었을까 싶을 정도로 피에르는 르코르뷔지에는의 아이디어를 성공적으로 구체화시켰다.²⁾

1907년의 첫 여행을 함께 떠났던 페르랭(Léon Perrin)과 1911년 동방여행을 함께 한 클립슈타인(August Klipstein)처럼 르코르뷔지에는의 학창시절 몇몇 친구들과의 교분도 지속됐다. 그중 ‘돔이노(Dom-ino)’ 구조체계를 함께 창안했고 후일 파리에서의 첫 사업도 함께 했던 막스 뒤부아(Max du Bois)와의 관계가 가장 돋보인다. 둘 중 한 사람만 있었다면 정리되기 쉽지 않았을 이 새로운 구조체계가 이후 그의 건축에 끼친 막대한 영향 때문이다. 건축학교를 다니지 않은 탓에 건축구조를 독학해야 했던 르코르뷔지에는 기존의 앙네비크(Hennebique) 구조체계를 보완하면 얻을 수 있는 엄청난 가능성을 간파했고, 뒤부아는 실제적인 문제들의 해결을 도와 르코르뷔지에는의 건축을 출발시킬 수 있었다.

두 스승: 레플라트니에와 페레

르코르뷔지에는 자신에게 가르침과 깨우침을 준 여러 사람들 중에 그를 학교에서 직접 가르치며 근대적 디자인을 일깨워줬던 레플라트니에(Charles L'Eplattenier, 1874-1946)와 실무에서 철근콘크리트 구조를 배웠던 오귀스트 페레(Auguste Perret, 1874-1954)를 스승으로 여겼다.

레플라트니에는 르코르뷔지에는에게 자연과 예술을 읽고 표현



라쇼드퐁 미술학교, René Chapallaz & Charles L'Eplattenier, La Chaux-de-Fonds

2) 피에르 장느레에 대해서는 C. Courtiau, Pierre Jeanneret, in Le Corbusier, une encyclopédie, Centre Georges Pompidou, 1987, pp. 213-215 참조.

3) 르코르뷔지에는가 21세에 쓴 이 편지는 1965년 르코르뷔지에는의 사망 다음날 그 존재가 알려져 『건축을 향하여』의 1977년판 말미에 추가됐다. 그는 유럽 대륙을 돌아다니며 모든 영역에서 감지한 불화의 징조를 짚고, 예민한 감수성으로 새로운 시대가 탄생했음을 간파하면서 철과 시멘트라는 새로운 재료와 구법이 가져올 결과를 인식하고, 자신의 투쟁적 삶을 예견했다.

4) Kenneth Frampton, Studies in Tectonic Culture: The Poetics of Construction in Nineteenth and Twentieth Century Architecture, Massachusetts Institute of Technology, 1995에서 인용. 페레는 1889년 오귀스트 슈아지(August Choisy, 1841-1909)가 저술한, 동서고금의 건축구법이 간결한 입체도에 의해 그려져 있는(르코르뷔지에는도 『건축을 향하여』에서 오귀스트 슈아지가 그린 성소 피아 사원 등의 입체도를 게재했다) 두 권의 『건축역사』(Histoire de l'architecture)에 심취해 있었다.

하는 능력을 키워줬고, 제자의 비범한 재능을 꿰뚫어보고 본인이 싫다는 건축의 길을 가도록 강권했던 인물이다. 제자가 고향에 첫 건축 작업을 하도록 주선한 것도, 모교에 새로 조직한 ‘연합예술아틀리에(Ateliers d’Art Réuni)’의 건축분과에 그를 담당 교사로 일하게 한 것도, 어렵게 장학금을 만들어 독일공작연맹(Deutscher Werkbund)을 연구하도록 돕고 주요 관련자를 모두 만날 수 있도록 라쇼드퐁 학교 명의를 신용장을 만들어준 것도, 그 연구의 보고서인 『독일 장식예술에 대한 연구』를 독일과 프랑스의 유력지들에 출판시켜 제자를 국제무대에 데뷔시킨 것도, 파리에 영구 정착할 때 만날 사람들을 주선한 것도 레플라트니에였다. 스승의 가르침을 따라 여행과 실무를 하면서 눈을 떠 마침내 스승을 넘어서는 시각을 가졌을 때 스승에게 보낸 고뇌에 찬 편지는 스승과 생각이 달라졌음을 밝히면서도 감사와 존중을 잊지 않고 있다.³⁾

1908년 처음 파리를 방문한 르코르뷔지에는 스위스 출신의 장식 예술가 그라세(Eugène Grasset, 1845-1917)의 소개로 페레를 만났다. 그라세는 르코르뷔지에는의 학창시절 지역주의를 중시한 교육에서 공부했던 『장식구성의 방법』의 저자였다. 르코르뷔지에는 1904년 철근콘크리트 구조로 구상된 ‘공업도시(Cité industrielle)’ 계획안을 발표해 큰 주목을 받은 가르니에(Tony Garnier, 1869-1948)를 통해 이미 철근콘크리트 구조의 가능성을 확인했지만 이에 대한 구체적 지식 습득은 페레로부터였다. 사실 그라세를 만나기 전에 르코르뷔지에는 벨기에 건축사이자 장식 미술가 주르댕(Frantz Jourdain, 1847-1935)을 만나 당시 철근콘크리트를 사용하던 건축사면서 가구 디자이너였던 플뤼메(Charles Plumet, 1861-1928)와 건축사 소바쥬(Henri Sauvage, 1873-1932)를 소개받았으나 그들이 장식적인 아르누보(Art Nouveau)에서 충분히 결별하지 않았음을 알고 대신 그라세를 통해 페레를 만난 것이다.

르코르뷔지에는 페레의 사무실에서 건물 부재의 표준화·공업화 개념을 확고히 하고 구조재이자 어떤 형태든 만들 수 있는 감성 있는 조형재료로서 철근콘크리트를 활용하는 구체적 수단과 방법을 터득했다. “건축사는 구법(構法)을 통해서 생각하고 그리고 그것을 말하는 시인이다.”⁴⁾라고 충고해준 페레는 배움의 열정에 사로잡혀 오후면 파리의 박물관들을 섭렵하는 르코르뷔지에

에게 “나라면 정신을 육성하는 수학을 공부하겠다.”고 조언했다.⁵⁾ 비록 두 사람은 도시문제나 수평창의 유용성 등 여러 방면에서 의견대립이 있었지만,⁶⁾ 르코르뷔지에는 페레를 존중했다. “언제나 깊이 존경한 선생님의 사무실에서 노예처럼 일하며 많은 것을 얻었다.”고 추억했다.⁷⁾ 자신과 다른 방식으로 철근콘크리트를 사용해 세계적인 성공을 거둔 르코르뷔지에는를 지켜보던 페레도 마르세유 위니테 다비타시옹(L’Unité d’Habitation de Marseille, 1945-1952)을 방문한 후 “프랑스에 건축사가 두 명 있는데, 한 명은 나고 다른 한 명은 르코르뷔지이다.”라고 말하며 르코르뷔지에게 거둔 성과를 인정했다.

르코르뷔지에는의 스승급에 오를 만한 인물은 그가 1910년에 베를린에 머물며 일했던 사무실의 보스로서 당시 독일건축의 거물이었던 베렌스(Peter Behrens, 1868-1940)가 있다. 그러나 그가 근무기간 동안 베렌스를 거의 만나지 못했으며 실시도면만 지겹게 그렸다는 회상에서 베렌스보다는 독일에 체류하며 만났던 인물들과의 교제가 더 중요했던 것 같다.

답사여행에서의 만남

르코르뷔지에는가 1907년 11월에 떠난 첫 답사여행에서 비엔나에 체류 중 비엔나 분리파(Vienna Secession) 설립자인 호프만(Josef Hoffmann, 1870-1956)을 만난 것도 훗날 유럽의 대가들과 교류를 트는 데 큰 도움이 됐다. 르코르뷔지에는 1908년 자신의 스케치북에 담긴 그림들을 보고 반한 호프만이 자기 사무실에서 일하라는 제의를 거절했었다. 그러나 르코르뷔지에는 당시 문화예술계에 영향력이 컸던 호프만과의 연줄이 자신에게 변함없이 쓸모가 있었다고 회고했다.⁸⁾ 그 덕분에 모교의 독일 장식예술 연구 의뢰를 받기 전에 이미 독일의 유명한 건축사 피셔(Theodor Fischer, 1862-1938)와 응용예술품 중개상 페츠만(Günther von Pechmann, 1882-1968) 같은 이들을 만나 사업적인 관계 이상의 친밀함을 유지할 수 있었다. 르코르뷔지에는 뮌헨에서 베를린으로 도시계획 전시회를 보러 가는 중에 독일공작연맹 회의에 참석차 가는 페츠만과 기차여행을 함께 하게 됐는데, 이 친절한 인사는 그를 회의

5) Le Corbusier, 『오늘날의 장식예술』, 이관석 역, 동녘, 2007, 234쪽.

6) 페레와 르코르뷔지에는에 관한 연구로는 Pierre Saddy, Deux héros de l’époque machiniste, ou le passage du témoin in Le Corbusier, une encyclopédie, Centre Georges Pompidou, 1987, pp. 300-305 참조.

7) Le Corbusier, 『건축학교 학생들과의 대화』, 봉일범 역, MGH Architecture Books, 2001, 112쪽.

8) Le Corbusier, A Study of the Decorative Art Movement in Germany, in Mateo Kries(ed.), Le Corbusier: A Study of the Decorative Art Movement in Germany, translated by Alex T. Anderson, Vitra Design Museum, 2008, p. 141.

에 초청해 3일간 함께 다니며 독일공작연맹을 알게 해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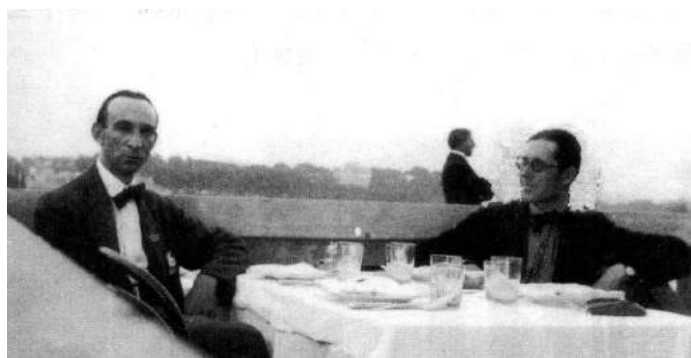
5개월간 베를린의 페터 베렌스 사무실에서 일을 하게 되면서 르코르뷔지에는 그 곳에서 앞서 근무했던, 자신을 포함해 훗날 근대건축의 세 거장으로 손꼽히는 그로피우스(Walter Gropius, 1883-1969)와 미스 반데어로에(Mies van der Rohe, 1886-1969)와의 인연을 시작했다. 첫 만남 후 10년이 지나면서 벌써 국제적으로 주목을 받은 세 건축사는 경쟁하면서도 서로를 인정하는 사이였다. 르코르뷔지에는 당시에 독일공작연맹의 설립자들 중 한 명인 무테시우스(Hermann Muthesius, 1861-1927)도 만났다. 무테시우스는 1911년에 미학은 재료의 질에서 독립될 수 있으며, 덕목으로서의 표준화를 주창하고 생산품 디자인의 미학적 바탕으로 추상적인 형태를 추구하려는 연맹의 목표를 내걸어 르코르뷔지에를 비롯한 당시의 근대주의자들에게 깊은 감명을 준 인물이다.

드레스덴(Dresden)을 여행할 때는 독일공작연맹의 실행이사이자 언론인·발행인·큐레이터로 독일공작연맹 연구보고서 작성을 도와준 도흐른(Wolf Dohrn, 1878-1914)을, 건축사이자 도시계획가인 테스노우(Heinrich Tessenow) 교수를, 하겐(Hagen)에서는 독일박물관(Deutsches Museum) 관장이자 독일의 아방가르드 예술과 건축의 후원자였던 오스트하우스(Karl Ernst Osthaus, 1874-1921)와 교류했다. 르코르뷔지에는 특별히 도흐른과의 만남을 “운 좋은 우연한 조우”라고 묘사했다.⁹⁾ 다양한 상황에서 만난 이들은 르코르뷔지가 독일에 머물며 독일장식예술 연구를 수행할 때 많은 도움을 준 친절하고 용기 있고 지식을 전해준 천사들이었다.¹⁰⁾

파리 정착 이후의 만남

앞서도 언급됐던 오귀스트 페레와의 만남은 파리에 영구 정착한 1917년 5월에 르코르뷔지가 페레의 소개로 파리 예술계의 아방가르드인 오장팡(Amédeé Ozenfant, 1886-1966)을 만나는 인연으로 연결된다. 오장팡은 르코르뷔지가 1920년대에 화가이자 문필가로 활동하는 데 절대적으로 기여함으로써 르코르뷔지에의 사상과 의지에 목적과 방향을 잡아주었다. 오장팡과 함께 한 순수주의(le Purisme) 회화와 근대건축의 형성기인 1920년대에 멀리 미국과 일본에까지 정기구독자를 확보했던 문화예술잡지 『레스프리 누보(L'Esprit Nouveau)』의 발행은 30대 초중반의 무명

외국인인 르코르뷔지가 파리에서 기반을 잡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오장팡은 교류하고 있던 시인 아폴리네르(Guillaume Apollinaire, 1880-1918)나 입체파 화가인 브라크(Georges Braque, 1882-1963), 그리(Juan Gris, 1887-1927)와 피카소(Pablo Picasso, 1881-1973), 입체파 조각가 립시츠(Jacques Lipchitz, 1891-1973) 같은 문화예술계의 선도적 인사들을 르코르뷔지에게 소개했다. 1923년부터 발간된 르코르뷔지에의 대표적 저서 내용들 상당 부분은 『레스프리 누보』에 게재됐던 것들인데, 건축과 도시 관련 논설은 르코르뷔지에-소니에(Le Corbusier-Saunier)라는 필명으로 발표됐다. 오장팡의 필명인 소니에는 오장팡 어머니의 이름으로 그가 원고 작성에 일정 부분 기여했다는 뜻일 텐데, 이 글들을 발췌해 발행한 책인 『건축을 향하여』가 재판본부터 르코르뷔지에 이름만 저자로 쓰인 것으로 보아 사실상 르코르뷔지가 주도해 쓴 글들을 모아 책을 만든 것으로 봐도 무방할 것이다. 1923년에는 『레스프리 누보』의 편집권이 거의 르코르뷔지에게 넘어간 것으로 보인다. 산업적 근대주의에 공감해 친해졌던 두 사람은 1925년 막 완공된 라로슈 주택(Villa La Roche, Paris, 1923-1925)에 그림을 걸 때 오장팡의 제안을 너무 장식적이라며 르코르뷔지가 반대하는 등 이견을 노출하다가 르코르뷔지가 성공가도를 달린 데 비해 달리 상대성 이론 등장과 초현실주의 탄생의 영향으로 오장팡의 합리주의가 위기에 빠지면서 두 사람은 갈라섰다.¹¹⁾



로마에서의 오장팡과 르코르뷔지에, 1921년

르코르뷔지에의 저술과 작품 활동은 많은 예술가와 예술애호가들의 지지를 이끌어냈다. 오장팡이 자신의 집이자 아틀리에의 설계를 르코르뷔지에게 의뢰한 것처럼 입체파 조각가 립시츠와 미스차니노프(Oscar Miestchaninoff, 1886-1956), 작곡가이며 아내가 화가인 테르니지앙(Paul Ternisien), 장례용 기념물 조각가 폴

9) 위의 책, p. 156.

10) 위의 책, p. 142.

라넥스(Antonin Planeix)와 예술품 수집가 베스뉴(G. Besnus), 라로슈(La Roche), 미국인 저널리스트 또는 수집가인 쿡(W. Cook),



슈타인 드몬지 주택을 방문한 몬드리안(아래 우측)과 엘리시츠키(상부 제일 우측), 1926년

처치(H. Church), 슈타인 드몬지(Stein de Monzie), 아마추어 미술가 프뤼게(Henri Frugés) 등이 자신들의 집 설계를 맡기며 신뢰를 보낸 것이다. 그 외에도 슈타인-드몬지 주택(Villa Stein-de Monzie, 1926-28)을 방문한 화가 몬드리안(Piet Mondrian, 1872-1944)과 러시아 구성주의 화가 엘리시츠키(El Lissitzky, 1890-1941), 마르세유 위니테 다비타시옹을 방문한 피카소 등 당대 최고의 예술가들이 건축사 르코르뷔지에와 교류하며 그의 건축을 인정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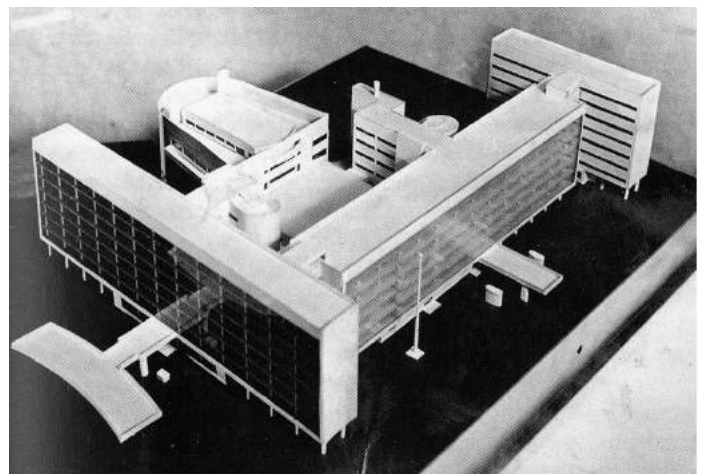
1925년 파리에서 개최된 장식예술과 근대산업예술 박람회 때 주최측에서 르코르뷔지에의 작품인 레스프리 누보관(Pavillon de l'Esprit Nouveau)이 보기 흉하다며 주변에 둘러싼 담장을 철거해줬고, 보르도(Bordeaux) 인근인 페삭(Pessac)에 프뤼게 근대집합주거단지(1924-1926)를 건설할 때 지방정부의 비협조로 인한 난관들을 중재해준 드몬지(Anatole de De Monzie, 1876-1947) 장관, 유럽이 장기불황과 2차 세계대전으로 1930년대 이후 1945년까지 단 여덟 개의 건물만을 완성시키며 힘든 시기를 보내던 르코르뷔지에에게 마르세유 위니테 다비타시옹을 실현토록 도와준 초대 재건성 장관 도트리(Raoul Dautry, 1880-1951), 문필가이자 정치가로서 르코르뷔지에를 존경하는 마음으로 파리 인근 낭테르(Nanterre)에 대규모로 건설될 예정이었던 20세기 뮤지엄(Musée du XXe siècle)의 설계를 위임했고 그의 사후 장례식을 주재했던 문화부 장관 앙드레 말로(André Malraux, 1901-1976), 우여곡절 끝에 찬디가르(Chandigarh) 주도(州都) 설계자로 르코르뷔지에를 선임한 인도 수상 네루(Jawaharlal Nehru, 1889-1964) 등 여러 정치인들도 비정치적 성향의 르코르뷔지에를 받아들였다.

르코르뷔지에의 최고 걸작에 해당하는 통상 순례자 성당과 라투레트 수도원 설계를 당시 종교건물의 설계를 꺼려하던 르코르뷔지에를 설득해 의뢰한 예술이론가 쿠티리에(Marie-Alain

Couturier, 1897-1954) 신부는 은인이라 할 만하다. 도미니크회 신부인 쿠티리에는 예술가로서 수련했으며 근대주의 예술가들을 종교예술에 참여시킬 목적으로 잡지 『성스러운 예술(L'Art Sacré)』를 창간했는데, 르코르뷔지에를 통해 자신의 임무를 100퍼센트 달성한 셈이다. 1946년 프린스턴에서 르코르뷔지에로부터 새로운 측정체계인 '모듈로르(Modulor)'에 대한 설명을 직접 들은 물리학자 아인슈타인(Albert Einstein, 1879-1955)은 이것을 '잘 못된 점은 어렵게 만들고 잘된 점은 쉽게 만드는 비율의 음계'로 높이 평가했다.

앞에서 엘리시츠키와의 만남도 언급했지만, 르코르뷔지에는 1927년에 공동 1등을 했던 국제연맹청사 건립 응모안(제네바)이 부당하게 취소되며 치른 투쟁과 『레스프리 누보』에 러시아 화가이자 조각가, 건축사인 타틀린(Vladimir Tatlin, 1885-1953)의 제3세계를 위한 기념탑 같은 러시아 구성주의 작품을 우호적으로 소개한 연으로 러시아 공산주의자들과도 긴밀한 유대 관계를 맺었다. 르코르뷔지에를 찬미하고 그를 통해 근대건축이 성취할 수 있는 바를 소비에트 민중들에게 보여주기를 원했던 베스닌(Vesnin) 형제¹²⁾와 긴스부르크(Moïse Guinsburg, 1892-1946) 같은 소련 아방가르드들이 도와줘 유럽 국가로 바서는 반체제적인, 불세비키 기관으로 소련 협동조합 본부인 센트로소유즈 청사(Centrosoyuz Building, 1926-1936) 건설을 위한 현상설계에 당선되어 모스크바에 건설할 수 있었다.

르코르뷔지에를 여러 번 설득해 마침내 취리히 호숫가에 르코르뷔지에의 마지막 실현작으로 여겨지는 인간의 집(Maison de



르코르뷔지에, 센트로소유즈 빌딩, Moscow, 1926-1936

11) 르코르뷔지에와 오장방의 관계에 대해서는, Françoise Ducros, Ozenfant(Amédée) in Le Corbusier, une encyclopédie, Centre Georges Pompidou, 1987, pp. 279-281 참조.

12) A. Vesnin(1883-1959)과 V. Vesnin 형제는 이론연구와 실무활동을 겸해 함께 1918년 모스크바의 붉은 광장에 노동절 행사 무대장치를 했으며, 1920년에는 역시 모스크바에 마르크스 기념물을 세웠다.



르코르뷔지에, 인간의 집, 취리히, 1962-1968

l'Homme, 1962-1968)을 완공시킨 베버(Heidi Weber) 여사도 거론하자. 인테리어 디자이너인 그녀는 르코르뷔지에 열광자로 그의 가구를 자신이 취리히에 소유한 갤러리에서 전시하며 르코르뷔지에에게는 다 팔렸다고 하고 모든 전시품을 소유한 이후 계속 그의 가구와 그림, 조각품과 책을 수집했다. 지금은 하이디 베버 재단이자 르코르뷔지에 센터(Heidi Weber Foundation - Center Le Corbusier)인 이곳을 방문했을 당시 입장료를 낼 스위스 돈이 없어 머뭇거리자 그냥 들어오라고 했던 베버는 카메라로 무장한 필자의 일행을 보고 르코르뷔지에는 장기간 아크로폴리스 언덕에 머물 때 스케치만 했지 사진은 찍지 않았더라면 내부 사진촬영을 허락하지 않았다(사실은 르코르뷔지에도 당시에 몇 장의 사진을 남겼다). 게다가 파리에서 온 것을 알고는 프랑스가 르코르뷔지어를 제대로 대우하지 못했다고 분개하던 베버의 모습을 잊을 수 없다. 그녀의 열정 덕분에 지붕 모양은 조금 달랐지만 르코르뷔지아가 1939년 리에즈 박람회와 샌프란시스코 박람회를 위한 프랑스관 계획안의 축소판으로 1950년에 파리지 외곽순환도로의 마이오 출구(la Porte Maillot)에 전람회장으로 제안했었고 '무한성장박물관' 개념에서 순회전시관으로도 제시됐으나 무산될 뻔했던 아이디어가 르코르뷔지에 사후에나마 실현될 수 있었다.

설계사무실의 동료들

르코르뷔지에의 설계사무실에는 앞서 언급된 사촌 피에르 장느르 이외에도 많은 재능 있는 젊은이들이 모여 들어 함께 작업했다. 자신의 건축 개념을 따라 공간성과 함께 호흡하는 가구를 원했던 르코르뷔지에는 '새로운 건축의 5원칙'을 구상할 즈음 "거주장스러운 가구 대신 내부가 잘 짜인 수납장"이 필요함을 절감했다. 1927년 바이센호프(Weissenhof) 시범주택단지 전시회 때였는

데, 그는 파리로 돌아오자마자 건축사이자 가구 디자이너인 페리앙(Charlotte Perriand, 1903-1999)을 고용했다. 페리앙은 가구를 현대건축의 설비(equipment)라고 생각한 르코르뷔지에와 함께 일상적이고 규칙적인 생활을 하는 현대인들의 공통 척도를 찾아 오랜 시간 가구의 표준 크기를 연구했고, 1929년 살롱 도톤(Salon d'Automne)에서 토탈 가구 디자인이 된 아파트 모델하우스를 전시하기도 했다. 르코르뷔지에의 가구들 중 가장 유명한 '긴 의자(Chaise longue)'와 '비스듬한 등받이가 있는 작은 팔걸이의자(Petit fauteuil à dossier basculant)' 등은 모두 두 사람의 합작품이다. 1937년까지 10년간 르코르뷔지에의 사무실에서 일한 그녀는 1940년 일본산업디자인 고문이 되기도 하면서 르코르뷔지에, 장프루베(Jean Prouvé, 1901-1984)와 함께 20세기 가구 디자인을 대표하는 인물로 성장했다.



르코르뷔지에와 페리앙, '긴 의자'(좌)와 '비스듬한 등받이가 있는 작은 팔걸이의자'(우)

보젠스키(André Wogensky, 1916-2004)는 1939년부터 20년간 처음에는 학생으로, 사원에서 사무실 소장을 거쳐 협업 건축사가 되기까지 르코르뷔지에와 함께 하며 세 곳의 위니테 다비타시옹(Marseille, Rezé & Briey)과 클로드에뒤발 공장(Usine Claude-et-Duval, Saint-Dié, 1946-1950) 등을 맡아 설계했다. 수학의 원리를 음악에 적용했고 유럽 최초로 컴퓨터를 작곡에 활용한, 2차 세계대전 이후 가장 중요한 아방가르드 작곡가들 중 한 명으로 성장한 크세나키스(Iannis Xenakis, 1922-2001)는 건축사이자 엔지니어로 1948년에서 1960년까지 르코르뷔지에 사무실에서 일하면서 1958년 브뤼셀 엑스포를 위한 필립스 전시관 설계를 주도했고 파리 대학기숙사촌 브라질관(1952-1959)과 라투레트 수도원(1953-1960)의 리드미컬한 수직 유리창살의 물결을 고안했다.

건축사 조제 우브르리(José Oubrière, 1932-)는 앞서 언급된, 르코르뷔지에 사후에 완공된 인간의 집과 역시 공사가 오랜 기간 중지됐다가 2006년에 완공된 피르미니 생피에르 성당(Eglise Saint-Pierre de Firminy, 1960-2006)을 마무리했다. 세르트(Josep Lluís Sert, 1902-1983)는 1929년에 짧은 기간 르코르뷔지에 사무실에서 일했는데, 이후 하버드대학교에 재직하며 르코르뷔지에로 하여금 대학 내에 카펜터 시각예술센터(Carpenter Center for

the Visual Arts, Cambridge, 1958-1963) 설계를 주선하고 직접 공사를 감독했다. 니마이어(Oscar Niemeyer, 1907-2012)는 르코르뷔지에 사무실에서 근무하지는 않았지만 르코르뷔지에가 리오테자네이로에 건설할 교육 및 건강성 청사를 자문할 때 직접 르코르뷔지에의 스케치를 도면으로 옮겼고, 브라질 대표로 뉴욕에 건립할 국제연합본부 설계도 르코르뷔지에와 함께 했다. 한국 근대건축의 중요한 인물인 김중업(1922-1988)도 1952년부터 4년간 르코르뷔지에 사무실에서 일했다.



르코르뷔지에, 필립스 전시관, Brussel, 1958



르코르뷔지에, 피르미니 생피에르 성당, Firminy, 1960-2006

이러한 연쇄적인, 결과적으로는 운명적 만남으로 귀결된 인연을 맺을 수 있었던 것은 평소 르코르뷔지에의 깨어있고 준비된 치열한 생활자세 덕분이었다. 그는 배움의 안테나를 계속 치켜들고 타인의 장점과 그에게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을 포착하는 안목과 겸허히 받아들이는 열린 마음을 견지했다. 의미 없는 만남과 소홀히 대할 인연은 없다고 한다. 피상적인 만남조차 대하기에 따라 깊은 실존적인 만남이 될 수 있는 법이다. 르코르뷔지에가 좋은 친구를 많이 만났다는 것은 그 자신도 좋은 친구감이었다는 것을 말해준다. 친구란 내 부름의 응답이기 때문이다. ㉮



르코르뷔지에, 카펜터 시각예술센터, Cambridge, 1958-1963

참고문헌

- 이관석, 『빛과 공간의 건축사, 르코르뷔지에』, 기문당, 2014
 COURTIAU, C., Pierre Jeanneret, in Le Corbusier, une encyclopédie, Centre Georges Pompidou, 1987
 DUCROS, Françoise, Ozenfant(Amédée) in Le Corbusier, une encyclopédie, Centre Georges Pompidou, 1987
 FRAMPTON, Kenneth, Studies in Tectonic Culture: The Poetics of Construction in Nineteenth and Twentieth Century Architecture, Massachusetts Institute of Technology, 1995
 LE CORBUSIER, 『건축학교 학생들과의 대화』, 봉일범 역, MGH Architecture Books, 2001
 LE CORBUSIER, 『오늘날의 장식예술』, 이관석 역, 동녘, 2007
 LE CORBUSIER, A Study of the Decorative Art Movement in Germany, in KRIES, Mateo(ed.), Le Corbusier: A Study of the Decorative Art Movement in Germany, translated by Alex T. Anderson, Vitra Design Museum, 2008
 LE CORBUSIER, 『작은 집』, 이관석 역, 열화당, 2012
 SADDY, Pierre, Deux héros de l'époque machiniste, ou le passage du témoin in Le Corbusier, une encyclopédie, Centre Georges Pompidou, 1987

글: 김득수_Kim, Deuk-soo

대한건축사협회 감사

한국 건축 백년대계 토론회 단상

A view after Korean Architecture 100-year-plan forum

<지나온 50년 나아갈 50년 '대한민국 건축 현실과 건축사의 미래진단'>이라는 주제로 지난 12월 9일 대한건축사협회 대강당에서 한국 건축 백년대계를 위한 토론회가 열렸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사회 변화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건축의 정체성에 대한 모호함, 지식기반과 전문성 및 공공적 역할의 부족, 건축사의 위상 저하, 무임승차자로서의 행태, 업무속성장 본질은 공적 영역이나 실체는 사적 영역인 건축사 고유의 역할에 대한 딜레마 등이 문제로 제기되었다.

또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건축사의 전문성 제고, 사회적 인식 전환을 위한 지속적인 재교육과 훈련강화, 건축의 공공성 확보와 홍보 강화, 건축 관련단체 및 외곽 단체와의 소통 및 협력 강화, 정기적인 건축(학)계 관련 포럼 개최를 통한 이슈화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었으며, 대한건축사협회가 배타성을 벗어나 진정한 대한민국 건축계의 대표단체로 거듭날 수 있기를 당부하는 목소리도 있었다.

윤혁경(대한건축사협회 이사) 건축사는 시대에 따른 건축법의 변천과정과 건축사의 역할에 대해 다루었으며, 제대로 된 설계비와 공사 감리비가 보장되어야 함을 강조하였다. 한편 건축사의 권익은 건축사 스스로 지켜야 하고, 건축사의 위상을 높이는 일은 바로 건축사 스스로의 몫이라고 주장하였다.

제해성(건축도시공간연구소) 소장은 건축서비스산업의 현실과 미래전략적인 관점에서 통계를 인용하며 건축서비스산업이 가진 본질적이고 구조적인 문제점을 지적하였다. 그에 대한 대안으로 체계적인 서비스업무표준 제정, 업무 범위의 세분화와 확대, 합리적인 보수부과기준 마련 등을 미래전략으로 제시하였다.

구영민(한국건축설계교수회) 회장은 대학에서 바라 본 미래 건축사의 모습과 교육방향에서 미래 건축사의 존재를 사회 변동에 대한 지각 능력자로서 통합적 생태작용이 일어나는 환경을 조성하는 창조자로 정의하였다. 따라서 미래의 건축교육은 산업사회 속에서 억압되었던 무의식적 자아를 찾아내고, 도전적이고 경쟁적이며 모험적이고 변화에 신축적으로 대응하는 사고 능력을 배양시키는 것이라고 하였다.

강부성(한국건축정책학회) 부회장은 건축도시의 품질강화, 건축서비스의 혁신, 건축의 가치(성능)를 보장할 수 있는 체계 구축, 건축의 신뢰성 강화, 공공/민간 건축문화기금 조성 등을 제안하였다.

전영철(열린모임 참 건축사사무소) 건축사는 소형 건축사사무소의 운영 실태 및 생존전략에서 너무 낮은 설계대가, 수주경쟁에 따른 과도한 기획 및 계획비용의 지출, 국내 건설사업 발주의 대형화를 지적하면서 근본적인 원인을 건축정책의 부재로 보았다.

김현진(에스피엘케이 건축사사무소) 건축사는 '대한민국에 건축은 있다'라는 주제로 서두를 열면서 신진건축사로서 바라본 건축사의 현실과 미래에 대한 의견을 제시했다. 건축대학 졸업생과 건축사의 과다 배출 그리고 급여 수준과 기회 가능성 때문에 지역의 건축대학 졸업생들이 서울에 취업하면서 겪게 되는 지역 건축사사무소의 인력난 등 지방 건축사로서의 애로사항을 이야기 하였다. 그리고 건축을 시작하면서 꿈꾸었던 것들을 잃어가는 이들에 대한 안타까움과 지역 건축사사무소의 일자리가 점차 줄어들면서 상대적인 박탈감으로 인해 다음 세대를 기약하기 어렵다는 절박함을 토로하였다. 하지만 사람들에게 감동을 줄 수 있는 좋은 건물과 공간을 만들기 위해서는 궁극적으로 설계의 중요성과 건축 본연의 가치를 추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래야 다음

세대 누군가에게 안정된 사회적 바탕과 건전한 일자리를 만들어 줄 수 있게 될 것이라고 하였다.

최지희(건설경제) 건축전문기자는 우리나라의 사회적 풍토가 지난 50여 년간 건축을 우대해 줄 만한 분위기는 아니었다고 진단하였다. 그러므로 우선 협회 등 업계가 발주처의 불합리한 요구에 수동적으로 신문고나 두드릴 것이 아니라, 불합리한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적극적인 개선책을 찾아야 한다며, 앞으로 건축산업의 50년은 표준계약서의 시대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전문가의 다양한 관점으로 우리 건축현실의 과거와 미래를 연결시키려는 시도와 노력은 좋았다. 그러나 건축사의 미래를 위한 개선방안은 여타 토론회와 마찬가지로 원론적인 선에서 크게 진척되지 않았고, 지나온 50년을 바탕으로 나아갈 50년에 대한 구체적인 비전과 실행방안이 제시되지 않아 아쉬움이 남는다. 따라서 우리가 현실적으로 고민하고 해결해야 할 부분을 가까운데서부터 찾아보고자 한다.

예를 들어, 협회가 회원들의 회비수입에만 의존하지 않을 수 있는 방안이라든지 건축사대회, 건축산업대전, 한옥교육, 건축창의교실, 영화제 등 정례 행사로 치러지고 있는 일들이 이제는 우리들만의 잔치가 아니라 국민과 하나 되어 함께 즐기고 기뻐하는 행사가 될 수 있어야 한다. 그에 대한 구체적인 실행방안 등의 제시가 부족하지 않았나 생각한다.

일례로 대한건축사협회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 어린이 건축창의교실 참가후기가 있다. 아이가 참가할 수 있어서 매우 좋았고, 그에 대해 깊이 감사하는 부모의 글이다. 이렇게 어린이를 교육하는 일이야말로 우리 건축 발전의 50년을 내다보는 본보기라 여겨진다. 좋은 건축을 위해서는 좋은 건축주가 많아져야 함은 당연하다. 앞으로는 초등학교만이 아니라 중학생을 위한 과정도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중학교에는 이미 자유학기제가 시행되고 있고, '내가 살고 싶은 집 만들기' 등 건축관련 교과목도 제시되어 있



는 상황이니 차제에 중학생을 위한 제대로 된 건축교육의 보급을 위해서도 힘써야 할 것이다.

또한 친환경 건축자재에 대한 기술개발 및 DB를 구축할 수 있는 건축자재센터를 설립하여 협회의 특성화 사업을 추진하는 것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이러한 특성화 사업들을 발굴하여 추진하는 것은 협회의 재정 자립도를 높이는 중요한 일이라 생각한다. 또한 모든 건축사들이 무한 경쟁 속에서 살고 있지만, 미래를 위해서는 우리의 젊은 후배들을 위한 인큐베이팅도 필요하다. 결국은 우리 건축계의 발전에 도움이 되는 다양한 개선 아이디어를 제도화한 법·제도·정책 연구가 우선 되어야 하며, 공공과 건축계가 함께 노력할 때, 건축사의 위상뿐 아니라 건축계의 인식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어제와 똑같이 살면서 다른 내일을 기대하는 것은 정신병 초기증상’이라고 했던 아인슈타인의 충고처럼, 한국 건축의 미래가 달라지기 원한다면 우리가 먼저 변해야 한다. 우리 건축의 50년을 바라보기 위해서는 실천할 수 있는 바람직한 전략을 수립하여 한 걸음씩 꾸준히 나아가야 할 것이다. 새해 새 지도부와 함께 한국 건축을 더욱 진취적으로 이끌어가는 우리 대한건축사협회가 되기를 바란다. ■

글. 봉주희 Bong, Joo-hee

대한건축사협회 국제위원회 위원

봉주희건축(Joohee Bong Architects, New York+Seoul) 대표

‘실용적 유토피아’ 건축전시회 보고서

‘Practical Utopias; Global Urbanism in Seoul, Hong Kong, Shanghai, Singapore, and Tokyo’ Exhibition Report

행사명	Practical Utopias: Global Urbanism in Seoul, Hong Kong, Shanghai, Singapore, and Tokyo(실용적 유토피아)_건축 전시회		
일시 / 시간	2014년 10월 22일 (수), 13:30 ~ 21:00		
장소	서울시 동대문구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DDP) / 롯데월드타워 / 롯데호텔 월드		
프로그램	Programs	장소	Contents
	Program Part 1	DDP_ 갤러리 문	- 개막식(환영사, 축하, 리본 컷팅식)- 전시 투어
	Program Part 2	DDP 주요 공간들	DDP 건축투어
	Program Part 3	DDP_ 나눔 공간	포럼
	Program Part 4	롯데월드타워 홍보관 & 51층	롯데월드타워 답사
	Program Part 5	롯데호텔 월드	만찬 및 환송
주최	대한건축사협회(KIRA), 미국건축사협회 뉴욕지부(AIA NY Chapter)		
후원	롯데물산		
참석자	대한건축사협회(KIRA), 미국건축사협회 뉴욕지부(AIA NY Chapter), 아시아건축사협회(ARCASIA), 국내외 내빈들(건축계, 학계, 정부관료)		

미국건축사협회 뉴욕지부(AIA NY Chapter)와 대한건축사협회(KIRA)가 공동주최한 글로벌 건축전시회(Global Architectural Exhibition)가 서울의 가을하늘 햇살 아래에서 열렸다. 이벤트는 자하 하디드(Zaha Hadid)가 디자인한, 서울의 랜드마크 건축물 중 하나인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The Dongdaemun Design Plaza, DDP)에서 개최된 ‘Practical Utopias(실용적 유토피아)’ 건축전시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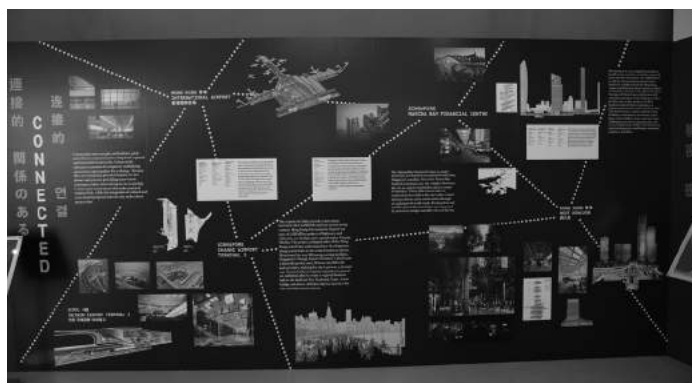
이 전시회는 미국건축사협회 뉴욕지부가 2013년에 시작한, ‘글로벌 도시/글로벌 건축활동(Global City/Global Practice)’이라는 주제 하에 진행하고 있는 뉴욕과 아시아의 글로벌 도시들 간 문화적 그리고 교육학적 교류를 위한 글로벌 순회 건축전시회(Global Travelling Exhibitions) 기획의 일환이다. 즉, 아시아 5개 도시(서울, 홍콩, 상해, 싱가포르, 동경)의 최근의 다이나믹한 발전상을 통해 바라보는 ‘Practical Utopias(실용적 유토피아)’에 대한 전시다.

2013년 뉴욕시티에서 첫 번째 전시회를 시작한 이후 두 번째로 서울에서 개최됐다는 사실이 매우 고무적이다.

전시는 다섯 가지의 테마, ‘Green(녹색)’, ‘Thick(두꺼움)’, ‘Fun(즐거움)’, ‘Connected(연결)’, ‘Dense(밀집)’로 구성되었으며, 현대 도시들이 빠른 성장 속도와 변화에 대해 어떠한 형태로 반응하고 있는지 현주소를 재조명하고 더불어 가까운 미래의 새로운 방향(new trends)을 전망한다. 전시된 프로젝트들은 오늘날의 도시와 삶을 사는 사람들의 도시 경험과 삶의 질을 개선하기 위한 독특한 방안들을 제시했는데, 이는 미래의 아시아 도시들과 전 세계 도시들의 개발계획 모델로서 작용할 것이다.

세 번째 글로벌 순회 전시회는 2015년 봄, 홍콩의 홍콩과학기술대학교(Hong Kong University of Science and Technology, HKUST)의 춘계예술축제(The Spring Arts Festival)의 메인 행사로 선보이게 될 것이고, 국제적으로 배포될 책자와 함께 상하이에 서도 선보일 예정이다.

대한건축사협회 김영수 회장은 이번 전시를 건축의 메카인 뉴욕의 미국건축사협회 지부(AIA NY Chapter)와 함께 서울에서 공동 주최하기로 결심한 배경에 대해 “대한건축사협회는 미국건축사협회(AIA)와 2008년부터 건축사계속교육 및 시험제도 등 건축사 제도 전반에 대한 교류를 지속하며 긴밀한 협력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번 전시회를 통해서 양 단체 간 정보, 학술, 그리고 문화 교류에 대한 폭을 더욱 넓힐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라고 설명했다. 이에 2013년 미국건축사협회 뉴욕지부 회장, 질 러너(Jill Lerner)는 대한건축사협회와의 지속적인 유대와 협력관계를 표명하고, 아시아 도시들 중에서 서울의 역량에 대해 “미국건축사협회 뉴욕지부(AIA New York Chapter)와 2014년도 회장인 랜스 제이 브라운(Lance Jay Brown, FAIA)은 오늘날 아시아의 도시화에 대해 지속적이고 심도 깊은 대화를 나눌 수 있는 대한건축사협회와 파트너십을 갖게 되어 기쁩니다. 사실 아시아의 도시화 영역에서 서울은 주도적인 역할을 해왔습니다.”라며 긍정적인 의사로 화답했다.



Practical Utopias 테마 - Connected (연결)

이번 'Practical Utopia(실용적 유토피아)' 글로벌 순회 전시회의 서울 개최를 기쁘게 생각하며, 건축인들이 이번 전시를 통해 다양한 건축적 그리고 도시적 맥락과 콘텐츠 안에서 자신만의 유토피아를 창작(Create)/발명(Invent)/설계(Design)해볼 수 있는 기회와 시간을 공유할 수 있기를 바란다. 또한 앞으로도 계속 대한건축사협회가 건축, 도시분야의 새로운 글로벌 패러다임 및 전략과 방향을 제시하고, 건축계가 국제적으로 활발히 활동하고 소통해 나가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함으로써 풍요로운 성과들을 창출할 것으로 기대한다.

아시아의 도시들은 오래된 구조와 새로운 것, 동양과 서양적 이슈, 전통과 신기술이 충돌하는 교차로에 위치하고 있다. 동시에 이러한 복잡성과 융합(Complexity and Fusion)은 앞으로 격발할 수 있는 가능성 또한 생산하고 있다. 이제 우리는 중요한 이 시점을 5,000년 역사의 맥락에서 중차대하게 받아들여 글로벌 대도시(Global Metropolis)와 아시아의 도시화(Asian Urbanization) 선상에서 'Korean Utopia(한반도 유토피아)'의 건축적, 도시적 정체성(Architectural and Urban Identity)과 문화적 정체성(Cultural Identity)을 추구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포착하길 바란다.

프로그램별 주요사항

■ Program Part 1

- Contents : 개막식(환영사, 축하, 리본 컷팅식) & 전시 투어
- 장소 : DDP 갤러리 문
- 참석자 : 김영수 대한건축사협회 회장, 질 러너 2013 AIA 뉴

욕지부 회장(Jill Lerner, Former President of the AIA New York Chapter), 탄 페이 잉 아시아건축사협회 회장(Tan Pei Ing, President of ARCASIA), 사티루트 누이 탄다난드 아시아건축사협회 차기 회장(Sathirut Nui Tandanand, President-Elect of ARCASIA), 승효상 서울시 총괄건축사/이로재 건축사사무소 대표, 제해성 건축도시공간연구소 소장, 이원우 롯데물산 대표이사, 신범식 건축학교육인증원 원장, 이상정 前국가건축정책위원회 위원장, 한종률 한국건축단체연합(FIKA) 회장/한국건축가협회 회장, 김만성 대한건축사협회 고문 등



국내의 내빈 참석자 기념촬영

■ Program Part 2

- Contents : DDP 건축투어
- 장소 : DDP 주요 공간들
- 투어코스 : 갤러리 문(전시장) → LED조명탑 → 이간수문 발굴지 → 알림터 내부 → 동굴터널 → 8거리 → 디자인 나눔터 → 나눔관 (포럼 행사장)



DDP 건축투어 - 이간수문 발굴지

■ Program Part 3



포럼장 - 내부공간 디자인과 분위기

- Contents : 포럼
- 장소 : DDP_ 나눔 공간
- 진행 : 강연자들의 프리젠테이션 후 질의응답과 토론형식으로 진행
- 포럼 내용 요약

- Introduction; AIA 회장 헬렌 드레일링(Helene Dreiling) 인사말
“유럽과 미국의 도시발전에 이어 현재는 아시아의 많은 도시들이 도시화를 통해 발전하고 있다. 이러한 배경에서 ‘Practical Utopias’ 전시는 공공의 안전(Public Health, Safety, and Welfare)을 도모하고 건축사의 사회적 책임(Social Responsibility)을 재확인하는 기회로서, 모든 도시 거주자(Urban Dwellers)에게 이로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 강연 1: 질 러너 前 AIA 뉴욕지부 회장

“15년 전에 처음 아시아를 방문했을 때 스케일과 독창성에 많이 놀랐다. 하지만 도심화 현상에 대한 대중들의 자각이 부족한 것을 느꼈고, 이러한 맥락에서 도시화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Practical Utopias’ 전시의 기획을 시작하게 되었다.”

뉴욕 전시회에 소개된 건물들은 홍콩의 IFC센터와 Hysan Place, 도쿄의 롯본기 힐스 프로젝트, 상하이의 WFC, 서울의 청계천 복원 프로젝트, 서초동 삼성본관, 그리고 인천 송도의 다양한 건물들이다. 뉴욕에서는 블룸버그 시장이 제안한 시내 모든 곳에서 도보로 10분 이내에 만드는 프로젝트 등, ‘Plan NYC’ 정책과 ‘Active Design Guideline’에 참여하였다. Highline 재개발도 이러한 관점의 연장선이라 할 수 있다. 그리고 태풍 샌디 이후 재난

에 대비한 안전에도 더 많은 신경을 쓰고 있다. 또한 시민의 건강을 증진시킬 수 있는 자전거 공유프로그램이 시내 전역에서 시행되고 있다. 현재 뉴욕에서 진행되는 대규모 프로젝트로는 외부공간이 활성화된 링컨센터 플라자, 허드슨 야드 재개발사업, 그리고 그랜드 센트럴역과 연계되는 One Vanderbilt Place 등이 있다.”



■ 강연 2 : 승호상 서울시 총괄건축가 / 이로재 건축사사무소 대표

“서양에서 도시의 발전은 기원전 5,000년인 그리스에서부터 시작되었다. 폼페이 유적지를 둘러보면 이상적인 도시 요소들을 발견할 수 있으며, 당시 로마시대 도시의 형태들은 로마군단의 주둔지였던 런던과 파리 등의 도시 형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쳤다. 중세의 이상도시라고 간주되던 이탈리아 남부 시칠리아 섬의 팔레르모(Palermo) 시와 사상가 토마스 무어(Thomas Moore)의 ‘유토피아’ 개념의 공통점을 살펴보면, 이들은 매우 기하학적으로 구성되었고, 평지를 바탕으로 한 단일 중심형인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중세의 유토피아 개념은 현대의 마스터플랜 개념으로 발전했고, 르코르뷔지에의 파리지 마스터플랜과 현대의 수많은 도시에서 이러한 예를 볼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서양의 유토피아적인 도시 속에 사는 사람들이 과연 행복한지를 묻고 싶다. 미국 세인트루이스 부근의 신도시 공동주거 프로젝트의 사례에서 보듯, 현대적인 도시 개발은 실패하고 있다. 하지만 불행하게도 서울에는 여전히 이러한 신도시이론이 적용되고 있다. 르네상스 시대에 투시도법이 개발되면서 집중적인 세계관을 만들었지만 우리 선조들의 민화(책장)를 보면 다원적인 민주주의를 상징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개념은 말레이시아의 말라카(Malacca) 시 등의 오래된 도시들에서 발견된다.

오늘날, 건축사 없이 건설된 산동네들이 재개발되면서 아파트로 바뀌고 있다. 베니스비엔날레의 표어였던 ‘Less Aesthetics More Ethics’와는 반대로 인간의 공동체여야 하는 도시가 경제적인 이득을 우선하는 부동산 공동체로 변질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Instant City’는 두바이의 개발 현황에서 극명하게 보인다. 우리는 ‘터무니’ 혹은 ‘地紋(Landscape)’이라고 불리는 전통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지난해 ‘서울건축선언’을 발표하였는데, 역사도시, 수도, 그리고 유라시아 대륙의 끝에 위치하는 서울이라는 곳에서 공동가치와 역사성 등 10가지 가치를 추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인공적으로 만든 세계의 모든 도시들은 중국에는 멸망할 수밖에

에 없는 운명을 가지고 있지만, 독일 함부르크의 홀로코스트 기념관-유대인 학살 추모공원(The Holocaust Memorial - Memorial to the Murdered Jews of Europe, Peter Eisenman 설계)처럼 기억을 제공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야 할 것이다.”



■ 강연 3 : 조나단 솔로몬(Jonathan Solomon) 시카고 아트 인스티튜트(SAIC) 학과장

“직전 발표를 통해 ‘도시란 무엇인가’ 그리고 ‘커뮤니티는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던져볼 수 있었다. Practical Utopias 전시는 기본적으로 미국 설계회사들의 동아시아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구성되었고, 동아시아 글로벌 도시들의 건축프로젝트들을 통해 글로벌 어바니즘(Global Urbanism)의 현황과 특징을 재조명하였다.

미국의 900 North Michigan이나 한국의 잠실 롯데월드 프로젝트 등은 다양한 기능을 블렌딩하여 도시를 창조하는 실험으로 볼 수 있으며, 더 나아가서는 도시창조의 일환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건물들은 ‘Hybrid Building’이라고 불리는데, 공통점 및 교훈은 다음과 같다.

- 친환경건축 - 청계천의 사례; 지속가능성과 개방성 지향
- 밀도 - 도쿄 롯폰기 힐스의 사례; 과거와 단절된 발전도 긍정적인 측면을 가지고 있음.
- 다양한 레이어(Multiple Layer) - 홍콩상하이은행 사례(Norman Foster 설계)
- 과거 문화를 재현 - 상하이 신천지 쇼핑센터 사례
- 프로젝트에 있어서 인테리어의 중요성 - 싱가포르 마리나베이 파이낸셜 센터 사례(KPF 설계)



■ 강연 4 : 제해성 건축도시공간연구소 소장

“최근의 도시발전 양상을 보면서 ‘Why Not a City of Super Tall Tower’라는 질문을 던져본다. 부산 해운대의 사례에서 보듯 초고층건물은 한국에서 이미 일반적이다. 1750년대에 당시로서는 초고층인 7층 건물이 파리에 건설되었는데, 거주하는 층에 따라 신분 구별이 가능할 정도였으며, 고층에 대한 중요감을 만들어냈다. 하지만 르코르뷔제의 ‘Revolution City’는 고층주거를 제안하였고, 이 아이디어가 한국에서도 적용되고 있다.

1960년대 초반 마포아파트는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고, 1970년

대 초에 지어진 12층 높이의 여의도 시범아파트는 한국이 아파트 공화국이라고 불리는 데 큰 역할을 한 아파트 발전의 선구자라고 할 수 있다. 고층아파트는 여러 측면에서 가장 한국적인 건물이라고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들에게 거부감을 주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건물 중심의 도로를 설계하는 대신 보행자에게 친숙한 가로경관 설계를 해야 한다.

고층건물의 장점으로서는 경제성, 도시경쟁력 회복(영국 카나리 워프 사례), 복합용도 개발, 상징성·마케팅성(싱가포르 마리나베이 사례) 등을 들 수 있으며, 환경적으로도 고층건물이 위성도시를 개발하는 것보다 뛰어나다는 사실이 증명되었다. 혹자는 초고층건물이 건강에 해롭다는 편견을 가지고 있는데, 본인이 수행한 아주대학교병원 환자 34,000명을 대상으로 한 상관관계 조사에서 건물의 높이와 건강에는 관련이 없다는 사실을 밝혀내었다. 결론적으로 르코르뷔제가 주장한 도시와는 달리 새로운 도시성을 창출하기 위해서는 가로친화형으로 개발해야 하고, 복합용도 개발과 고밀도 개발을 추구해야 할 것이다.

■ Program Part 4

- Contents : 롯데월드타워 답사
- 장소 : 롯데월드타워 홍보관 & 51층
 - 홍보영상 관람, 전시물 관람, 51층 투어



롯데월드타워 51층 현장답사

■ Program Part 5

- Contents : 만찬 및 환송회
- 장소 : 롯데호텔 월드
- 사회자 : 대한건축사협회 국제위원회 오동희 위원장
- 축사 : 대한건축사협회 김영수 회장

만찬을 끝으로 모든 행사의 프로그램을 마쳤다. ㉠

글. 박진호 Park, Jin-ho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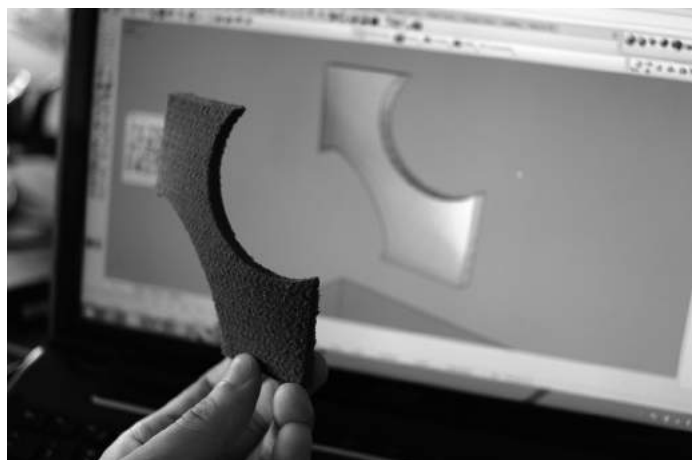
인하대학교 건축학과 교수

상상을 디자인하고 현실로 만들기

산업용 로봇을 이용한 건축디자인 및 제작

Designing and actualizing imagination
- Architectural design and production with industrial robot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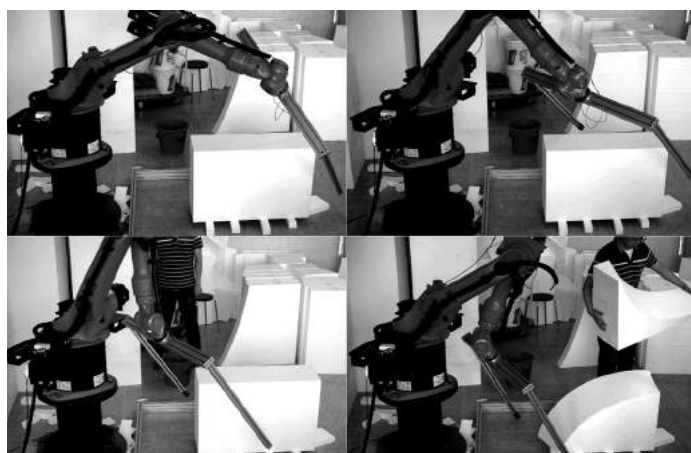
현재 산업용 로봇, 즉 6축 이상의 다관절 로봇은 단순 반복 그리고 정교함이 필수로 요구되는 자동차 차체 제작과 같은 특수목적의 자동생산라인에서 주로 사용되고 있다. 건축분야 역시 로봇의 활용은 건설 현장의 공기 단축이나 원가 절감 등 생산의 자동화가 필요한 영역에서 한정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을 뿐이다.



모델링 완료 후, 동일한 형태로 재현한 모습

최근 많은 연구자들이 로봇의 활용을 단순작업 수행의 수준에서 벗어나 건축분야 혁신의 단계로 이끄는 작업에 동참하고 있다. 인식의 전환이 이루어지고 있는 시점이다. 건축사들의 머릿속에 머물러 있기만 하던 상상적 형태를 로봇이 현실의 세계로 구체화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CAD/CAM 소프트웨어와 연동되어 건축에 적용됨으로써 그 능력은 우리의 고정관념을 뛰어넘어 훨씬 더 다양한 방향으로 이용 및 발전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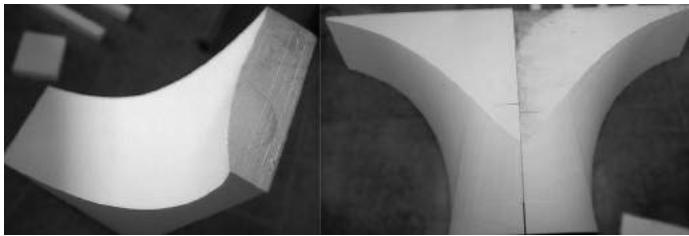
현대 건축에서 로봇은 비선형과 같은 특정 형태를 구현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것의 기하학적 특성을 이해하고, 이를 재현하기 위해 필요한 기술을 학습 및 습득하는 것에도 굉장히 유용하고 효과적인 도구이다. 건축적 형태를 구현하기 위한 목적으로 로봇을 조종하면서 사용자는 자연적으로 디자인에서 구축에 이르는 과정을 체험하고 이해하게 된다. 디자인의 궁극적 목적인 건축물 구현에 앞서 컴퓨터 상에서의 재현에 의한 건축물의 구축방법을 연구 및 습득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다. 그리고 로봇을 활용하여 가상환경 속에 존재하고 있는 부재를 실제로 재현하고 구축하면서 재료의 특성, 재료를 가공하는 데 필요한 도구 그리고 구현 가능한 형태에 대한 이해도를 한 차원 높여준다.



로봇을 이용하여 부재를 가공하는 모습

물론 로봇이 첨단 시공기술과 융합된다면 공사현장의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인력난을 해결하는 등 여러 방면에서 건설산업의 혁신을 이끌 수 있다. 공사 현장에서 정확도가 필요한 작업이나 사람이 수행하기에는 위험성이 존재하는 작업, 생산라인의 자동화가 필요한 작업 등에 로봇이 적용되면 분명 효율성이 높아질 것이다. 그러나 로봇이 자동생산라인 상에서의 정밀시공이나 건설

부품의 양산 그리고 건설현장에서 인력대체의 수단으로만 단순히 이용되는 시대는 이미 지나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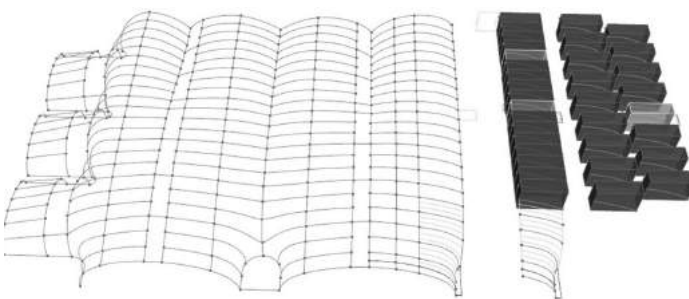


가공 대상물의 형태적 특성과 열선이라는 가공 도구의 충분한 이해 없이는 구현될 수 없는 부재들

단일하고 반복적인 작업만 수행하던 로봇은 이제 생산 및 조립 라인에서 탈피하여 다양하고 복잡한 명령을 수행하고 있다. 건축물의 부재를 제작하고 그것들을 조립하면서 다양한 현대 건축물들을 구축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 앞으로의 건축은 양산이 문제가 아니라 질의 문제이다. 머릿속 상상으로만 존재하던 복잡한 형태



ICD/ITKE Research Pavilion 2013-14 (출처 : <http://www.achimmenges.net/?p=5713>)



모든 면이 2차 평면으로 구성된 천장 구조 모델링. 시공성을 고려한 최적화 작업 후, 불가능 할 것 같았던 형태가 로봇을 활용하여 구현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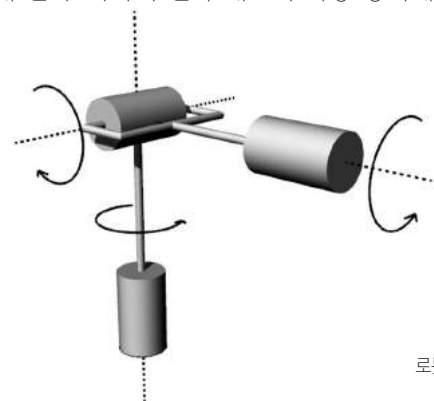
의 건축물이 로봇을 이용함으로써 현실속에 자리잡는 것이 가능해진다. 결국 건축과 로봇 산업의 융합에서 유발되는 건축적 수요의 최대 수혜자는 '상상의 건축물 구현'이 될 것이다.



한국 최초 로봇으로 제작된 천장 구조(시공: RDFinDLab & Be-Arch, 디자인: chohelo A+U)

6축 다관절 로봇은 최근 사회 전반에 걸쳐 그 가능성이 대두되고 있는 3D 프린터와는 굉장히 다른 기능을 갖추고 있다. 6개의 축, 즉 6개의 관절로 구성된 산업용 로봇은 사람의 팔과 동일한 구조를 지니고 있으며 각 관절이 X, Y, Z 세 개의 축 중에서 하나의 축을 기준으로 회전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다. 사용자가 지정하는 삼차원의 좌표에 쉽고 정확하게 도달하며 다양한 재료를 실제 크기와 복잡한 형상의 물체로 정확하게 가공 및 조립하는 것이 가능하다. 사용 목적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대부분의 6축 다관절 로봇은 반복 동작에서의 허용 오차 범위가 0.2mm 이내가 되도록 생산되고 있다. 2차원 형식의 재단 방식을 취하고 있는 일반 레이저 프린터 또는 워터젯 프린터와는 다르게 CNC 밀링 머신 또는 3D 프린터와 같은 삼차원 형식의 가공 방식을 취하고 있지만, 기존의 기계가 지니고 있는 사용 가능한 재료, 제작 가능한 크기와 같은 여러 제약들로부터 월등히 자유롭다.

더욱이 로봇 팔의 말단에 장착되는 도구의 종류에 따라 그것의 용도는 다양해진다. 따라서 건축 재료와 가공 방식에 적합한 말



로봇의 기본 움직임

단장치(end-effector)의 기술 개발 역시 굉장히 중요하다. 단일 로봇 팔이 단일 작업을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로봇 팔의 끝 부분에 탈부착이 가능하면서 목적과 용도에 적합하게 설계된 말단장치를 개발 및 활용하면 로봇 팔 한 대가 다양한 작업을 수행할 수 있게 된다. 하지만 아직 건축분야에서의 로봇 산업이 활발하지 않은 관계로, 건축물의 부재 제작에 필요한 열선, 전기톱, 밀링 등과 같은 도구들을 자체적으로 제작 및 개발해야 할 필요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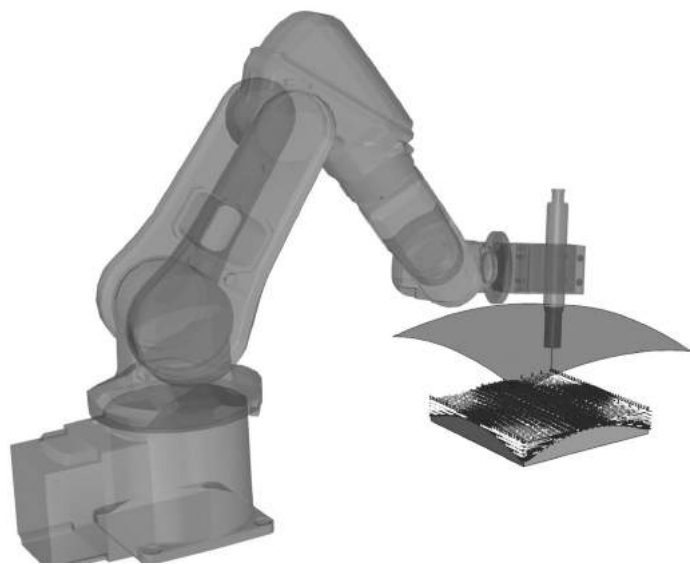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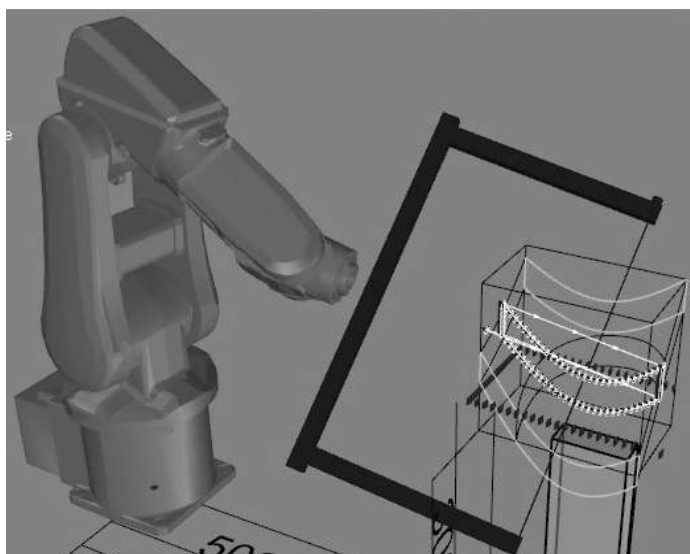


밀링작업

로봇에 부착된 다양한 말단장치로 여러 방식의 공정이 가능해진다. 예를 들자면, 열선을 활용한 스티로폼 가공, 사람의 손으로 구현하기에는 힘과 정확도가 가장 커다란 걸림돌이 되는 정교하고 견고한 관절 구조(finger joint)의 가공, 톱을 활용한 1차 또는 2차 곡면 형상으로의 돌 가공, 그리고 3차원 방식의 철 부재 구부림과 같은 가공 방식 등이 있다. 필요에 따라서는 에어컴프레서에 연결하여 도장용 스프레이 건으로 사용되는 경우도 있고, 용접용의 전극 접점이나 납땜용 기기로 사용되기도 하는 등 그 필요와 목적, 용도에 맞게 다양한 용도로 활용될 수 있다.

정교한 부재를 가공할 시 로봇의 동작 속도를 느리게 조절할 수도 있고, 비교적 단순한 부재의 반복적 제작에는 로봇의 동작을 빠르게 조절할 수도 있다. 3차원의 복잡하고 다양한 기하학적 형상을 제작해야 하는 상황에서는 캐드소프트웨어와 연동되어 있는 그래스호퍼(Grasshopper)에서 공구의 이동경로(Tool-path)를 조절하는 것 역시 가능하다. 하지만 수십, 수백 번의 실험을 거

쳐 최적화된 이동경로를 설정해야 하며, 그것의 정확도에 대한 테스트 역시 필수이다. 이렇듯 가공 예상 부재와 말단장치(End-effector)의 종류에 최적화된 제작 방식에 관한 실험이 수없이 이루어져야 비로소 원하는 결과물을 얻을 수 있게 된다.



열선(위)과 밀링(아래)을 이용하여 부재를 가공하기 전 최적화된 공구의 이동경로 생성 실험, 할 프로그램(HAL Program)

로봇의 활용이 자동차 공장에서도처럼 단순 반복적인 공정을 수행하는 차원을 넘어 여러 상황에서 다양한 물체를 선택하여 집거나 쌓거나 조립하는 등의 것과 같이 복잡한 과제를 수행하는 영역으로 확대되고 있다. 즉 센서나 키넥트 카메라(Kinect camera)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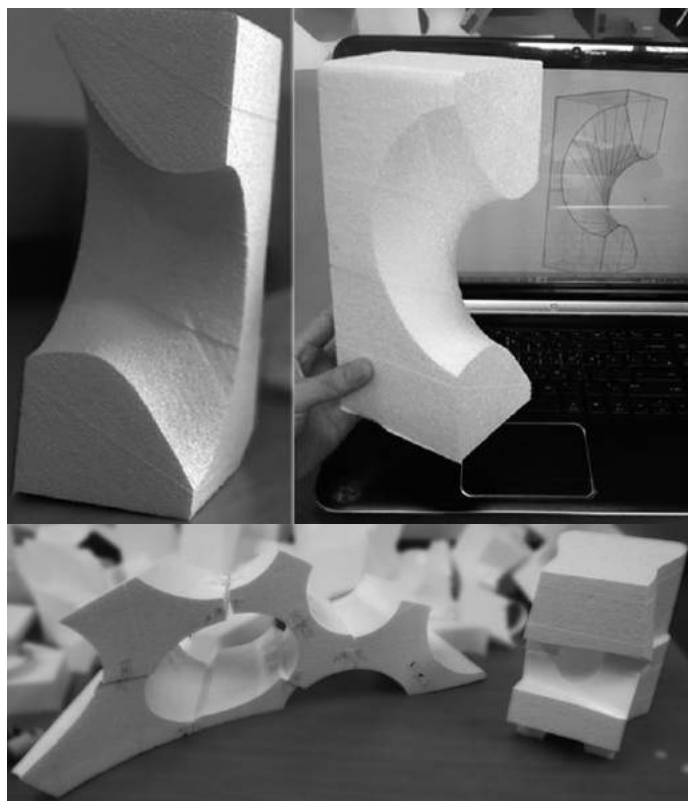
이용한 물체 인식 시스템들이 개발되고 있으며, 또한 복잡하고 세밀한 작업을 수행할 수 있는 다양한 그리퍼(gripper)가 개발되고 있어 건축분야에서 로봇의 적용 가능성이 점점 무한해지고 있다. 다양한 크기와 형태의 물체를 스스로 인식하고 집거나 혹은 집은 것을 단순히 옮기거나 또는 집은 것을 쌓고 조립하거나 접합하는 등의 용도로 활용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단순 박스형의 벽돌을 옮기거나 쌓을 수 있을 뿐 아니라, 한 단계 나아가 각각의 벽돌 부재를 건축물의 형태에 맞게 디자인하고 가공하여 컴퓨터 상에서 디자인한 모습 그대로 조립할 수도 있다. 부재 가공 영역에서만이 아니라 로봇이 스스로 직접 이동하면서 건축사가 컴퓨터에 설계해 놓은 대로 건축물을 조립하고 만들어 가는 영역으로 차츰 확대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현대중공업에서 로봇을 생산하고 있지만 그 적용이 차체 조립 및 물건 운반과 같은 산업에 집중되어 있는 반면 ABB 나 KUKA그리고 Stäubli같은 회사들은 단순 생산라인의 한계에서 벗어나 다방면에서 로봇의 새로운 가능성에 도전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된 연구에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그리고 일련의 연구들을 거치면서 로봇의 적용이 생산성 향상, 공기 단축이나 원가 절감과 같은 현실적 수준의 문제뿐 아니라 예술적 경지, 예를 들자면, 장인의 제작 행위를 모방하여 작품을 가공 및 제작하는 경지까지 점점 확대되고 있는 실정이다.



ABB의 후원으로 진행된 2014 로봇틱스 워크숍

이러한 상황속에서 인하대학교 건축학과 D-LAB은 몇 년 전부터 국내 최초로 산업용 로봇의 건축적 적용 가능성에 주목해 왔고, 현재는 여러 관련 연구들도 진행 중에 있다. 최근 그 동안의 연구와 경험을 바탕으로 그리고 ABB의 후원으로 국내 건축과 학생



워크숍에 참가한 학생의 작품

들과 함께 건축에 응용 가능한 로봇틱스 워크숍도 진행하였으며, 워크숍에서 참가자들은 단순히 산업용 로봇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 수준을 넘어, 그것의 건축 및 디자인적 활용 가능성을 직접 체험하고 실험해 보는 기회도 가지게 되었다.

건축산업에서 로봇을 활용한 디자인과 건축물 제작에로의 응용은 새로운 개척 분야로 등장하고 있고 그 기대치도 점점 증대되고 있다. 컴퓨터로 가상현실 속에서 작업하고 경험하던 건축을 넘어 상상하던 건축을 실제로 정확하게 구현하는 시대로 접어들고 있다. 로봇을 활용한 건축은 시공 자동화나 생산성 향상의 수준을 훨씬 뛰어넘어, 창의적인 지식산업으로서의 상당한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다. ㉮

*공동저자: 신동한, 이훈 (이상 인하대)

글. 김득수_Kim, Deuk-soo

대한건축사협회 감사

5년제 건축교육의 실상과 미래에 대한 고민 ; 5년제 건축교육의 현재와 미래

Facts of 5 year college course and concern about its future ;
The present and the future of 5 year college course of architecture

한국 건축의 태동은 1916년 조선총독부에 설립된 경성공업전문 전주간이공업학교로부터 시작됐다. 3년 또는 2년의 교육연한은 예술가치보다 목조·조적 위주의 공학으로, 1945년 해방 전까지 100여명의 한국인 졸업생 중 20여명이 정규 건축과 출신으로 국내 건축의 밑거름이라 하겠다.

국내 4년제 건축교육은 1950년대 이후 6·25 전쟁 속에서 피난할 당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이루어진 교육을 통해 명맥이 이어져 왔으며, 새마을운동으로 대변할 수 있는 근대화 과정 가운데 건축의 전문적 교육이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이제는 사회 전반적으로 국제화되고 근대화되는 시대적 변화 속 시장 개방이라는 시대적 틀 안에서 1999년 UIA(국제건축사연맹) 협정에 의해 국제 상호인증을 위한 제도 개선으로 건축설계교육의 대대적인 변화가 시작됐다.

〈표1〉 1945년 이전에 설립된 근대 교육기관

교 명	소재지	설립	비 고
상공학교	경성	1899	농상공학교로 개칭(1904) 폐지(1906)
여의도공업전수학교	경성	1906	현 서울산업대
공업전습소	경성	1907	조각학과 설치
경성공업전문학교	경성	1916	1922년 경성고등공업학교 →현 서울대학교
전주간이공업학교	전북	1916	1922년 전주공업보습학교 →현 전주공업고등학교
연희전문학교	경성	1917	현 연세대학교
경성공업학교	경성	1922	공업전습소(전설), 현 서울공업고등학교
홍성공립공업전수학교	충남	1927	현 대전 한밭대학교
송정공업학교	전남	1927	
부산공립실수(實修)학교	부산	1932	1932년 → 부산공립공업학교
소화공업학교	경성	1934	현 한양대학교 공과대학
상공학원	경성	1936	
대동공업전문학교	평양	1938	1944년 평양공업전문학교, 건축과 폐과
동아공과학원	경성	1939	· 김연준 설립, 1941년 동아공과학원 폐지, 1941년 동아고등공과학원 설립 · 1945년 건국기술학교 전문부 개편, 한양공업고등학교 자리로 이전 · 1946년 소화공과학교 인수-건국기술학교 중등부와 병합하여 한양공업학교 설립 · 1948년 한양공과대학
평양공립공업학교	평양		북쪽에는 평양공립공업학교와 북청직업학교 그리고 재영공업전문학교가 있었다.
북청직업학교	함북		

출처: 안창모_한국 근대건축의 시점논쟁_건축문화(2001.1)_127~128p

안상호_20세기 전반기 한국의 건축교육에 관한 실증적 고찰_건축역사연구(1992)_142~161p

우리 건축계도 WTO(세계무역기구)의 회원국으로 가입된 이상 건축설계의 국제시장 개방 압박에 대응해야만 했고, 이를 준비하기 위해 2004년 한국건축학교육인증원(KAAB)이 설립되었다. 교육의 이념, 편제, 연한, 학위, 시설 및 환경, 입학 및 졸업조건 등 교육제도를 UIA 조건에 맞게 수정했으며, 영국이나 미국의 건축교육인증제도 및 건축학의 특성에 따라 다양한 내용을 담게 되었다. 인증업무 수행, 건축의 질적 향상, 건축설계시장의 국제 경제력을 키워야 한다는 취지였다. 그리하여 5년 이상의 정규교육과정을 거친 뒤 실무수련 즉, 인턴과정을 마쳐야만 비로소 건축사 자격시험을 치를 수 있도록 법제도가 개편되었다.

이와 같이 그동안 변경된 교육제도 아래에서 한국건축학교육인

증원은 건축학의 본질과 가치가 WTO에 따른 UIA 건축교육기준 권고에 준하도록 수준 높은 교육을 수행하여 자질 있는 인력을 배출하는 교육인증에 관한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탄생되었다. 이러한 현 시점에서 5년제 건축학교육 전문학위 개설 프로그램 학생현황(2014.12 기준)은 2002년에 학과개설을 시작했고, 2014년도 개설학교 수는 73개, 입학정원은 2,854명으로 졸업생수는 아래 표와 같다.

〈표2〉 5년제 대학교 졸업생 수 (단위:명)

학교수	개설연도	모집구분	입학 정원합계	졸업생수							
				2014	2013	2012	2011	2010	2009	2008	2007
73개교	2003~2014	학과/학부	2,854	1,774	1,887	1,974	1,962	1,472	1,370	1,002	543

5년제 대학교 연도별 통계현황

교수진의 자격과 수, 책임시간, 교수진과 학생참여 지도 교과과정 등을 통해 5년 이상의 교육연한을 갖춘 교육기관이 탄생되었다. 상기 통계와 같이 5년제 대학은 73개로 이중 인증 받은 대학교는 45개교<표3>이며, 비인증 학교는 28개<표4>가 된다. 이와 같이 10여 년 전에 인증을 받은 학교로부터 졸업생이 배출되면서 실무수련 3년을 거쳐 2012년~2014년까지 3차례의 자격시험에서 건축사를 배출한 결과는 <표5>와 같다.

〈표3〉 인증대학교 (단위:명)

학교수	연도	모집구분	입학정원	졸업생수							
				2014	2013	2012	2011	2010	2009	2008	2007
29개교	2002	학과/학부	1,207	821	934	984	1,000	843	735	606	402
10개교	2003	"	396	254	223	241	233	164	173	103	
1개교	2004	"	40	24	27	29	28	21	22		
1개교	2005	"	45	47	37	52	33	16			
0개교	2006	"									
1개교	2007	"	50	25	18	7					
0개교	2008	"									
0개교	2009	"									
0개교	2010	"									
0개교	2011	"									
0개교	2012	"									
0개교	2013	"									
3개교	2014	"	109	94							
총45개교			1,847	1,265	1,239	1,313	1,294	1,044	930	709	402

〈표4〉 비인증대학교 (단위:명)

학교수	개설연도	모집구분	입학정원	졸업생수							
				2014	2013	2012	2011	2010	2009	2008	2007
11개교	2002	학과/학부	305	186	254	293	292	195	219	206	141
9개교	2003	"	337	190	246	220	228	151	169	87	
3개교	2004	"	52	48	63	51	54	49	52		
2개교	2005	"	52	29	29	47	21	25			
2개교	2006	"	70	55	55	50	73	8			
0개교	2007	"									
1개교	2008	"	45	1	1						
0개교	2009	"									
0개교	2010	"									
1개교	2011	"	26								
1개교	2012	"	50								
2개교	2013	"	70								
0개교	2014										
총28개교			1,007	509	648	661	668	428	440	293	141

〈표5〉 건축사자격시험 합격자 중 5년제(실무수련자) 통계 (단위:명)

구분	2012년			2013년			2014년		
	출원자	합격자	합격률	출원자	합격자	합격률	출원자	합격자	합격률
예비시험 합격자 (4년제)	3,028	335	11.1%	3,124	404	12.9%	2,873	310	10.8%
실무수련자 (5년제)	107	2	1.9%	361	13	3.6%	695	26	3.7%

* 2012년 5월 30일부터 실무수련제도 시행(대한건축사협회 등록관리실 제공)

건축사사무소 인력수급 대책마련 시급

우리나라에서는 국제기준에 충족하는 건축교육과정을 정비하여 한국에서 취득한 건축학 학위가 다른 국가에서도 상호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2002년도 이후부터 5년제 건축학과를 개설하여 2014년 현재까지 11,984명(연평균 약 1,498명)의 5년제 건축학과 졸업생이 배출되었다.

2012년 5월 30일 「건축사법」개정에 따라 실무형 예비건축사를 양성하고, 건축사자격의 국제적 상호 인정에 대비하여 도입한 실무수련제도에 따르면 2014년 현재까지 배출된 5년제 건축학과 졸업생의 실무수련신고 인원은 3,396명으로 전체 졸업자의 28.3%만 건축사사무소에 취업한 것으로 보인다.

〈표6〉 5년제 대학교 졸업생 수(인종+비인종대학교)

(단위:명)

학교수	연도	모집구분	입학정원	졸업생수							
				2014	2013	2012	2011	2010	2009	2008	2007
38개교	2002	학과,학부	1,512	1,007	1,188	1,277	1,292	1,038	954	812	543
18개교	2003	"	733	444	469	461	461	315	342	190	
3개교	2004	"	92	72	90	52	82	70	74		
3개교	2005	"	97	76	66		54	41			
2개교	2006	"	70	55	55	7	73	8			
1개교	2007	"	50	25	18						
1개교	2008	"	45	1	1						
0개교	2009	"									
0개교	2010	"									
1개교	2011	"	26								
1개교	2012	"	50								
2개교	2013	"	70								
3개교	2014	"	109	94		1,313					
총 74개교			2,854	1,774	1,887		1,962	1,472	1,370	1,002	543

* 건축사법 제15조 1항 - 일반대학 건축과 졸업 및 졸업예정자는 건축사예비시험 응시, 예비시험 합격 후 실무경력 5년
2항 - 전문대학 건축과 졸업 시 실무경력 2년 후 건축사예비시험 응시, 예비시험 합격 후 실무경력 5년
3항 - 고등학교 건축과 졸업 시 실무경력 4년 후 건축사예비시험 응시, 예비시험 합격 후 실무경력 5년

* 건축사법 시행령 제6조의3 또는 제6조의4
한국건축학교육인증원에서 인증된 5년제 또는 건축전문대학원 졸업 시 실무수련 3년 후 자격시험 응시
한국건축학교육인증원에서 비인증된 5년제 또는 건축전문대학원 졸업 시 실무수련 4년 후 자격시험 응시

〈표7〉 5년제 건축학과 실무수련신고

(단위:명)

구분	입학생누계 (2002~2009)	졸업생누계 (2007~2014)	실무수련신고 (2012~2014)	비고
인원	19,995	11,984	3,396	건축사사무소
연평균	2,450	1,498	1,631	8,647개소

입학생 누계(19,596명) 대비 11,984명(59.9%)만이 졸업을 하는 실정에서 이중 건축사사무소에 취업하는 졸업생 평균이 1,631명인 것을 볼 때 전체 입학생수 대비 실제 건축사사무소에 취업하는 비율은 여러 가지 변수를 감안하더라도 13.6%에 불과한 것으로 파악된다. 이는 대부분의 학생들이 입학 이후 건축사사무소의 어려운 현실로 인해 타 과로 전과하거나 졸업을 하더라도 타 직종으로 이직하는 것으로 추정되며, 이러한 문제로 인해 건축사사무소에서는 5년제 건축학과 졸업생을 평균 5.8년에 1명씩 밖에 구인할 수 없어 현재의 건축사사무소 인력수급 현황의 심각성을 말해준다.

〈표8〉 건축사사무소 취업가능 인원수

구분	건축사사무소	연평균 5년제 졸업생	비고
인원	8,349개	1,631명	5.8년/인당

게다가 이를 수도권과 지방으로 구분하여 5년제 건축학과 졸업생의 취업현황을 살펴본 결과, 졸업자의 72.2% 이상이 수도권의

건축사사무소로 편중되고 있어 지방의 건축사사무소는 5년제 졸업생을 구인하기 위해서는 8.3년의 기간이 걸리는 것으로 조사되어 수도권보다 지방 건축사사무소의 인력수급 문제가 더욱 더 큰 것으로 파악된다.

〈표9〉 5년제 건축학과 실무수련신고

(단위:명)

구분	계	수도권															
		서울	인천	경기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①건축사사무소	8,647	2,075	372	1,203	734	657	293	325	231	242	300	393	317	247	506	580	172
②실무수련자	3,396	2,134	10	164	158	98	85	66	54	29	92	89	40	84	38	82	59
③실무수련인원수		2,308															
④수련자비율(③÷②)		72.2%															
⑤취업가능 연수 ①÷(평균졸업자×④)		3.3년/인당															

따라서, 협회에서는 FIKA 3단체 협의를 통해 5년제 건축학과 졸업생 및 건축사사무소 건축인력 수급현황에 대한 대책을 심도 있게 논의하고, 실무수련에 관한 사항을 각 대학의 건축학과에 보다 적극적으로 홍보함은 물론 건축사시험제도도 개선할 필요가 있다. 또한, 현 정부의 정책인 '창조경제 활성화' 및 '청년실업 해소' 차원에서도 이러한 건축사사무소의 현실을 부각시켜 '건축설계·감리대가 산정기준'이 현실에 맞게 개선되어야 하며, 건축사보를 포함한 건축인력을 쉽게 구할 수 있도록 정부에 적극적인 제도 개선을 요구하는 것이 절실하다.

〈참고〉 강석호 의원 대표발의('14.9.19) : 건축공사 감리현장의 인력난 해소를 위해 일정 학력 및 경력을 가진 사람도 건축사보가 될 수 건축사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되어 있음.

결론

이와 같이 5년제 학제를 시행한 지 10여년이 넘는 이 시점에서 건축사업계의 변화와 문제점에 대한 심도있는 연구가 필요하다. 건축학과 건축공학을 분리하면서 생긴 부작용으로 대학의 경쟁력 저하를 초래하고 있는 가운데 실제 체험을 통하여 얻은 5년제 교육프로그램의 문제점에 관한 불만과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으며, 이에 따라 다양한 의견이나 주장들이 제기되고 있다.

- 졸업생의 취업동향은 건축사보다 건설인을 지향
- 건축교육의 획일화, 졸업생 과다배출, 기초학문의 위기
- 학생 선택으로 인한 중간이탈, 전문대학 커리큘럼(curriculum)의 연관성 등 문제
- 건축학과 건축공학의 분리로 인한 학술적 교류의 단절, 대학원의 연계 역할 등

따라서 건축학과 건축공학은 분리가 아니라 통합하는 방안을 비롯하여 제기된 문제점에 대한 해결 방법과 대학 입학정원에 대한 조절 등에 대해서도 교육부가 심각하게 고민해야 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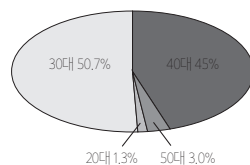
지금이야말로 미래에 관하여 다시 생각해야 하는 시기가 아닌가 싶다. 처음으로 되돌아가는 방법도 있지만, 향후 군 문제까지 고려해본다면 4+2년제를 적극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 의과대학이나 치의대학 등 여타 6년제 학교를 졸업하면서 군 입대 시 장교로 임관하듯이, 우리 건축대학도 4+2년을 마친 후 공병장교로 복무하는 것을 심각하게 고려할 문제다. 현재 5년을 마치면 일반 사병으로 입대하게 되는데, 이는 여타 유럽이나 서구의 여러 나라와는 달리 징병제를 택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상황에서 5년제 건축학과 학생에게는 매우 불합리한 조건이라고 본다.

전 세계가 급속하게 변화하는 이 시기에 우리도 적절한 행보를 하고 있는지 돌아볼 때다. 현대건축의 교육방법으로 획일적이고 경직된 교육이 아니라 창의적이고 유연한 새로운 영역의 창조 등 교육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학교 당국은 물론 건축을 가르치는 교수와 이 분야에 몸담고 연구하고 있는 이들은 5년제 실행 후 건축사의 위상이 예전보다 더 높아졌는지, 또는 5년제 졸업생이 차후 건축사가 되어 생업을 잘 유지해 나갈 수 있을지 자문하면서 긴 안목으로 다시 한 번 되짚어 보아야 할 것이다. ▣

2014년도 건축사자격시험 자격취득자 통계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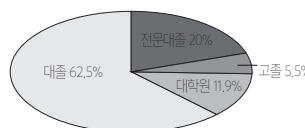
□ 연령별 통계

구분	인원수	백분율
20대	6명	1.3%
30대	238명	50.7%
40대	211명	45.0%
50대	14명	3.0%
합계	469명	100.0%



□ 학력별 통계

구분	인원수	백분율
대학원	56명	11.9%
대졸	293명	62.5%
전문대졸	94명	20.0%
고졸	26명	5.5%
합계	469명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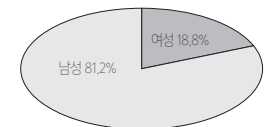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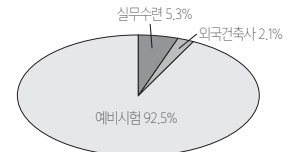
□ 응시자격별 통계

구분	인원수	백분율
예비시험	434명	92.5%

실무수련	25명	5.4%
외국건축사	10명	2.1%
합계	469명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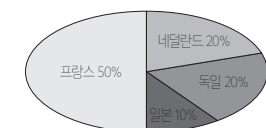
□ 성별 통계

구분	인원수	백분율
남성	381명	81.2%
여성	88명	18.8%
합계	469명	100.0%



□ 외국건축사 국가별 통계

구분	인원수	백분율
네덜란드	2명	20.0%
프랑스	5명	50.0%
독일	2명	20.0%
일본	1명	10.0%
합계	10명	100.0%



□ 건축학 5년제 합격자 통계

총합격자	총합격자	합격율	비고
469명	469명	4.9%	'12년 6명, 1.3% / '13년 21명, 3.6%

□ 2012~2014년도 건축학 5년제 합격자 통계

년도	총합격자	5년제 합격자	합격율
2012년도	455명	6명	1.3%
2013년도	589명	21명	3.6%
2014년도	469명	23명	4.9%

□ 2012년도 합격자 학교 세부현황 (6명)

학교명	인원수	학교명	인원수	학교명	인원수	학교명	인원수	학교명	인원수
SS (인증)	1명	HI (인증)	1명	DA (비인증)	1명	KG (비인증2)	2명	HY (비인증1)	1명

□ 2013년도 합격자 학교 세부현황 (21명)

학교명	인원수	학교명	인원수	학교명	인원수	학교명	인원수
MJ (비인증1)	1명	ST (비인증1)	1명	SS (인증1/비인증)	2명	SK (비인증1)	1명
KG (인증1/비인증3)	4명	US (인증1/비인증)	2명	HI (인증2/비인증)	3명	HK (비인증)	1명
HY (인증)	1명	DA (비인증1)	1명	SN (비인증2)	2명	MP (비인증)	1명
PK (비인증1)	1명						

□ 2014년도 합격자 학교 세부현황(23명)

학교명	인원수	학교명	인원수	학교명	인원수	학교명	인원수	학교명	인원수
KW	2명	ST	1명	CB	2명	MJ	1명	US	2명
KP	1명	SS	2명	UT	1명	HI	2명	EW	1명
KM	2명	SK	2명	HY	1명	MP	1명	PK	1명
JN	1명								

이사회 개최 현황

제12회 이사회

2014년 제12회 이사회가 지난 12월 9일 오후6시 협회 8층 중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이번 이사회에서는 부의안건으로 「2015년 1~2월 임시예산(안) 승인의 건」, 「대한건축사협회 50년사 발간사업비 증액의 건」, 「건설기술자 경력관리회계 운영자금 차입의 건」, 「2014 대한민국건축사대회 결산의 건」, 「건축사시험관리회계 운영자금 일시차입의 건」, 「예비비 사용 승인의 건」, 「회관 임대 승인의 건」이 논의됐다. 주요 협의내용은 다음과 같다.

| 부의안건 |

- 제1호 : 2015년 1~2월 임시예산(안) 승인의 건
 - 원안대로 승인함.
 - (일반회계: 810,000,000원, 특별회계: 1,175,100,000원, 계: 1,985,100,000원)
- 제2호 : 대한건축사협회 50년사 발간사업비 증액의 건
 - 원안대로 승인함.
- 제3호 : 건설기술자 경력관리회계 운영자금 차입의 건
 - 원안대로 승인함.

다만, 차입금 상환계획 등에 대해서는 좀 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고, 전산장비 리뉴얼도 사안이 시급한 만큼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여 차기 이사회에서 논의하기로 함.
- 제4호 : 2014 대한민국건축사대회 결산의 건
 - 원안대로 승인함.
- 제5호 : 건축사시험관리회계 운영자금 일시차입의 건
 - 원안대로 승인함.
- 제6호 : 예비비 사용 승인의 건
 - 원안대로 승인함.
- 제7호 : 회관 임대 승인의 건
 - 원안대로 승인함.

위원회 개최 현황

법제위원회 제1팀·제2팀 회의

법제위원회 제1팀·제2팀 회의가 지난 12월 2일 오전10시 협회 8층 소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주요 협의내용은 다음과 같다.

- 제1호 : 건축물 등의 범죄예방 기준 고시(안) 검토의 건
 - 「건축물 등의 범죄예방기준」(안)에 대해 검토한 결과 해당 기준으로 인해 발생될 수 있는 문제점 등을 명시하여 검토의견을 제출하기로 함.
- 제2호 : 건축위원회 심의 기준(안) 검토의 건
 - 「건축위원회 심의기준」(안)에 대해 검토한 결과 심의절차 및 제출도서의 간소화를 위해 개선되어야 할 사항을 명시하여 제출하기로 함.
- 제3호 : 건설기술진흥법 관련 서울시건축사회 개선(안) 검토의 건
 - 서울시건축사회의 개선(안)에 대한 제도개선은 보류하기로 함.
- 제4호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검토의 건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개정령(안) (안제75조제1항,안제57조)에 건축사법 제2조제3호에 의한 설계는 그 대상에서 제외하며, 건축물과 관련된 소방·설비·전기·통신 등의 분야도 함께 제외해야 함을 국토교통부에 제안해야 함.
- 제5호 :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 시행령 관련 전남건축사회 개선(안) 검토의 건
 -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의 취지 및 설계공모 관련 회의 중(2013년도 건축설계산업 육성을 위한 TF회의) 논의됐던 사항을 정리하여 전남건축사회의 개선(안) 반영이 어려울 것으로 회신하기로 함.
- 제6호 : 건축허가 및 착공신고 시 제출도서 개선안 검토의 건
 - 현행 허가 및 착공 시 제출하는 내용에서 에너지절약계획서 및 건축설비(기계설비, 전기설비, 소방설비, 통신설비 등)에 필요한 도서 목록을 세분화한 개선안을 마련하기로 함.
- 제7호 : 대한주택보증 현장검사 업무대행 약정 관련 자료 검토의 건
 - 현장검사 업무대행자 협정 관련 법제위원회 검토의견을 대한주택보증협회에 제안하기로 함.
- 제8호 : 조달청 수의시달률 관련 제도개선 검토의 건
 - 근본적인 법률개정(국가계약법)이 필요하며,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의 설계공모 방식 의무화 취지를 근거로 규제개혁위원회에 개선안을 제안하기로 함.

제5회 회원권익보호위원회

제5회 회원권익보호위원회가 지난 12월 22일 협회 8층 소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주요 협의내용은 다음과 같다.

- 제1호 : 활동보고서 확정에 관한 건
 - 작성자 : 허민구 위원
 - 보고서 내용 : 발주처 및 허가관청의 횡포에 의한 피해사례(9건)를 유형별로 분류하였으며, 임기 내 활동사항을 정리.
 - 회장께 보고 후 건축문화신문에 칼럼 형식으로 기고하되 기고자는 추후 결정.

제4회 법제위원회 3팀 회의

제4회 법제위원회 3팀 회의가 지난 12월 8일 오후 2시 협회 8층 임원실에서 개최됐다. 주요 협의내용은 다음과 같다.

- 제1호 : 건축제도 연구내용 관련 협회방침에 관한 건
- 다음과 같이 협회 의견을 정리하는 것이 필요함.

건기연 연구결과(안) 및 의견요청내용	협회의견
감리구분 용어 (비상주감리, 상주감리, 건축주대행 상주감리 적절성 및 대안	- (1안) 일반감리 / 전문감리 / 감독감리 - (2안) 기본감리 / 감리 / 포괄감리 - (3안) 법정감리 / 현장감리 / 건축주대행 감리 - (4안) 수시감리 / 상시감리 / 건축주대행 상시감리
상주감리 대상 확대	- 상주감리 대상을 2,000㎡ 이상으로 확대한다면 아래의 사항이 반영 및 검토되어야 함. ① 인접현장 감리원 중복배치가 가능하도록 할 것 ② 상주감리 비용에 대한 고려가 필요함 : 2,000㎡ 건축공사를 감리한다고 가정할 때, 각 분야 감리원을 상주 배치한다면 일반적인 설계비보다 감리비가 상회하는 문제가 있음. ☞ 적절히 대가가 설정되지 않으면 부실감리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책임만 과중
다중이용건축물 확대 (2종 신설)	- 새롭게 추가된 용도 중 제2종 근생 중 목욕장·안마시술소, 제2종 근생 중 노래연습장·안마시술소는 제외하는 것이 바람직함. ☞ 안마시술소, 노래연습장 등은 건축물 사용승인 이후 인테리어 공사로 결정되고 이후 소방안전검사를 건축주가 아닌 사업주가 하도록 하고 있어 감리의 실효성이 없음.
구조분야 감리 세부업무 관련 의견요청	- 타 분야처럼 구조분야를 별도의 감리업무 항목으로 신설할 필요 없음. ☞ 구조계산서 및 구조안전확인서에 따라 부재 및 재료의 구성, 두께, 철근량 등이 설정되어 설계도서가 작성되므로, 설계도서대로 사용되는지 여부만을 검토하면 되는 사항이며, 이런 업무는 건축분야 감리업무에 포함되어 있음.

제3회 녹색건축위원회

제3회 녹색건축위원회가 지난 12월 9일 오전 10시 협회2층 세미나실에서 개최됐다. 주요 협의내용은 다음과 같다.

- 제1호 : 2015년도 녹색건축위원회 사업계획에 관한 건
- 사업계획서(안)대로 진행하되 2015년 새 집행부가 구성된 후 계획서(안)을 보완하기로 함.
- 제2호 : 유지관리 점검제도 활성화에 관한 건
- 점검보고 비율이 낮은 4개 시·도 건축사회(광주, 경기, 전남, 제주)에 점검시행 독려를 내용으로 하는 공문을 발송하는 것이 필요함.
- 제3호 : 에너지절약계획서 검토수수료 적절성 검토에 관한 건
- 수수료를 건축허가 수수료 납부 시 함께 납부토록 하는 제도개선(안) 및 관련 법령 개정(안)을 마련하기 위해 2015년 초에 녹색건축위원회 소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하기로 함.

제15회 50년사 발간위원회

제15회 50년사 발간위원회가 지난 12월 23일 오후 4시 협회 8층 임원실에서 개최됐다. 주요 협의내용은 다음과 같다.

- 제1호 : 50년사 수정사항 점검
- 편집디자인 및 원고를 수정하고 원고료, 윤문료, 자료수집비를 지급하기로 함.

제1회 제3회 회관관리위원회

제3회 회관관리위원회가 지난 12월 1일 오후 4시 협회 8층 임원실에서 개최됐다. 주요 협의내용은 다음과 같다.

- 제1호 : 정부 위탁업무 등 임대료 및 관리비 조정의 건
- 정부위탁업무 전반에 걸친 배경 및 과정에 대해 연구할 필요가 있으며, 충분한 납득이 있어야 대안도 검토할 수 있으므로 현안에 대한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다시 한 번 심도 있게 검토하기로 함.
- 제2호 : 2015년도 회관관리예산 검토안
- 에너지 진단 후 에너지절약방안에 따라 우선 지하주차장의 LED조명 교체에 대한 예산을 추가로 편성토록 하여 추후 면밀하게 검토하여 실행토록 할 것.

제1회 회관관리소위원회

제1회 회관관리소위원회가 지난 12월 5일 협회 8층 임원실에서 개최됐다. 주요 협의내용은 다음과 같다.

- 제1호 : 정부 위탁업무 등 임대료 및 관리비 조정의 건
- 결 과 : 위탁업무관련 부서의 임차료 면제요청은 일면 타당하나 회관관리회계의 세입 감소문제가 있으므로, 임대료의 납부 대신 관리비를 상향조정하든지, 별도의 관리운영비 기준을 마련한다든지 하는 보완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다만, 사용하지 않는 공간에 대해서는 임대료 등을 면제하는 것이 타당함.

제1회 예산결산소위원회

제1회 예산결산소위원회가 지난 12월 9일 협회 8층 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주요 협의내용은 다음과 같다.

- 제1호 : 2015년도 사업계획 예산요구안 검토 건
- 각 위원회 및 사무처로부터 요구된 2015년도 일반회계 사업계획 예산요구안에 대하여 사업별로 전반적인 설명을 듣고 1차 검토함.
- 2015년도 사업계획 예산요구(안) 중 정보전산사업, 법제도개선사업, 조사연구사업, 국제사업에 대하여는 차기 회의 시 담당부서장 등의 의견을 듣고 사업의 타당성 및 중요성, 시급성 등을 감안하여 사업 우선순위 등에 따라 2015년에 추진할 사업을 선정 예산안의 계수를 조정기로 함.

제2회 예산결산소위원회

제2회 예산결산소위원회가 지난 12월 17일 오후 2시 협회 8층 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주요 협의내용은 다음과 같다.

- 제1호 : 2015년도 예산편성지침(안) 심의
- 2015년도 예산편성지침(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검토하고, 제2차 협회발전기본계획 및 '15년도 실천계획안과 각 회계별 예산안 편성결과를 반영하여 예산편성지침(안)을 수정, 보완하도록 함.

● 제2호 : 2015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안 심의

- 2015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안 중 일반회계 세입부문과 경상비(사업비, 인건비 제외)부문 세출예산안을 1차 축조·심의하여 다음과 같이 예산액을 조정하고, 차기 회의에서 일반회계 사업비부문 등과 특별회계 예산안을 축조·심의하기로 함.

제3회 예산결산 소위원회

제3회 예산결산 소위원회가 지난 12월 22일 오전 10시 협회 8층 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주요 협의내용은 다음과 같다.

● 제1호 : 2015도 사업계획 및 예산안 심의

- 2015도 사업계획 및 예산안 중 일반회계 세출부문 중 사업비에 대한 예산안을 축조·심의하여 예산안을 조정함.

제4회 예산결산 소위원회

제4회 예산결산 소위원회가 지난 12월 29일 오전 10시 협회 8층 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주요 협의내용은 다음과 같다.

● 제1호 : 2015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안 심의

- 2015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안 중 일반회계 사업비 일부와 건축연구위원회 등 7개 특별회계 예산안을 소관위원회 임원 및 부사장을 참석시켜 설명을 듣고 축조·심의하여 예산안을 조정함.

제3회 정보전산위원회

제3회 정보전산위원회가 지난 12월 3일 오후 2시 협회 8층 임원실에서 열렸다. 주요 협의내용은 다음과 같다.

● 제1호 : 협회 회원들에게 SNS를 통한 정보전달 방안

- 현재 홈페이지가 모바일에도 맞춰져 개발되어 있기 때문에 새로운 앱을 개발하는 것보다 기존에 있던 모바일 웹페이지를 보강하는 쪽으로 추진하기로 함.

● 제2호 : 협회 정보전산 총당금 적립의 적립방안

- 각 프로그램별 예상비용을 검토하여 근거 자료 작성 후 담당이사, 위원장의 검토를 통해 예비비를 책정하기로 함.

● 제3호 : 협회 정보전산 2015년도 사업계획

- 서버실 서버랙 교체 :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인지시켜야 함.
- 건설기술자 경력관리 프로그램 리뉴얼 : 노후한 시스템 사용으로 안정성이 보장되지 않으므로 개발을 필수적으로 진행해야 함.
- 정보전산팀 인력 충원 : 업무를 세분화하여 필요성을 인지시키는 것이 필요.

제4회 건축사등록원 운영위원회

제4회 건축사등록원 운영위원회가 지난 12월 5일 오전 7시30분 협회 8층 소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주요 협의내용은 다음과 같다.

● 제1호 : 2015년도 건축사실무교육기관 및 과정 인정심사(보류건)에 관한 건

- 지난 회의결과 서류제출 미비 등에 따라 보류된 16개 교육과정과 건축사교육원에서 추가로 제출한 2개 윤리교육 모두 승인 처리하기로 함.

제6회 한옥설계 전문인력 양성과정 운영위원회

제6회 한옥설계 전문인력 양성과정 운영위원회가 지난 12월 23일 오후 5시30분 협회 2층 세미나실에서 개최됐다. 주요 협의내용은 다음과 같다.

● 제1호 : 운영결과 보고서 작성에 관한 건

- 교육과정운영 결과보고서 작성과 관련하여 사무처에서 관련 자료를 정리하고 윤대길 위원장이 검토하기로 함.

● 제2호 : 수료생 사후관리에 관한 건

- 수료생의 정기모임에 운영진, 사무국도 적극 참석하여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은 계속적으로 지원키로 하고, 1·2기 수료생 및 한옥연구회와 함께 토론회할 수 있는 시간을 추진하기로 함.
- 현재 은평뉴타운 한옥분양단지 중 설계가 시작되지 않은 100여 가구에 대해 2014년도 수강생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안내하기로 하고, 은평구청에 한옥설계 교육과정 수료 건축사의 설계사무소와 명단을 제출키로 함.

건축계 소식

김영수 회장, '전남건축인의 밤' 참석·격려

협회 김영수 회장은 지난해 12월 18일 전남 영암군에서 열린 '2014 전남건축인의 밤'에 참석했다. 행사에는 전남지역 건축사 회원 및 건축 관련 공무원 등 약 200여 명이 참석했다. 김 회장은 축사에서 "전남지역 일선 건축사들이 국민들에게 최선을 다하는 모습에 항상 감사한다. 이러한 회원들의 노력은 협회 발전과 건축사의 위상을 제고하는 데 큰 도움이 되고 있다.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는 건축사들이 되어 달라"고 밝혔다.



● 제2호 : 2015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안 심의

- 2015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안 중 일반회계 세입부문과 경상비(사업비, 인건비 제외)부문 세출예산안을 1차 축조·심의하여 다음과 같이 예산액을 조정하고, 차기 회의에서 일반회계 사업비부문 등과 특별회계 예산안을 축조·심의하기로 함.

제3회 예산결산 소위원회

제3회 예산결산 소위원회가 지난 12월 22일 오전 10시 협회 8층 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주요 협의내용은 다음과 같다.

● 제1호 : 2015도 사업계획 및 예산안 심의

- 2015도 사업계획 및 예산안 중 일반회계 세출부문 중 사업비에 대한 예산안을 축조·심의하여 예산안을 조정함.

제4회 예산결산 소위원회

제4회 예산결산 소위원회가 지난 12월 29일 오전 10시 협회 8층 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주요 협의내용은 다음과 같다.

● 제1호 : 2015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안 심의

- 2015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안 중 일반회계 사업비 일부와 건축연구위원회 등 7개 특별회계 예산안을 소관위원회 임원 및 부사장을 참석시켜 설명을 듣고 축조·심의하여 예산안을 조정함.

제3회 정보전산위원회

제3회 정보전산위원회가 지난 12월 3일 오후 2시 협회 8층 임원실에서 열렸다. 주요 협의내용은 다음과 같다.

● 제1호 : 협회 회원들에게 SNS를 통한 정보전달 방안

- 현재 홈페이지가 모바일에도 맞춰져 개발되어 있기 때문에 새로운 앱을 개발하는 것보다 기존에 있던 모바일 웹페이지를 보강하는 쪽으로 추진기로 함.

● 제2호 : 협회 정보전산 총당금 적립의 적립방안

- 각 프로그램별 예상비용을 검토하여 근거 자료 작성 후 담당이사, 위원장의 검토를 통해 예비비를 책정하기로 함.

● 제3호 : 협회 정보전산 2015년도 사업계획

- 서버실 서버랙 교체 :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인지시켜야 함.
- 건설기술자 경력관리 프로그램 리뉴얼 : 노후한 시스템 사용으로 안정성이 보장되지 않으므로 개발을 필수적으로 진행해야 함.
- 정보전산팀 인력 충원 : 업무를 세분화하여 필요성을 인지시키는 것이 필요.

제4회 건축사등록원 운영위원회

제4회 건축사등록원 운영위원회가 지난 12월 5일 오전 7시30분 협회 8층 소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주요 협의내용은 다음과 같다.

● 제1호 : 2015년도 건축사실무교육기관 및 과정 인정심사(보류건)에 관한 건

- 지난 회의결과 서류제출 미비 등에 따라 보류된 16개 교육과정과 건축사교육원에서 추가로 제출한 2개 윤리교육 모두 승인 처리하기로 함.

제6회 한옥설계 전문인력 양성과정 운영위원회

제6회 한옥설계 전문인력 양성과정 운영위원회가 지난 12월 23일 오후 5시30분 협회 2층 세미나실에서 개최됐다. 주요 협의내용은 다음과 같다.

● 제1호 : 운영결과 보고서 작성에 관한 건

- 교육과정운영 결과보고서 작성과 관련하여 사무처에서 관련 자료를 정리하고 윤대길 위원장이 검토하기로 함.

● 제2호 : 수료생 사후관리에 관한 건

- 수료생의 정기모임에 운영진, 사무국도 적극 참석하여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은 계속적으로 지원키로 하고, 1·2기 수료생 및 한옥연구회와 함께 토론회할 수 있는 시간을 추진하기로 함.
- 현재 은평뉴타운 한옥분양단지 중 설계가 시작되지 않은 100여 가구에 대해 2014년도 수강생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안내하기로 하고, 은평구청에 한옥설계 교육과정 수료 건축사의 설계사무소와 명단을 제출키로 함.

건축계 소식

김영수 회장, '전남건축인의 밤' 참석·격려

협회 김영수 회장은 지난해 12월 18일 전남 영암군에서 열린 '2014 전남건축인의 밤'에 참석했다. 행사에는 전남지역 건축사 회원 및 건축 관련 공무원 등 약 200여 명이 참석했다. 김 회장은 축사에서 "전남지역 일선 건축사들이 국민들에게 최선을 다하는 모습에 항상 감사한다. 이러한 회원들의 노력은 협회 발전과 건축사의 위상을 제고하는 데 큰 도움이 되고 있다.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는 건축사들이 되어 달라"고 밝혔다.



대한건축사협회 제14기 글로벌건축최고위과정 모집

대한건축사협회가 주최하고 서울시건축사회가 주관하는 제14기 글로벌건축최고위 과정을 모집한다. 글로벌건축최고위과정은 우리나라 건축문화 발전에 기여하는 최고의 인적 네트워크 과정으로, 모집인원은 40명이다. 지원자격은 건축사, 변호사, 회계사 등 국가전문자격자 또는 기업체 CEO 및 임원, 공무원 및 공공기관 임직원(팀장급 이상) 등이다. 접수는 2월 28일까지이며, 우편 또는 FAX(02-523-2284)로 접수 가능하다. 수강료는 100만원이다.

서울시건축사회 '2014서울건축사 송년의 밤' 성료



서울특별시건축사회는 지난 12월 19일 '2014서울건축사 송년의 밤' 행사를 건축사 회관 대강당에서 개최했다. 이날 송년의 밤은 기념식 및 후원금 전달식으로 건축사 및 협회의 사회봉사활동 참여를 알리고 회원 간의 친목 도모 및 대내외 건축계 인사와의 교류의 장이 되었다. 이어서 진행된 강창희 트러스트연금교육포럼 대표의 특강 '100세 시대의 자산관리'는 예년의 문화공연과 달리한 신선한 프로그램이었다고 참가자들로부터 많은 호평을 받았다.

대구건축사회-대구광역시교육청 MOU체결



대구광역시건축사회(회장 유흥재)는 대구광역시교육청(교육감 우동기)과 지난해 12월 19일 대구시교육청 2층 상황실에서 '이공계 활성화 및 미래 기술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기부 상호 협력 협약'을 체결하였다. 이번 협약을 통해 대구건축사회는 교육청과 협의하여 지역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방과 후 수업 및 특별활동 등을 활용, 전문직업인과의 만남의 장을 마련하는 등 보다 적극적인 참여 활동을 펼쳐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미국건축사협회(AIA) 대중인식개선 3개년 계획

미국건축사협회(AIA)는 일반 대중 및 AIA 구성원의 행동 및 인식 변화를 유도하고 AIA 회원 간의 깊은 이해와 공감형성을 목적으로 3년간(2014. 12. 12~ 2017. 12. 12) 대중인식개선 캠페인을 실시한다. 참여방법은 AIA의 소셜네트워크(SNS)를 구독하고 전파하면 된다.

중국 몰레와(Moleea) 프로젝트 설계공모

중국 후안그룹(The Hua Yan Group)은 세계 최대 규모의 식물테마파크와 국제건축기념관 등의 계획하는 광관도시계획 프로젝트 '몰레와(Molewa)'를 설계를 공모한다. 20ha에 달하는 뉴타운권역이며, 개발 기본계획은 이미 윤곽이 잡힌 상태다. 등록은 오는 2월 5일까지이며, 작품제출은 4월 10일까지다. 등록비는 없으며, 작품은 온라인(www.creativersal.com/uia)으로 제출하면 된다. 수상은 상업 및 문화부문과 주거부문으로 나뉘며, 대상에는 160,000 USD, 최우수상에는 80,000 USD, 우수상 40,000 USD의 상금이 주어진다.

문의 Info@creativersal.com

국토부, '2014 제로에너지빌딩 시범사업' 5곳 선정

국토교통부는 제로에너지빌딩 조기 활성화 및 민간 부문 확산을 유도하기 위해 '제로에너지빌딩 시범사업 대상' 5곳을 선정했다고 12월 29일 밝혔다.

이번 시범사업은 7층 이하 저층형 제로에너지빌딩에 대한 최적화 수단 및 경제성을 검증하고, 이를 통해 선도적 제로에너지빌딩 성공모델을 창출하기 위한 것으로, 향후 상용화를 위한 효과적인 적용·실행방안이 포함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2015년부터 본격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체계적인 시범사업의 시행을 위해 유형별로 총 5건(주거 3건, 비주거 2건)의 시범사업을 선정하였으며, 시범사업의 유형별 특성을 고려하여 맞춤형 지원을 추진할 계획이다.

주거유형의 경우 단독주택에 '진천군 제로에너지 시범단지', 공동주택에 '장안 e-Plus Housing', 블록형 단독주택에 '행복도시 1-1생활권'이 선정됐으며, 비주거유형으로는 업무시설에 'KCC 서초사옥 별관', 문화시설에 '한국에너지플러스산업협회 복합문화관'이 최종적으로 선정됐다. 국토부는 이번에 선정된 5곳에 대해서는 성공적인 시범사업 추진을 위해 신재생에너지 설치보조금 우선지원, 건축기준 완화, 세제감면 등의 지원을 한다는 방침이다.

시범사업으로 선정된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종료 후 최소 3년간 에너지사용량 등을 모니터링하여 사업효과를 검증하고, 향후 제로에너지빌딩 건축가이드라인 마련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

대한건축사협회 건축사사무소 등록현황

(사 : 사무소수, 회 : 회원수)

2014년 11월말

구분 건축 사회	개 인 사 무 소								법 인 사 무 소												합 계	
	1인		2인		3인이상		소 계		1인		2인		3인		4인		5인이상		소 계			
	사	회	사	회	사	회	사	회	사	회	사	회	사	회	사	회	사	회	사	회	사	회
합계	6,377	6,432	68	136	8	24	6,453	6,592	1,865	1,923	221	442	58	174	25	100	16	116	2,185	2,755	8,638	9,347
서울	965	1,020	19	38	0	0	984	1,058	912	970	117	234	38	114	12	48	10	65	1,089	1,431	2,073	2,489
부산	563	563	6	12	2	6	571	581	128	128	26	52	4	12	2	8	1	7	161	207	732	788
대구	548	548	12	24	5	15	565	587	73	73	12	24	4	12	3	12	0	0	92	121	657	708
인천	301	301	2	4	0	0	303	305	61	61	7	14	1	3	0	0	0	0	69	78	372	383
광주	231	231	1	2	0	0	232	233	52	52	5	10	1	3	2	8	1	5	61	78	293	311
대전	270	270	5	10	0	0	275	280	37	37	7	14	3	9	1	4	1	14	49	78	324	358
울산	203	203	4	8	0	0	207	211	21	21	3	6	0	0	0	0	0	0	24	27	231	238
경기	908	908	3	6	0	0	911	914	271	271	13	26	5	15	1	4	1	11	291	327	1,202	1,241
강원	206	206	2	4	0	0	208	210	29	29	2	4	0	0	1	4	0	0	32	37	240	247
충북	243	243	2	4	0	0	245	247	46	46	3	6	2	6	2	8	1	8	54	74	299	321
충남	314	314	1	2	0	0	315	316	68	68	9	18	0	0	1	4	0	0	78	90	393	406
전북	278	278	4	8	0	0	282	286	30	30	5	10	0	0	0	0	0	0	35	40	317	326
전남	216	216	0	0	0	0	216	216	28	28	1	2	0	0	0	0	1	6	30	36	246	252
경북	453	453	4	8	1	3	458	464	43	43	5	10	0	0	0	0	0	0	48	53	506	517
경남	529	529	3	6	0	0	532	535	44	44	4	8	0	0	0	0	0	0	48	52	580	587
제주	149	149	0	0	0	0	149	149	22	22	2	4	0	0	0	0	0	0	24	26	173	175
세종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대한건축사협회 건축사회별 회원현황

구 분	회 원	
	건축사	비 율
합 계	9,347	100 %
서울	2,489	26.63 %
부산	788	8.43 %
대구	708	7.57 %
인천	383	4.10 %
광주	311	3.33 %
대전	358	3.83 %
울산	238	2.55 %
경기	1,241	13.28 %
강원	247	2.64 %
충북	321	3.43 %
충남	406	4.34 %
전북	326	3.49 %
전남	252	2.70 %
경북	517	5.53 %
경남	587	6.28 %
제주	175	1.87 %
세종	0	0.00 %

건축사등록원 통계현황

구 분	자격등록	실무수련
계	12,636	3,685
서울	3,995	2,372
부산	781	160
대구	690	103
인천	385	10
광주	313	85
대전	369	66
울산	238	54
경기	1,465	184
강원	261	29
충북	326	92
충남	383	89
전북	341	40
전남	276	86
경북	502	39
경남	609	82
제주	180	63
기 타	1,522	131
비 고	회원 : 9,198 / 비회원 : 3,438 대학 : 3,400 / 대학원 : 285	

대한건축사협회 사무소형태별 회원현황

구 분	개인사무소	법인사무소	합계	비 고
회원수	6,592	2,755	9,347	
비율	70.53%	(29.47%)	(100%)	
사무소수	6,453	2,185	8,638	
비율	(74.70%)	(25.30%)	(100%)	